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 얼굴형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한 보 현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 얼굴형을 중심으로 -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한 보 현

인 준 서

한보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산업화의 진전 및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사회활동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력적인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적 영역이 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미용분야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추구는 본성에 가까운 가장 인간적이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있는 미를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메이크업은 타인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은 외모에 있어서 사람의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식되는 얼굴은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메이크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위이다. 이러한 이미지 변화는 선과 색을 이용한 메이크업의 착시효과에 의해 얼굴형태와 메이크업간의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얼굴의 이목구비와 얼굴형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형태에 메이크업을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얼굴형태가 완성되어 자신의 외모를 인식하고 가꾸기 시작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형태를 측정한 후 얼굴유형을 분류하고, 얼굴형과 부위별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여, 메이크업 시술 시 자신이 원하는 메이크업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체 측정에 근거한 얼굴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얼굴

형 분류를 유형화하고 주관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메이크업의 적용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립함에 있다. 또한 얼굴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의 조합에 따른 실험을 통해 얼굴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수정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형태 계측을 통해 얼굴형을 분류하여, 얼굴유형별 형태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분류된 얼굴형에 피부, 눈, 입, 볼, 노 메이크업의 5가지 스타일을 적용한 후 그 변화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과 이미지 지각차이를 조사한다.

셋째, 분류된 얼굴유형별 5가지 메이크업 스타일 적용의 변화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과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다.

넷째, 지각자 변인인 성별에 따라 분류된 얼굴유형별 5가지 메이크업 스타일 적용의 변화에 의한 얼굴형태 지각과 이미지 지각차이를 조사한다.

다섯째, 분류된 얼굴유형별 5가지 메이크업 스타일 적용의 변화에 의한 메이크업 선호도를 조사한다.

연구 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피험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9세까지의 여학생 302명과 남학생 299명으로 총 601명이었다. 자극물은 얼굴형이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역삼각형, 장방형, 마름모형인 6명의 모델에게 각각 피부, 눈, 입, 볼을 강조한 4가지 메이크업 스타일과 노 메이크업을 적용시킨 5가지 스타일의 자극물 총 30종류로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메이크업 이미지와 얼굴형태 평가 내용을 조사하는 의미분척도 문항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형은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얼굴유형에 따라 형태별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얼굴 이미지 지각분석은 요인분석 결과 세련성, 품위성, 온유성, 성숙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눈 메이크업 시에는 세련된 이미지로, 볼 메이크업 시에는 온유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성별 지각에 있어서는 여성은 눈 메이크업을, 남성은 볼과 피부 메이크업을 세련되게 평가하였다.

셋째, 얼굴형태의 지각차이는 계란형이 가름하고 윤곽이 또렷하여 입체적이고 조화롭게 지각하였으며, 볼과 눈 메이크업 시 조화롭고 입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눈과 입형태의 지각차이는 눈 메이크업 시 눈이 크고, 뚜렷하고, 날카롭게, 입 메이크업 시 입이 길고, 뚜렷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형태의 지각차이는 볼과 눈 메이크업 시 작고, 짧고, 올라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지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얼굴을 더 크게, 넓게, 조화롭지 못하게 평가하고, 눈의 형태는 더 선명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메이크업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호감형의 얼굴은 계란형과 둥근형으로 나타났다. 성별 선호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라 얼굴유형별 메이크업 스타일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란형은 피부, 눈, 볼 메이크업으로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 연출한다

둘째, 둥근형은 볼 메이크업으로 온유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눈과 볼 메이크업으로 세련된 이미지 변화를 준다.

셋째, 사각형은 피부, 눈, 볼 메이크업으로 품위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넷째, 마름모형은 입과 눈 메이크업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유도한다.

다섯째, 장방형은 볼과 눈 메이크업으로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여섯째, 역삼각형은 눈 메이크업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주거나, 볼 메이크업으로 온화한 이미지를 적용하여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메이크업에 있어서 얼굴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이 상호 조화를 통해 얼굴 이미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를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녀로 한정하고, 화장품 브랜드와 메이크업 스타일 조사에서 국내 브랜드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제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형태지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색채가 주는 이미지 효과는 제외시켰으므로 색채 메이크업을 적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와 이미지 지각차이를 비교 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후속연구에서는 지각대상자의 연령, 거주지, 얼굴형태와 메이크업 스타일을 확대 조사하여 폭넓은 이미지와 형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색채와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적용한 이미지와 얼굴형태 지각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II. 이론적 배경	6
1. 얼굴형태의 일반적 특징	6
1) 얼굴형의 분류 및 유형별 특성	6
2) 얼굴형태와 이미지	15
2. 메이크업 유형과 이미지	28
1) 메이크업의 유형	28
2)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	33
III. 연구 방법	39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40
1) 조사대상	40
2) 자료수집	41
2. 조사 방법	42
1) 얼굴형태 계측	42
2) 얼굴형태와 이미지 지각 평가	47
3. 자료 분석	54

IV. 결과 및 논의	55
1. 얼굴형태 계측치 분석	55
1) 얼굴부위와 유형별 계측치	55
2) 얼굴계측 항목간의 형태적 특성 비교	60
2. 메이크업 이미지 지각 분석	65
1) 메이크업 이미지의 요인 분석	65
2) 메이크업 이미지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68
3. 얼굴형태 지각 분석	76
1) 얼굴형태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76
2) 눈형태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86
3) 입형태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96
4) 볼형태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102
4. 메이크업 선호도 분석	108
V. 결론 및 제언	119
1. 결론	119
2. 제언	12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얼굴유형 분류	8
<표 2> 얼굴 유형별 분류 기준	10
<표 3> 얼굴형태 계측 선행연구	14
<표 4>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분류	18
<표 5> 눈의 형태별 이미지 분류	20
<표 6> 눈썹 형태별 이미지 분류	23
<표 7> 코의 형태별 이미지 분류	25
<표 8> 입의 형태별 이미지 분류	27
<표 9>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41
<표 10> 계측점	44
<표 11> 계측항목	45
<표 12> 실험 얼굴형의 모델과 계측치	48
<표 13> 20대 여성의 얼굴부위 계측치	56
<표 14> 얼굴유형별 계측치 비교	57
<표 15> 얼굴형의 특징	59
<표 16> 얼굴계측 항목간의 상관관계	60
<표 17> 얼굴계측 항목과 눈, 코, 입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	62
<표 18> 메이크업 이미지 요인분석	67
<표 19>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요인 차이	72
<표 20> 이미지의 주효과 검증	73
<표 21> 메이크업 이미지에 대한 3원 상호작용 효과	74
<표 22>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 차이	80

<표 23>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 주효과 검증	82
<표 24> 얼굴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83
<표 25>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눈형태 지각 차이	90
<표 26>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눈형태 지각 주효과 검증	92
<표 27> 눈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93
<표 28>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입형태 지각 차이	99
<표 29>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입형태 지각 주효과 차이	100
<표 30> 입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101
<표 31>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볼형태 지각 차이	104
<표 32>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볼형태 지각 주효과 검증	105
<표 33> 볼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106
<표 34> 메이크업 선호도 차이	112
<표 35> 메이크업 선호도의 주효과 검증	114
<표 36> 메이크업 선호도의 3원 상호작용 효과	115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도	39
<그림 2> 계측점	44
<그림 3> 계측항목	46
<그림 4> 완성된 자극물의 사진	52
<그림 5> 세련성의 3원 상호작용	75
<그림 6> 성숙성의 3원 상호작용	75
<그림 7> 얼굴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84
<그림 8> 얼굴의 크기에 따른 3원 상호작용	84
<그림 9> 얼굴의 입체감에 따른 3원 상호작용	85
<그림 10> 얼굴의 조화로움에 따른 3원 상호작용	85
<그림 11> 눈의 크기에 따른 3원 상호작용	94
<그림 12> 눈의 선명함에 따른 3원 상호작용	94
<그림 13> 눈의 날카로움에 따른 3원 상호작용	95
<그림 14> 눈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95
<그림 15> 눈의 높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96
<그림 16> 입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102
<그림 17> 볼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107
<그림 18> 호감형의 3원 상호작용	116
<그림 19> 동료로서 호감형의 3원 상호작용	116
<그림 20> 친구로서 호감형의 3원 상호작용	11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의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이로 인한 경제력의 향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진시키고 미적 욕구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미적 욕구와 관심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복합적인 외모관리 행동으로 나타나 체형관리 및 헤어, 메이크업 등 종합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서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자신의 외모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모는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자신의 전체적인 인상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얼굴은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는 부분으로 인상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 능력 등을 가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외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굴 각부의 형과 비례를 보는 것이다.¹⁾ 얼굴은 눈, 코, 입, 턱, 볼, 이마의 형태와 각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기하학적 얼굴형의 비율, 윤곽선, 피부색 등의 복합적인 효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개개인의 얼굴은 얼굴유형과 이목구비의 비례와 조화에 따른 형태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미지(image)로 보이며, 얼굴의 이미지는 상대방과의 교류 시 커다란 영향을 주어 각기 다른 인상을 전달하게 된다.

1)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주)사계절출판사, p. 35.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이미지는 그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아름다운 얼굴이 주는 이미지는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타인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부위인 얼굴에 시각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메이크업(makeup)이다. 따라서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연출하는 것은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사회생활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메이크업 이미지는 개인 간의 형태 차이에 있다. 효과적인 메이크업은 개 개인의 얼굴형, 눈, 코, 입의 형태와 표현하려는 이미지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 색을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서 완성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름다운 얼굴 완성을 위한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메이크업 이미지는 얼굴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메이크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얼굴형은 이목구비와 머리모양을 제외한 얼굴의 외곽선으로, 주로 이마와 턱의 모양이나 각도, 얼굴의 길이와 폭의 비율, 광대뼈의 돌출에 의해 시각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얼굴은 대체로 얼굴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얼굴유형에 따른 눈, 코, 입, 볼, 턱, 이마의 크기와 각도의 차이 등의 특성은 유형별로 다양한 이미지를 주므로,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면 메이크업 시 얼굴유형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얼굴형태의 분류 및 측정관련(문남원, 2000; 2) 김혜수, 이경화, 2004;3) 김진숙, 이경화, 2004⁴⁾)과 헤어 디자인(김미정, 이상

2) 문남원 (2000),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유형 분류와 계측 특성연구”, 복식문화연구, 8(1), pp. 133-144.

3) 김혜수, 이경화 (2004), “여대생의 얼굴형태 분석을 위한 계측적 연구”, 대한가정

레, 2004)⁵⁾이 있으며, 얼굴형태와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송미영, 2005)⁶⁾와 이미지 효과(이주희, 2008⁷⁾), 메이크업 기법(나경미, 2004)⁸⁾이 있고, 색채 화장과 얼굴 이미지(이연희, 2001)⁹⁾,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신수현, 2002)¹⁰⁾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얼굴계측 및 얼굴형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계측치를 토대로 얼굴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메이크업을 하여 비교한 논문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체 측정에 근거한 얼굴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얼굴형분류를 유형화하고 주관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메이크업의 적용 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메이크업 이미지가 얼굴의 형태 특성과 메이크업 스타일, 지각자 변인에 따라 변화 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 메이크업의 지각차이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얼굴유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의 조합에 따른 실험을 통해 얼굴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수정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학회지, 42(7), pp. 165-178.

- 4) 김진숙, 이경화 (2004), “영상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대생 얼굴의 유형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 1470-1481.
- 5) 김미정, 이상례 (2004), “남자 대학생의 얼굴계측에 따른 유형별 헤어컷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6), pp. 740-748.
- 6) 송미영 (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대학원.
- 7) 이주희 (2008),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메이크업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 8) 나경미 (2004), 인상학적 측면에서 본 얼굴 형태적 특징에 따른 메이크업 기법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 9) 이연희 (2001), 색채 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 10) 신수현 (2002),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형태 계측을 통해 얼굴형을 분류하여, 얼굴유형별 형태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분류된 얼굴형태에 피부, 눈, 입, 볼, 노 메이크업의 5가지 스타일을 적용한 후 그 변화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과 이미지 지각차이를 조사한다.

셋째, 분류된 얼굴유형별 5가지 메이크업 스타일 적용의 변화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과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다.

넷째, 지각자 변인인 성별에 따라 분류된 얼굴유형별 5가지 메이크업 스타일 적용의 변화에 의한 얼굴형태 지각과 이미지 지각차이를 조사한다.

다섯째, 분류된 얼굴유형별 5가지 메이크업 스타일 적용의 변화에 의한 메이크업 선호도를 조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얼굴형태 및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메이크업 분야의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경험으로 제시되어 주관적인 측면에 치중하였던 메이크업 수정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각 얼굴유형에 대한 형태와 메이크업 이미지 지각차이를 통하여 메이크업에서 얼굴형의 분석에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메이크업 시술 시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되어 여성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얼굴형태를 측정하고 얼굴유형을 분류하여, 얼굴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형태와 메이크업 이미지에 대하여 선행연구 논문들과 간행물 등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 하였다.

둘째, 얼굴유형 분류를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얼굴형태 계측을 하여 안면 부위 24항목의 계측치를 산출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계측을 통하여 조사된 얼굴유형을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역삼각형, 장방형, 마름모형의 6가지 얼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얼굴유형별 계측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얼굴계측을 통하여 선정된 6명의 모델 얼굴을 유형별로 나누어 한 가지 유형에 눈, 피부, 입, 볼을 강조한 4가지 메이크업 스타일과 노 메이크업 스타일을 적용시킨 5가지 스타일의 자극물 총 30장을 제작하였다. 얼굴유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른 얼굴형태 변화와 이미지 지각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넷째, 얼굴유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른 얼굴형태와 이미지 변화의 요인을 추출하고, 성별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과 메이크업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여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메이크업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다섯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얼굴유형과 이미지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제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얼굴형태의 일반적 특징

얼굴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부위이다. 다양한 개인의 얼굴 차이는 서로의 얼굴을 구분하여 안면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얼굴형태는 눈, 코, 입, 이마, 볼, 턱, 얼굴형 등으로 이루어진 특징적인 형태 차이로 구분되어지며, 대부분의 얼굴형태 특징은 한 가지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¹¹⁾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름다운 얼굴형태란 얼굴형, 눈, 코, 입 등의 부위가 시각적인 균형과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1) 얼굴형의 분류 및 유형별 특성

얼굴형은 이목구비와 머리모양을 제외한 얼굴의 외곽선을 말하며, 얼굴유형은 외곽선의 형태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누어지는 타입들의 총칭을 의미한다.¹²⁾ 얼굴의 골격으로는 이마의 형태를 담당하는 이마골격과 양쪽 측면 부분인 관자놀이 뼈, 양쪽 볼의 윗부분인 광대뼈, 눈 앞쪽 부분의 안와(眼窩), 코 윗부분인 코뼈, 턱의 윗부분인 상악골(上顎骨)과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하악골(下顎骨) 등이 있으며, 얼굴형은 주로 이마와 턱의 모양, 얼굴 길이와 폭의 비율, 광대뼈의 돌출에 의해 시각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용진¹³⁾은 한국인의 얼굴특징은 얼굴이 크고, 코언저리가 오목하여 평면적으로 보이며, 눈, 코, 입이 작고, 턱이 발달되어 있는 점이라고 했으며, 최근에 들어서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출생자부터는 턱이 급격히

11) 김경순 (1995), *메이크업*, 서울: 청구문화사, p. 21.

12) 김미정, 이상례, *op. cit.*, p. 741.

13) 조용진, *op. cit.*, pp. 28-58.

작아지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턱뼈가 작아지고 하악지(下顎枝)가 짧아짐으로써 얼굴형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얼굴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연구자들은 얼굴형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왔다. 송미영¹⁴⁾은 얼굴형을 계란형, 긴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으로 나누어서 얼굴계측을 하였는데 턱끝 각과 이마 각, 이마너비, 얼굴 길이와 얼굴 폭이 얼굴형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연희와 이화진¹⁵⁾은 계란형, 둥근형, 긴형, 각진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의 6가지 얼굴형으로 나누었으며, 김경순¹⁶⁾은 타원형, 육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둥근형, 서양배형, 다이아몬드형 등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강경화¹⁷⁾는 계란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긴형 또는 장방형, 마름모형, 삼각형으로 7가지 얼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긴형과 장방형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삼각형 얼굴은 비만형의 얼굴이거나 중년층에서 보이는 얼굴형이라고 하였다. 한명숙¹⁸⁾은 얼굴형을 둥근형, 타원형, 사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긴형의 6가지로 나누었으며, 대체로 각 얼굴형마다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Watson, R.¹⁹⁾, Cohen, J.²⁰⁾, Tung, J.²¹⁾, Quant, M.²²⁾는 오벌(oval), 라운드

14) 송미영, op. cit., pp. 5-47.

15) 이연희, 이화진 (2003), *Make-up design*, 서울: 청구문화사, pp. 35-42.

16) 김경순 (1995), op. cit., pp. 22-23.

17) 강경화 (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 APC, pp. 31-32.

18) 한명숙 (1999), *마꾸아쥬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p. 45.

19) Rosie Watson (2007), *Make-up*, London: Pica Digital PTE Ltd, pp. 76-77.

20) Juliet Cohen (2001), *Vogue make-up*, New York: Carlton Books, INC, p. 58.

21) Jennifer Tung (1994), *Instyle Getting Gorgeous*, New York: Melcher Media, p. 50.

22) Mary Quant (1996), *Ultimate makeup & beauty*, New York: Dk Publishing, INC, pp. 30-31.

(round), 롱(long), 스퀘어(square), 하트-셰이프(heart-shaped)로 5가지 얼굴형으로 나누었으며, 얼굴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메이크업 적용에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얼굴에 시술되는 메이크업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므로 이마와 코, 턱 부분의 수직적인 균형과 헤어라인을 시작으로 미간부위와 코와 입 부분의 수평적인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기에 얼굴형의 이해는 메이크업 시술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의 선행연구와 문남원²³⁾, 김진숙과 이경화²⁴⁾, Kasumi²⁵⁾의 연구에서 사용된 얼굴 유형별 명칭과 분류수는<표 1>과 같다.

<표 1> 얼굴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수	얼굴 유형별 명칭
송미영(2005)	6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마름모형, 긴형, 역삼각형
이연희,이화진(2003)	6	계란형, 둥근형, 각진형, 다이아몬드형, 긴형, 역삼각형
강경화(2000)	7	다이아몬드형, 계란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긴형, 삼각형
한명숙(1999)	6	둥근형, 타원형, 사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긴형
Watson, R.(2007) Cohen, J.(2001) Quant, M.(1996) Tung, J.(1994)	5	사각형(square), 긴형(long), 역삼각형(heart-shaped), 계란형(oval), 둥근형(round)
Kasumi(2008)	6	계란형, 둥근형, 광대형, 역삼각형, 긴형, 각형
김경순(1995)	8	직사각형, 둥근형, 타원형,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다이아몬드형, 서양배형
김미정, 이상례(2004)	4	계란형, 사각형, 둥근형, 장방형
문남원(2000)	7	장방형,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삼각형
김진숙, 이경화(2004)	5	계란형, 원형, 장방형, 사각형, 역삼각형

23) 문남원, op. cit., pp. 133-144.

24) 김진숙, 이경화, op. cit., pp. 1470-1481.

25) Kasumi (2008), 女は見た目が10割!, 東京: 大和書房, pp. 8-28.

얼굴은 대체로 유형별로 구분되는 형상이 있다. 둥근형은 중앙부분이 옆으로 넓어 보이고, 타원형은 등글고 양턱에 각이 없이 곡선으로 이루어지며, 사각형은 양쪽 턱이 발달되어 있어서 각이 돌출되어 보이고, 역삼각형은 얼굴 윗부분의 이마가 넓고 아래턱 부분이 좁고 뾰족하며, 다이아몬드 형이나 마름모형은 얼굴 중앙부분이 넓고 돌출되며, 긴형 또는 장방형은 전체적으로 길고 이마나 턱이 발달되고 코가 긴 편인 특징이 있다.

<표 1>의 얼굴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계란형, 긴형, 사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삼각형, 둥근형의 7가지 얼굴유형을 한명숙²⁶⁾, 강경화²⁷⁾, Kasumi²⁸⁾, Watson, R.²⁹⁾, Cohen, J.³⁰⁾, Quant, M.³¹⁾가 제시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26) 한명숙, op. cit., p. 45.

27) 강경화, op. cit., pp. 31-32.

28) Kasumi, op. cit., pp. 8-28.

29) Rosie Watson, op. cit., pp. 76-79.

30) Juliet Cohen, op. cit., p. 58.

31) Mary Quant, op. cit., pp. 30-31.

<표 2> 얼굴유형별 분류 기준

얼굴 유형	분류 기준 설명	연구자
계란형	가장 보편적인 미인형의 표준형	강경화(2000) Kasumi(2008) Cohejn, J.(2001)
	모난 곳이 없는 타원형의 가름한 얼굴형	Watson, R.(2007)
긴형 (장방형)	얼굴 3등분의 넓이는 거의 동일하며 전체적으로는 길쭉한 얼굴형 대부분 이마나 턱이 발달, 코가 긴편의 얼굴형	한명숙(1999)
	긴 코의 소유자이며, 얼굴 전체적으로 사각의 좁고 긴 형의 얼굴형	강경화(2000)
	얼굴 폭이 가늘고 길이가 긴 얼굴형	Kasumi(2008) Quant, M.(1996)
	이마와 턱 선이 긴 얼굴형	Cohejn, J.(2001) Watson, R.(2007)
사각형	폭이 넓은 이마와 각이 진 턱을 가진 얼굴형 얼굴을 3등분하면 넓이가 거의 같아 보인다. 헤어라인은 수평을 이루고 양쪽 턱은 각이 돌출되어 보이는 형, 이마와 턱은 직선으로 연결, 전체적인 얼굴형은 짧으며 얼굴의 넓이와 길이가 거의 동등한 얼굴형	한명숙(1999)
	헤어라인과 볼 선이 직선적이며 이마가 넓고 사각의 턱 선과 전체적으로 네모난 얼굴형	강경화(2000)
	턱이 발달한 사각의 얼굴형	Kasumi(2008) Watson, R.(2007) Quant, M.(1996)
	양옆턱뼈가 거의 직각인 얼굴형	Cohejn, J.(2001)

역삼각형	이마는 넓고 턱이 좁아 뾰족한 얼굴형	한명숙(1999)
	이마가 넓고 크며, 양미간이 넓고 턱 선이 좁고 광대뼈가 높은 위치의 얼굴형	강경화(2000)
	얼굴에 살이 없고 횡폭이 있는 턱이 뾰족한 얼굴형	Kasumi(2008)
	광대뼈가 발달한 얼굴형 뾰족한 아래턱 끝을 가진 얼굴형	Cohejn, J.(2001)
	이마가 넓고 뾰족한 턱을 가진 얼굴형	Watson, R.(2007) Quant, M.(1996)
마름모형	얼굴중앙부분이 넓으며 돌출된 형으로 얼굴 상하부분이 좁은 얼굴형. 양턱은 약간의 각진 것보다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 얼굴에 속하는 얼굴형	한명숙(1999)
	광대뼈가 턱보다 넓고 긴 얼굴형	Kasumi(2008)
	좁은 이마. 높고 불거진 광대뼈, 좁고 뾰족한 턱을 가진 얼굴형	강경화(2000)
삼각형	헤어라인이 일정치 않으며 넓은 턱선, 양쪽 광대뼈사이가 좁으며 양 미간 좁은 얼굴형	강경화(2000)
등근형	수평 방향으로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중앙부분이 넓어 보이는 얼굴형 헤어라인은 둥글게 보이며, 양턱은 짧고 각이 없으며,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짧게 보이며, 얼굴 넓이의 길이가 거의 같아 보이는 얼굴형	한명숙(1999)
	둥글고 통통한 얼굴형	Kasumi(2008)
	짧은 중안과 둥그런 턱 선을 가진 얼굴형	Cohejn, J.(2001)
	광대뼈부터 턱까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얼굴형	Watson, R.(2007)
	얼굴이 평평하게 보이며, 이마 광대뼈 턱으로 이어지는 선이 둥그런 얼굴형	Quant, M.(1996)

메이크업은 얼굴에 직접적으로 시술하는 것이므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얼굴형태 계측을 통한 얼굴유형별 특성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얼굴형태 계측의 연구는 미용학 분야, 패션 분야, 성형 외과학 분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계측 후에 형태 특성 등을 분석하여 얼굴에 관련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계측방법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직접 계측과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이용한 간접계측이 있으며, 간접계측인 사진계측은 직접계측과는 달리 투영된 평면위에서 두 점간의 거리나 각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거리측정에 있어서는 안면의 입체적 위치를 평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계측 수치가 부위에 따라 직접 계측치와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경사도나 각도의 측정은 오히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계측치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³²⁾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동진 외 4인³³⁾은 사진계측을 통해 안면부를 분석한 결과, 얼굴 수직길이의 평균치는 181.17mm이고, 상안은 64.43mm, 하안은 63.48mm로 상안과 하안이 비슷한 길이로 나타났으며, 한국 여성의 안면부는 서양 여성보다 하안 면이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진숙과 이경화³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얼굴유형을 계측하고 분석한 결과, 여대생의 얼굴유형은 계란형보다 턱이 뾰족한 얼굴유형과 둥그런 얼굴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문남원³⁵⁾은 장방형, 계란형, 둥근형의 얼굴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2) 손희정 외 4인 (2003),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2D 인체계측법 연구”, 복식문화 연구, 11(1), pp. 11-19.

33) 이동진 외 4인 (1989), “한국 성인 여성의 안면부에 대한 사진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3), pp. 423-432.

34) 김진숙, 이경화, op. cit., pp. 1470-1481.

35) 문남원, op. cit., pp. 133-144.

이경화, 김정희³⁶⁾는 성인 여성의 얼굴을 측정한 결과 평균 얼굴길이가 196mm이고 상안은 62.3mm, 중안은 68.9mm, 하안은 66.5mm로 중안이 가장 길다고 하였다. 장방형의 얼굴은 20대와 30대에서만 보이고, 사각형의 얼굴은 50대에서, 둥근형은 3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연령별 얼굴형의 분포가 다르며, 유형별 형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정희³⁷⁾는 여성의 얼굴을 20대, 30대, 40대, 50대의 각 연령별로 사진계측을 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얼굴측정 항목 전체에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길이 관련 항목에서는 머리길이, 중안길이 항목에서 20대의 측정치가 다른 집단보다 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측정치가 작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눈 너비는 연령별로 차이가 없는데 비해서 눈 수직길이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눈꺼풀 처짐에 의해 짧아진다고 하였다. 눈꼬리의 경사도는 다른 연령에 비해 20대가 가장 올라간 형태 및 입 꼬리로 나타난다고 하여 노화 현상에 따라 얼굴 형태가 변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위의 연구에서와 같이 얼굴형태 계측을 통해 유형별 형태차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얼굴형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형태 계측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6) 이경화, 김정희 (2007), “수정 메이크업을 위한 성인 여성의 얼굴 유형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1(11), pp. 1487-1499.

37) 김정희 (2007), “메이크업을 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표준 얼굴 형태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 57(5), pp. 151-165.

<표 3> 얼굴 형태 계측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령	분석	측정항목	연구결과
이경화-김정희 (2007)	성인여성 (600명)	20~50세	간접계측	62개	우리나라 성인 여성 얼굴 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얼굴 유형을 분류
이정수-김홍규,김양우(2004)	성인여성과 미인대회입상자 (800명)	19~26세 20~27세	직접계측	7개	한국에서 미인얼굴은 평균얼굴보다 작고 중앙이 더 길고 하안이 더 짧은 것 확인
문남원(2000)	여대생 (201명)	19~26세	간접계측	15개	시각적 판단에 의해 분류된 얼굴 유형을 장방형, 계란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
김정희(2007)	성인여성 (600명)	20~50세	직접계측	62개	우리나라 성인 여성 얼굴의 표준치수 및 형태 각 연령별(20대, 30대, 40대, 50대) 표준치수 및 얼굴형태 제시
김진숙·이경화 (2004)	여대생 (278명)	20~24세	간접계측	69개	얼굴의 69개 항목에 대한 군집 분석을 통해 여대생 얼굴형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박종섭 외 3인 (1990)	성인남,녀 (423명)	20~24세	간접계측	9개	안폭지수와 홍채직경지수, 홍채 노출 지수 및 상하안검 간 두께 비율을 산출하여 결과치 비교 분석
조대환 외 2인 (1989)	성인여성 (423명)	20대	간접계측	18개	미인형은 작은 얼굴에 하안부가 작으며 눈이 크고, 추녀형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남성적인 인상을 보임
손희정 외 4인 (2003)	여대생 (100명)	17~24세	간접계측	39개	직접계측의 계측차의 숙달정도에 따라 오차로 인해 디지털 사진 계측범위 실용 가능성 확인
박종섭 외 2인 (1989)	남·녀 대학생	20대	직접계측 간접계측	18개	남·여성다움이 한국 청년 남녀의 평균 계측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임

위와 같이 얼굴유형의 명칭과 분류 기준을 보면, 얼굴유형에 대한 분류 방법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크게 둥글거나 각진 얼굴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얼굴의 길이를 상안과 중안, 하안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길거나 짧은 얼굴로, 얼굴 가로폭이 넓거나 좁은 얼굴로 나누어 구분한다. 얼굴형은 타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시각적으로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긴형 또는 장방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얼굴유형을 계측을 통해 분석해 보면 각 얼굴유형별로 형태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며, 연령에 따라 얼굴형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얼굴형태 계측을 통해 파악된 얼굴형태의 구체적인 특성들은 메이크업 시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얼굴형태와 이미지

사람은 50억 인구 중에서도 자기의 형제를 골라 낼 수 있을 만큼 개인 간의 근소한 형태적 차이를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³⁸⁾. 각각의 근소한 얼굴의 형태차이는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타인에게 주게 된다.

얼굴에 있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부위는 눈, 코, 입, 턱, 볼 및 이마이며, 이것들은 개인마다 곡선과 직선, 크기와 각도의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얼굴형과 부합하여 부드러운, 강한, 여성스러운, 날카로운 등의 여러 이미지를 가진다.

(1) 얼굴형과 이미지

사람의 얼굴형은 형상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상이 주는 이미지가 있다. 이상적인 얼굴형은 얼굴이 수평으로 3등분 즉, 머리카락과 이마의 경계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까지이다. 얼굴의 폭은 얼굴길이의 3분

38) 조용진 (1989), 우리몸과 미술 문화, 서울: 미술교육사, p. 26.

의 2여야 하며, 눈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눈의 폭과 같아야하고 또한 코의 폭과도 일치해야 한다. 이른바 신고전주의 규범인 이런 기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³⁹⁾는 것은 아름다운 얼굴 이미지가 대체로 대칭적이며⁴⁰⁾ 평균적이고⁴¹⁾ 가름한 얼굴형⁴²⁾이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대부분의 얼굴형은 한 가지 형보다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하지만 대체로 길이, 폭, 각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구분되어진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7가지 얼굴유형인 계란형, 긴형(장방형), 사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삼각형, 둥근형의 이미지를 이미애와 김용선⁴³⁾, 권구정 외⁴⁴⁾, Kobayashi⁴⁵⁾, 이주희⁴⁶⁾, 송미영⁴⁷⁾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한 것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대표이미지는 각각의 얼굴형 이미지 빈도수를 조사하여 가장 많은 빈도수의 이미지로 하였다.

얼굴형별로 이미지를 살펴보면, 계란형은 타원형과 가까운 얼굴형으로 매

39) 울프 렌츠, 박승재 역 (2006), 아름다움의 과학, 서울: 프로네시스, pp. 48-59.

40) Benedict Jones et al 2. (2007), The role of symmetry in attraction to average faces, *Perception & Psychophysics*, 69(8), pp. 1273-1277.

41) Dahlia Zaidel et al 2. (2005), Appearance of symmetry, beauty, and health in human faces, *Brain and Cognition*, 57, pp. 261-263.

42) 이정수 외 2인 (2004), “한국 여성의 미인 얼굴과 평균 얼굴의 생체 계측학적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31(4), pp. 526-531.

43) 이미애, 김용선 (2005), “인상학에 근거한 성격 분장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2), pp. 1-11.

44) 권구정 외 5인 (2006), *Makeup icon*, 서울: 청구문화사, p. 87.

45) 데루코 고바야시원저, 최운학 역 (1986), *The best make-up*, 서울: 유신문화사, pp. 102-109.

46) 이주희, op. cit., pp. 15-20.

47) 송미영 외 2인 (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 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pp. 143-153.

끄러운 윤곽선을 가지고 있어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이 균형을 갖춘 얼굴형으로 단아하면서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청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자연스럽고, 매력적이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준다. 둥근형은 볼과 턱, 이마가 둥글고 짧고 넓은 얼굴형으로 둥글고 통통하여 귀엽고 어려보이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이며, 그 외에 온화하고, 발랄하고, 낙천적인 이미지를 주고, 둔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긴형(장방형)은 얼굴의 길이가 긴 형으로 이마, 코와 턱이 긴 편으로 전체적으로 가늘어 보여 성숙한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이며, 그 외에 여성스럽고, 이지적이고, 고전적이고 침착하고 신중한 이미지를 준다. 사각형은 넓은 이마와 넓고 각이 진 턱을 가진 형으로 활동적인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이며, 그 외에 남성적이고, 도전적이고, 자립심 강하고, 우직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준다. 역삼각형은 윗부분 이마 폭이 넓으며 아래 턱 부분이 좁고 뾰족한 얼굴형으로 날카롭고, 연약한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이며 그 외에 가냘프고, 세련되고 지적인, 소녀답고 여린 이미지를 준다. 삼각형은 넓은 턱 선을 가지고 있으며, 광대뼈 사이가 좁아 보이는 얼굴로 비만이거나 중년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얼굴형으로, 풍만해 보이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융통성 있고 화술에 능한 이미지를 준다. 마름모형은 얼굴 중앙이 넓으며 돌출된 형으로 얼굴 상하 부분이 좁은 얼굴형으로, 차가운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그 외에 섹시한, 냉정한, 예리한, 자존심이 강한 등의 이미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얼굴유형별로 다양한 이미지가 공존하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 이미지를 위해서는 얼굴유형을 이해하고 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자신감 있는 개성을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분류

분류	이미지(빈도수)	대표이미지
계란형	청순한(2). 부드러운(2).자연스러운(1). 매력적인(1). 조화로운(1)	청순한 등
둥근형	귀여운(4). 어려보이는(4). 온화한(3). 발랄한(2). 낙천적인(2). 참을성 있는(1). 둔해 보이는(1)	귀여운
긴형(장방형)	성숙한(4). 여성스러운(3). 이지적.(3). 고전적인(2). 침착한(5). 소극적인(2). 어른스러운(2). 고상한(2)	성숙한
사각형	활동적인(3). 남성적인(2). 도전적인(1). 강인한(3). 당당한(1). 자립심 강한(1). 우직한(1). 신뢰감 있는(1)	활동적인
역삼각형	날카로운(3) 연약한(3). 가냘픈(3). 세련된(2). 지적인(2). 신경질적인(2). 소녀다운(1)	날카로운 등
삼각형	풍만해 보이는(1). 융통성있는(1). 화술에 능한(1)	풍만해보이는 등
마름모형	차가운(2). 섹시한(1). 냉정한(1). 자존심이 강한(1) 예리한(1). 신경질적인(1)	차가운

(2) 눈의 형태와 이미지

눈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얼굴에서 중요한 부위이다.⁴⁸⁾ 서양인과 비교해 볼 때 동양인의 눈은 표정이 없어 보이며, 상하좌우로의 움직임도 별로 없는 듯하다. 대부분이 두꺼운 눈꺼풀을 갖고 있어서 눈동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아⁴⁹⁾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으면서도 침착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눈의 형태는 일반인보다 눈 길이가 길고, 둥글며 쌍꺼풀 발현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이고, 눈꼬리는 일반인보다 덜 올라가 있어서 좀

48) Irene Corey (1990), *The face is a Canvas*, Kentucky: Anchorage Press, INC, pp. 105-106.

49) 강경화, op. cit., pp. 36-40.

더 수평적⁵⁰⁾이므로, 이상적인 눈의 형태는 쌍꺼풀이 있는 크고 둥근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은 사람의 감정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부위이며, 창조적이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눈의 외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형태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표현된다.

눈의 형태별 이미지 분류를 전인미와 이해주⁵¹⁾, 권경애⁵²⁾, 신수현⁵³⁾, 김정희⁵⁴⁾의 연구를 참고하고, 각 유형에서 빈도수가 많은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분류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눈의 형태 분류는 눈의 크기에 따라 큰 눈과 작은 눈으로, 눈의 모양에 따라 둥근 눈과 가는 눈으로, 눈 꼬리의 각도에 따라 눈 꼬리가 올라간 눈과 내려간 눈으로, 눈두덩이의 돌출 여부로 부어 보이는 눈과 들어간 눈, 미간의 넓이에 따라 미간이 넓은 눈과 좁은 눈, 쌍꺼풀의 유무에 따라 쌍꺼풀눈과 외겹눈으로 나누었다.

큰 눈의 경우는 감수성 있는 이미지로 보여지며, 작은 눈은 소극적이고 답답한 이미지로, 동그란 눈은 명랑한 이미지로, 가는 눈은 예리한 이미지로 보여진다.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는 눈은 고집스러운 이미지로, 눈두덩이가 들어간 눈은 조숙해 보이는 이미지가 나타나며, 눈꼬리가 올라간 눈은 날카로운

50) 박종섭 외 3인 (1990), “한국인의 안선호 경향에 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pp. 196-200.

51) 전인미, 이해주 (2007), “관상학에 근거한 성격 유형별 무대 분장 디자인 모형 연구 -눈썹과 눈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0(1), pp. 275-284.

52) 권경애 (2000),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pp. 59-65.

53) 신수현, op. cit., pp. 32-38.

54) 김정희(2008), “아이 메이크업 적용을 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 눈썹과 눈의 형태 분석”, 한국미용학회지, 14(1), pp. 143-153.

이미지로, 눈꼬리가 내려간 눈은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로, 미간이 넓은 눈은 온화한 이미지로, 좁은 눈은 답답한 이미지로, 쌍꺼풀이 있는 눈은 현대적인 이미지로, 외겹 눈은 냉정해 보이는 이미지로 보여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눈의 형태별 이미지 분류

분류	형태	이미지	대표이미지
눈의 크기	큰 눈	감수성 있는(3). 시원시원한(2). 명확한(2). 정열적인(1). 사회성 있는(2). 당황하는(1). 진취적인(1). 호소력 있는(1)	감수성 있는
	작은 눈	소극적인(4). 답답한(2). 신경질적인(1). 편협적인(1). 비밀스러운(1). 끈기있는(1)	소극적인
눈의 모양	둥근 눈	명랑한(3). 밝은(2). 경쾌한(2). 놀란듯한(2). 공포스러워하는(1). 당황스러워보이는(1)	명랑한
	가는 눈	예리한(4). 섬세한(2). 관찰력있는(2). 냉정한(1). 잔인해보이는(1)	예리한
눈두덩이의 돌출여부	눈두덩이 부어보이는 눈	고집스러운(3). 심술맞은(2)	고집스러운
	눈두덩이 들여간 눈	조속한(3). 피곤한(2). 현대적인(1). 시원한(1)	조속한
눈꼬리의 각도	내려간 눈	온순한(3). 어리숙한(2). 나약해보이는(2). 동양적인(1). 순진한(2). 비굴한(1). 우울한(1)	온순한
	올라간 눈	날카로운(4). 야성적인(3). 젊은(2). 고집스러운(2). 주관적인(2). 적극적인(1). 냉담한. 거만한(1). 샤프한(1). 차가운(1)	날카로운
미간넓이	미간이 넓은 눈	온화한(3). 사교적인(2). 개방적인(2). 원만한(2). 낙천적인(1). 나태해보이는(1)	온화한
	미간이 좁은 눈	답답한(3). 신경질적인(2). 소극적인(1). 인색한(1). 질투스러운(1)	답답한
쌍꺼풀의 유무	쌍꺼풀 눈	현대적인(4). 서구적인(3). 밝은(2). 활발한(2). 성숙한(2). 감수성있는(2). 슬픈(2). 기가세보이는(1)	현대적인
	외겹 눈	냉정한(3). 단순한(2). 고집스러운(2). 차가운(2). 깔끔한(1). 순박한(1). 담백한(1). 내향적인(1). 통찰력있는(1)	냉정한

이렇듯 눈은 심상이 표출되는 부위로 성격을 비롯하여 안정감의 유무, 경륜, 품성의 선악, 침착성의 여부, 병고의 진단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⁵⁵⁾ 감정이 표현되는 부위이므로 분장에서는 눈의 형태 변화를 시도하여 역할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3) 눈썹의 형태와 이미지

눈썹은 눈과 더불어 얼굴전체의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비중이 큰 부분으로 눈썹의 형태는 얼굴의 이미지를 미묘하게 달라 보이게 한다. 눈썹은 얼굴에 있어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의 다른 요소들의 형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눈썹 선의 모양은 길이, 방향, 두께로 결정되며, 얼굴의 길이와 넓이에 시각적으로 관여한다.

눈썹의 위치는 얼굴 3분의 1지점의 상층부에 위치하여 얼굴의 형태미에 영향을 준다. 이상적인 눈썹의 모양은 눈썹 머리, 눈썹 산, 눈썹 끝 등의 세부분으로 나뉘고, 눈썹 머리부터 눈썹 산까지의 거리는 눈썹 길이의 3분의 2의 길이로 눈썹 머리보다 눈썹 끝이 약간 올라간 형태⁵⁶⁾로 좌우의 균형이 중하다.

눈썹은 여러 개의 작은 털로 이루어진 선들이 모여져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길이에 따라, 굵기에 따라, 술이 많고 적음에 따라 여러 가지 이미지를 준다.

눈썹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분류를 강은주⁵⁷⁾, 이경하⁵⁸⁾, 김정희⁵⁹⁾, 전인미

55) 권경애 (2000), op. cit., p. 16.

56) 박은숙 (2006), 여성 눈썹의 위치계측 및 선호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p. 33.

57) 강은주 (2005), "눈썹 화장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2), pp. 31-38.

58) 이경하 (1998), 눈썹 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게스탈트(Gestalt) 이론을 배경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대학원, p. 16.

와 이혜주⁶⁰⁾의 연구를 참고하고, 빈도수가 많은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분류한 것을 <표 6>에 제시하였다.

눈썹의 분류는 색상의 짙은 정도, 눈썹 선의 모양, 눈썹의 길이, 눈썹의 두께로 나누었다. 색상이 짙은 눈썹은 힘 있는 이미지를 주는 반면 색상이 흐린 눈썹은 온순한 이미지를 준다. 눈썹 선의 모양에 따라 나누면 기본형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주며, 아치형은 우아한 이미지를, 직선형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화살형은 개성적인 이미지를, 각진형은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눈썹의 길이에 따라 나누면 눈썹이 긴 형은 안정감있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눈썹이 짧은 형은 명랑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준다. 눈썹의 두께에 따라 나누면 가는 눈썹은 섬세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두꺼운 눈썹은 건강하고 힘 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눈썹은 색상의 농담, 길이, 눈썹 선의 모양, 두께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며 눈썹이 지나치게 숱이 많거나 없을 경우 혹은 지나치게 처지거나 올라간 경우에는 얼굴 이미지와 미관상에 좋지 않으므로 얼굴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형태가 아름다운 눈썹이라고 할 수 있다.

59) 김정희, *op. cit.*, pp. 210-224.

60) 전인미, 이혜주, *op. cit.*, pp. 275-284.

<표 6> 눈썹 형태별 이미지 분류

분류	형태	이미지(빈도수)	대표 이미지
색상의 질은 정도	길은	힘있는(3). 뚜렷한(2). 야만적인(1). 음흉스러운(1). 투박스러운(1). 천박한(1)	힘있는
	흐린	온순한(3). 온화한(2). 여성적인(2) 깨끗한(1). 허약한(1)	온순한
선 모양	기본형	여성적인(2). 깨끗한(1)	여성적인
	아치형	우아한(3). 요염한(2). 노숙한(2). 온화한(2). 부드러운(2). 섬세한(2). 고전적인(2). 화려한(1)	우아한
	직선형	남성적인(3). 이기적인(2). 고집스러운(1)	남성적인
	화살형	개성적인(3). 야성적인(2). 동적인(2). 활동적인(2). 거만한(1). 날카로운(1). 사나운(1). 강한(1)	개성적인
	각진형	세련된(4). 샤프한(3). 엄격한(2). 지적인(2). 어른스러운(1). 안정한(4)	세련된
길이	긴	안정감있는(2). 성숙한(2). 점잖은(1). 의욕스러운(1). 촌스러운(1)	안정감있는
	짧은	명랑한(4). 귀여운(4). 경쾌한(3). 동적인(2). 위선적인(1). 발랄한(1)	명랑한
두께	가는	섬세한(3). 성숙한(3). 연약한(2). 날카로운(2). 불안한(1). 세련미있는(1)	섬세한
	넓은	힘있는(3). 건강함(3). 투박한(2). 안정감있는(1). 산만한(1). 소박한(1)	힘있는

(4) 코의 형태와 이미지

코는 얼굴의 중심부에 세로방향으로 위치한 돌기부로서 가장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 하, 좌, 우 얼굴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므로, 코의 높낮이와 크기는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코가 낮고 콧망울이 둥글고 넓은 편이다.⁶¹⁾ 높고 오뚝한 코는 얼굴을 입체적이고

61) 서란숙 (2007), "시대별 한국 여성의 미인상과 현대 미용 성형외과적 미인형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3), pp. 1404-1412.

가끔하게 보이게 하며, 코가 낮은 경우는 얼굴을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므로 낮은 코 보다 높은 코가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인 느낌을 준다.

이상적인 코의 위치는 얼굴길이의 3분의 1이 되어야 하고 코의 넓이는 좌우 눈의 안쪽과 코의 바깥쪽이 수직선상에서 연결되어야 하며, 콧날이 반듯하게⁶²⁾ 뻗어 있어야 한다. 또한 비익(鼻翼:코끝의 좌우 양쪽 끝 부분)이 얇고 작은 코를 선호한다⁶³⁾고 하여, 좁고 높은 코를 아름답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상학적으로 코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나 자존심의 상징적 표상이며, 재물의 빈부, 사업의 성패, 신체의 건강상태와 성품 등을 나타내고, 콧날이 곧고 높은 코를 좋게 본다.⁶⁴⁾ 높고 오뚝한 코는 의지가 굳고 자존심이 세 보이며, 얼굴의 미모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 성형 수술로 코를 높이는 것을 보면 높고 오뚝한 코에 대한 선호를 알 수 있다.

코의 형태별 이미지를 이미애와 김용선⁶⁵⁾, 이연희와 이화진⁶⁶⁾, 최민령 외 4인⁶⁷⁾의 연구를 참고하고, 빈도수가 많은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하여 분류한 것은 <표 7>과 같다.

코는 코의 크기, 콧방울의 모양, 코의 높이, 코끝의 모양, 코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코의 크기에 따라 큰 코는 힘 있는 이미지를, 작은 코는 소심한 이미지를 준다. 콧방울의 모양에 따라 콧방울이 좁은 코는 변덕 이미지를 주며, 둥근 코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넓은 코는 아둔해 보이는 이미지를 준다.

62) Ibid.

63) 윤정길 외 2인 (1990), “한국인의 비선호 경향에 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pp. 190-195.

64) 김성현 (1992),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서울: 동학사, p. 208.

65) 이미애, 김용선, op. cit., pp. 1-11.

66) 이연희, 이화진, op. cit., pp. 52-53.

67) 최민령 외 4인 (2004), The Beauty Make-up, 서울: 도서출판예림, pp. 125-126.

코의 높이에 따라 높은 코는 세련된 이미지를, 낮은 코는 낙천적인 이미지를 준다. 코끝의 모양에 따라 들린 코는 친밀감 있는 이미지를, 처진 코는 우울한 이미지를, 매부리코는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코의 길이에 따라 긴 코는 지적인 이미지를 주며, 짧은 코는 명랑한 이미지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에서 코는 이마부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입체감 있는 뚜렷한 이미지의 코가 아름다운 코이지만,⁶⁸⁾ 얼굴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코가 가장 보기 좋은 코라고 할 수 있다.

<표 7> 코의 형태별 이미지 분류

분류	형태	이미지(빈도수)	대표 이미지
크기	큰 코	힘이 있는(2). 정력적인(2). 둔해 보이는(1)	힘이 있는
	작은 코	소심한(3) 명랑한(2). 낙천적인(2)	소심한
코방울 모양	좁은 코	변덕스러운(2). 속좁은(1)	변덕스러운
	등근 코	부드러운(2). 활발한(1). 적극적인(1)	부드러운
	넓은 코	아둔해 보이는(3). 활동적인(2). 생동감있는(2)	아둔해 보이는
높이	높은 코	세련된(3). 자존심이 강한(2). 지적인(2). 호기심이많은(1)	세련된
	낮은 코	낙천적인(2). 우둔한(1). 사교적인(1)	낙천적인
코끝모양	들린 코	친밀감있는(3). 활달한(2). 애교있는(1)	친밀감있는
	처진 코	우울한(3). 사려깊은(1)	우울한
	매부리 코	고집스러운(3). 귀족적인(1). 강인한(2). 개성있는(2). 욕심많은(2)	고집스러운
길이	긴 코	지적인(3). 호기심있는(1). 자존심이 센(1)	지적인
	짧은 코	명랑한(3). 활동적인(2). 생동감있는(1)	명랑한

68) Ibid.

(5) 입의 형태와 이미지

입은 모양에 따라 풍부한 표정을 주어 얼굴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입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매순간마다 모양의 변화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부위로⁶⁹⁾, 감정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직접적인 언어와 함께 하는 감정의 표출구이다.

입은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상적인 입의 형태는 입술의 양끝이 눈동자 중앙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의 조금 안쪽으로 위치하고, 입술산은 양 콧구멍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내린 선과 만나는 부분에 위치한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은 1: 1.57⁷⁰⁾로 아랫입술이 윗입술 보다 약간 도톰한 모양이다.

Quant, M.⁷¹⁾은 입술의 형태를 얇은 입술(thin lip), 불균형한 입술(uneven lip), 모양이 고르지 않은 입술(shapeless lip), 두꺼운 입술(full lip)로 나누고, 얼굴과 균형이 맞도록 입술 형태를 수정하여 풍부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입의 형태별 이미지를 송미영⁷²⁾, 김경순⁷³⁾, 강경화⁷⁴⁾, 장윤진⁷⁵⁾의 연구를 참고하고, 빈도수가 가장 많은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분류한 것은 <표 8>과 같다.

입의 형태 분류는 크기, 두께, 구각 위치에 따라 나누었으며, 입의 크기에

69) Rosie Watson, op. cit., p. 98.

70) 한명숙, op. cit., pp. 115-116.

71) Mary Quant, op. cit., pp. 98-99.

72) 송미영, op. cit., pp. 17-18.

73) 김경순, op. cit., pp. 44-47.

74) 강경화, op. cit., pp. 55-59.

75) 장윤진 (2006), 인상 교정을 위한 이미지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얼굴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pp. 41-44.

따라 크기가 큰 입은 적극적인 이미지를, 작은 입은 소심한 이미지를 준다. 입의 두께에 따라 얇은 입은 신중한 이미지를, 두툼한 입은 온화한 이미지를 주며, 구각의 위치에 따라 입 끝이 올라간 입은 친근한 이미지를, 처진 입은 우울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의 두께, 크기, 구각의 위치는 얼굴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랫입술은 윗입술보다 약간 두껍거나 혹은 비슷한 두께가 보기 좋으며, 입술을 가로로 나누었을 때 양쪽의 모양이 동일한 것이 좋다. 입술의 크기는 얼굴의 각 형태 비율에 조화되며,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는 입술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8> 입의 형태별 이미지 분류

분류	형태	이미지(빈도수)	대표 이미지
크기	큰	적극적인(2). 정열적인(1). 활발한(1)	적극적인
	작은	소심한(3). 소극적인(2). 귀여운(1). 여성스러운(1)	소심한
두께	얇은	신중한(3). 냉정한(2). 겸손한(2). 날카로운(1). 섬세한(1)	신중한
	두툼한	온화한(3). 투박한(2). 풍부한(1). 섹시한(1)	온화한
구각위치	올라간	친근한(3). 사교적인(2). 친절함(1). 밝은(1)	친근한
	처진	우울해 보이는(3). 불만스러운(1). 나이 들어 보이는(1)	우울해 보이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인상은 얼굴이 가름하고,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한 입체적이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이다. 그러나 얼굴을 구성하는 모든 부위의 형태 차이로 인해 다양한 이미지가 형성되므로, 얼굴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균형을 갖춘 형태일 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메이크업 유형과 이미지

1) 메이크업의 유형

얼굴의 요소 및 특성은 인간이 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⁷⁶⁾,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인 눈, 코, 입, 볼, 얼굴형 등은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통한 변화로 얼굴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매력적인 얼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얼굴의 대칭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⁷⁷⁾ 볼 때 메이크업이 부분적으로 얼굴의 대칭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얼굴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⁸⁾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을 바르므로 균일한 피부 톤을 만들고, 눈과 입 메이크업으로 눈과 입술을 균형 있게 보이도록⁷⁹⁾ 수정하는 것은 피부의 결점은 감추고, 눈과 입에 대칭성을 부여하여 얼굴의 매력성을 높일 수 있다.

Mulhern, R.과 Fieldman, G.⁸⁰⁾들은 메이크업을 통해 여성 얼굴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지와 눈, 입, 피부 등의 메이크업이 여성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10명의 지원자에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노 메이크업, 화운데이션만 적용한 피부 메이

76) Bernhard Fink & Nick Neavet (2005), The biology of facial beau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7, pp. 317-325.

77) Dahlia Zaidel, op. cit., pp. 261-263.

78) Rebecca Nash et al 4. (2006), Cosmetics: They Influence More Than Caucasian Female Facial Attractiven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6, No. 2, pp. 493-504.

79) Linda Mason (2003), *Make up*, New York: Watson-Guption Publications, pp. 35-54.

80) Raymond Mulhern et al 4. (2003), Do cosmetics enhance female Caucasian facial attra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5, pp. 199-205.

크업, 눈 메이크업, 입 메이크업, 피부· 눈· 입의 전체 메이크업의 5가지 메이크업 상태를 적용한 후 남성 및 여성에게 5장의 사진을 보고 각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의 매력도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얼굴 전체 메이크업을 한 여성이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여성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의 차이도 뚜렷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눈 메이크업이 얼굴의 매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눈 메이크업과 피부 메이크업이 전체 메이크업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입 메이크업은 얼굴의 매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메이크업 중에서는 눈 메이크업이 매력적인 이미지로 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1) 피부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 즉 베이스(base) 메이크업은 전체 메이크업 효과의 약 80%를 결정해 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 색조 메이크업의 시작인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행되어야만 그 다음 순서인 눈, 입술, 볼 화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피부색에 잘 맞는 컬러 선택과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 선택으로 피부의 질감을 시각적으로 개선시키는⁸¹⁾것으로 얼굴형의 단점을 수정, 보완하여 메이크업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부 메이크업의 단계는 피부 톤(tone)을 정리하는 단계인 언더 메이크업 단계와 피부결과 피부색을 정돈하는 단계인 화운데이션 단계 그리고 화운데이션의 유분기 제거와 피부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파우더 단계가 있다.

피부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화운데이션은 원래 피부의 색조를 바꾸고 좀 더 홍조 띤 얼굴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부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기미, 잡티, 다크 써클, 붉은 피부 등의 결함을 감추어 피부의 부드러움과 투명함을 높여 주기도 한다.⁸²⁾ 화운데이션

81) 강경화, op. cit., p. 20.

은 입체감 효과를 주기 위한 피부 톤에 맞는 베이스컬러, 베이스컬러보다 어두운 톤인 쉼도우 컬러, 베이스 컬러보다 밝은 톤인 하이라이트 컬러가 있으며,⁸³⁾ 눈, 코, 입, 볼, 이마, 턱 등의 부위에 적용하여 입체감 있는 얼굴로 보이도록 한다.

또한 피부 메이크업은 질감 표현에 따라 광택이 나는 피부 표현의 글로시(glossy)와 유분기가 없는 피부 표현의 매트(matte),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의 크림리(creamy)⁸⁴⁾의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피부 표현은 전체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여야 한다.

(2) 눈 메이크업

눈 메이크업은 눈의 크기와 위치 수정을 제시하며 눈에 이미지 변화를 줄 수 있다. 눈 메이크업은 크게 아이 브로우(eye brow), 아이 쉼도우(eye shadow), 아이 라이너(eye liner), 마스크라(mascara)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아이 브로우는 유행에 따라 얼굴을 장식하는 부위가 되며, 얼굴형이나 눈매를 수정하는데 효과적이고,⁸⁵⁾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 쉼도우는 눈매에 색을 주어 입체감과 표정 연출을 위한 것이며 눈의 형태에 따라 시술함으로써 개성 연출과 수정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으며,⁸⁶⁾ 형태적인 패턴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모키(smoky) 메

82) ジュリエット・コーエソ (2008), *メイクアップ百科*, 東京: 産調出版, pp. 122-146.

83) Mary Quant, op. cit., pp. 82-85.

84) 권구정 외 5인, op. cit., pp. 82-84.

85) Robyn Cosio & Cynthia Robins (2000), *The Eyebrow*,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pp. 1-2.

86) Johnson Kim & Jeff Stone (1997), *Woman's Face: Make-up and Skin Care*, London: Thames & Hudson, pp. 124-126.

이크업은 눈의 위아래 아이라인을 눈 안쪽까지 검고 짙게 그린 후 바깥으로 색을 펴 바르는 패턴으로 신비스럽고 깊이 있게 보인다. 다운턴(downturned) 메이크업은 눈썹 뼈를 두드러지게 하여 아이 홀이 나타나는 입체감이 있고 유희적으로 보이게 한다. 바이 컬러(bi-color) 메이크업은 아이라인부터 눈썹 뼈를 향하여 수평으로 둥글게 그라데이션하여 색을 펴 바르는 일반적인 패턴이다. 윙(winged) 메이크업은 눈 꼬리 부분을 위쪽을 향한 사선으로 색을 펴 바르는 패턴으로 강하고 이국적으로 보인다.⁸⁷⁾ 이러한 아이 웨도우의 패턴은 눈의 형태를 고려해서 적용했을 때, 눈의 수정효과에 따른 아름다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아이 라이너는 속눈썹 뿌리 부분에 어두운 선을 그려 넣어 눈매를 또렷하게 하며, 마스카라는 속눈썹에 인공적으로 섬유질을 발라 주어, 속눈썹이 길고, 짙고, 풍성하게 보이도록 한다.⁸⁸⁾ 아이 라이너는 눈에 선을 직접 그려 넣는 것으로 눈 모양 수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속눈썹으로 음영을 주는 마스카라와 더불어 눈매를 깊이 있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여 눈을 보다 아름답게 강조해 준다.

효과적인 눈 메이크업은 얼굴 표정을 변화시키고, 균형을 잡아 주며, 얼굴형이나 눈 모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 시에는 눈썹과 눈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얼굴형에 어울리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3) 입 메이크업

입 메이크업은 아름다운 색상으로 입술의 모양을 수정하므로, 얼굴에 균형과 혈색을 부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입 메이크업은 대중적인 립스틱(lipstick)과 투명하고 자연스런 색상의 립글

87) Kevyn Aucoin (1997), *Making faces*, Little, New York: Brown and company

88) Linda Mason (2007), *Eye candy: 55 easy makeup looks for glam lid and luscious lashes*, Watson-Guptill Publications, pp. 16-35.

로스(lip-gloss), 윤곽을 뚜렷이 하고 형태 수정을 위한 립 라이너 펜슬(lip liner pencil), 착색제 제품인 립 틴트(lip tint), 입술을 보호하는 성분의 립밤(lip balm) 등이 있다. 입술에 컬러를 적용할 때에는 질감과 색상에 따라 중앙 부분은 밝고 글로시하게, 입술의 윤곽부분은 정확하고 매트하게 표현하며 입술 중앙 방향으로 퍼 발라⁸⁹⁾ 입술을 볼륨 있고 윤기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 메이크업은 형태에 따라 과장되고 여성적인 활 모양의 큐피트 보우(cupid's bow), 윗입술을 입술 산이 없이 둥글게 그리는 유니 립(uni-lip), 벌에게 쏘인 모양으로 입술 중앙에만 그리는 비 스타팅(bee-stung), 날카로운 입술 모양의 보니 파커(bonnie Parker), 입술선 보다 크게 바깥으로 그리는 글래머 걸(glamour girl)⁹⁰⁾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술 모양을 수정할 때는 본래의 입술 형태에서 1~2mm정도로 변화를 주어야 자연스럽게 보인다.

입 메이크업은 입술의 모양을 수정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얼굴 형태와 연령을 고려한 전체 이미지에 맞출 때 매력적인 입술로 표현된다.

(4) 볼 메이크업

볼 메이크업은 평면적인 얼굴에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혈색을 부여한다. 볼 메이크업은 아이 섀도우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케이크(cake) 타입과 글로시한 피부표현이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크림(cream) 타입이 있다. 볼 메이크업의 적용은 광대뼈의 입체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대뼈 위쪽으로 관자놀이를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를 두고, 광대뼈를 감싸듯이 발라 입체감을 줄 수 있으며 얼굴형에 맞추어 변화를 준다.

89) 尾花けい子 (2008), 尾花けい子の 極上のチュラルメイク, 東京: 株式会社 ワニブックス, pp. 56-87.

90) Kevyn Aucoin, op. cit., pp. 33-35.

Mason, L.⁹¹⁾은 볼 메이크업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는데, 볼이 가름하게 보이도록 하는 세로 방향의 라인 형태인 슬림(slim), 얼굴에서 볼이 탄력있게 올라가 보이도록 하는 사선 형태인 리프트(lift), 산뜻하고 귀엽게 보이도록 하는 둥근 형태인 소프트(soften), 광대 뼈 부위 밑으로 색상을 부여하여 볼의 입체감을 높여주는 샤프(sharpen), 긴 얼굴형에서 볼의 좁고 긴 느낌을 감소시켜 주는 가로 방향의 수평 형태인 와이든(widen)으로 나누었다.

볼 메이크업은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여, 얼굴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얼굴에 음영을 주어 윤곽을 뚜렷이 함으로써, 입체감의 조성과 얼굴형의 수정 보완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메이크업은 다양한 패턴이 있으며, 메이크업의 미묘한 형태 변화에 따라 전체적인 얼굴 이미지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메이크업은 얼굴에 눈, 입, 볼, 피부 등의 부분에 적절한 패턴을 연출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지각

매력적인 외모는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매력적인 외모는 연출이 가능한 것이어서⁹²⁾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메이크업은 얼굴이라는 형태에 색채를 가미하여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⁹³⁾이다. 이미지란 심리학에서 상, 영상, 표상, 지각상이라는 의미로

91) Linda Mason, op. cit., pp. 57-61.

92) Stacey Fabricant & Stephen Gould (1993), Women's Makeup Careers: An Interpretive Study of Color Cosmetic Use and "Face Value" ,*Psychology & Marketing*, Vol. 10, No. 6, pp. 531-548.

사용되고 있으며, 감각자의 자극을 동반하지 않은 채 상기되는 관념적 경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⁹⁴⁾ 이미지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 혹은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이나 인상으로 지각된 것이며, 감각적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가 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사이의 모든 인간 표현에 관여하며, 객관화⁹⁵⁾될 때 이미지 표현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과거 경험과 내적욕구와 흥미가 다르므로 지각 방법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⁹⁶⁾ 따라서 동일한 자극의 환경에서도 지각자의 개인적인 여러 변인에 따라 이미지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감각 중 시각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메이크업에서의 이미지는 메이크업을 통해 전달되는 시각적 효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은 눈의 착시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선과 색을 이용한 착시효과는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작은 선의 움직임이나 색의 변화는 얼굴에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⁹⁷⁾ 이것이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얼굴의 매력성은 주어진 얼굴형태와 표정, 그리고 메이크업으로 결정된다. 메이크업은 얼굴장식의 주된 행위로서 얼굴 매력성은 선택된 색채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즉 메이크업은 얼굴의 구조적 특징을 강조하고 수정 기능을 가

93) 김효숙, 강인애, op. cit., pp. 72-83.

94) 박선의 (1994), 디자인사전, 서울: 미진사, p. 231.

95) 이수경 (2005), “이미지 메이킹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1(3), pp. 300-306.

96) 강혜원 (2000), 의상 사회 심리학, 서울: 교문사, pp. 43-52.

97) 尾崎左永子 (2002), 大人の女のこころ化粧, 東京: 株式會社 リヨン社, pp. 47-75.

짐으로서 의복과 함께 사용되는 자기 장식법이며, 특히 눈과 입 메이크업은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데 중요하다⁹⁸⁾고 할 수 있다.

Fabricant, S.와 Gould, S.⁹⁹⁾은 여성의 메이크업과 얼굴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메이크업이 얼굴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여성이 메이크업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유지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에게 메이크업은 자신의 인상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직업에서의 정체성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메이크업으로 얼굴의 단점을 감추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연희¹⁰⁰⁾는 메이크업을 통한 이미지 지각평가를 위해서 패션트렌드 테마별로 나누어서 색채 메이크업의 이미지 평가를 하였다. 내추럴 메이크업은 능력있는 이미지로, 로맨틱(romantic) 메이크업은 지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고저스(gorgeous) 메이크업은 촌스러운 이미지로, 업투데이트(up-to-date) 메이크업은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또한 클래식(classic) 메이크업은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베이직(basic) 메이크업은 여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메이크업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남자의 경우 내추럴 메이크업을 가장 지적으로, 고저스와 업 투 데이트는 가장 지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베이직을 가장 지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로맨틱과 고저스를 가장 지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연령에서는 20대가 클래식 메이크업을 가장 싫어하였으며, 분홍색 입술을 선호하여 전체적으로 성별

98) 大防郁夫 (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pp. 10-16. cited by 이연희 (2001), 색채 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p. 33.

99) Stacey Fabricant & Stephen Gould, op. cit., pp. 531-548.

100) 이연희, op. cit., pp. 123-125.

과 연령은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한명숙과 선정희¹⁰¹⁾는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우아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로 명명하고, 눈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 입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 눈과 입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한 후 이미지 지각 차이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우아한 이미지에서는 눈과 입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 현대적 이미지에서는 입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 귀여운 이미지에서는 눈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이 점수가 높게 나와 메이크업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 지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Mulhern, R.과 Fieldman, G.¹⁰²⁾ 등은 메이크업을 통해 여성 얼굴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여성의 경우는 눈 메이크업을 한 얼굴의 매력을 크게 평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눈 메이크업과 파운데이션이 전체 메이크업 중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여 메이크업 변화에 따라 성별 지각에서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nk, B. & Neavet, N.¹⁰³⁾은 문화권과 관계없이 얼굴의 매력 평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 선호도 조사용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유아들에게 실험을 하였다. 매력적인 얼굴 사진과 매력적이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자 매력적인 사진을 훨씬 오래 바라보았는데, 여성의 경우 얼굴에 눈 메이크업을 하여 눈이 더 크게 보이는 얼굴을 훨씬 오래 응시하여 5개월에 불과한 나이에든 큰 눈에 대한 선호취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하였다. 또한 얼굴 아래쪽의 중심 요소인 입에 대한 매력 평가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상 테스트를 통한 실험을 하여 메이크업을 한 여성과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101) 한명숙, 선정희 (2001),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7(2), pp. 73-85.

102) Raymond Mulhern et al 4., op. cit., pp. 199-205.

103) Bernhard Fink & Nick Neavet, op. cit., pp. 317-325.

입 메이크업을 하여 이미지를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변화시킨 경우 입 메이크업을 한 여성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직급이 보다 높을 것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이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의 소득이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의 소득보다 시간당 5% 정도 높다고 하여 외모가 직업과 직급의 고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Haiken, E.의 연구결과¹⁰⁴⁾와 일치하였다.

Cash, T.¹⁰⁵⁾등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였을 때 자신의 얼굴 및 전체적인 외모에 더욱 만족하며, 주변에서 자신을 보다 매력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조사 대상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자신의 외모를 과대평가를 하며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외모를 과소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화장품은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를 통해 화장품 사용량과 외모에 대한 만족도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얼굴 메이크업이 여성의 자아 인식과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uthrie, M.¹⁰⁶⁾등은 화장품 사용과 얼굴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메이크업을 자주 하여 화장품 사용량이 많아지면 얼굴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으며, 자신의 얼굴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 일수록 외모와 이미지

104) Elizabeth Haiken (1997), *Venus Envy a history of cosmetic surgery*,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6-9.

105) Thomas Cash et al 3. (1989),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3), pp. 349-355., cited by Guthrie, M. Hye-Shin Kim, Jae-hee Jung (2008), The effects of facial image and cosmetic usage on perceptions of brand personality,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12, No. 2, pp. 168-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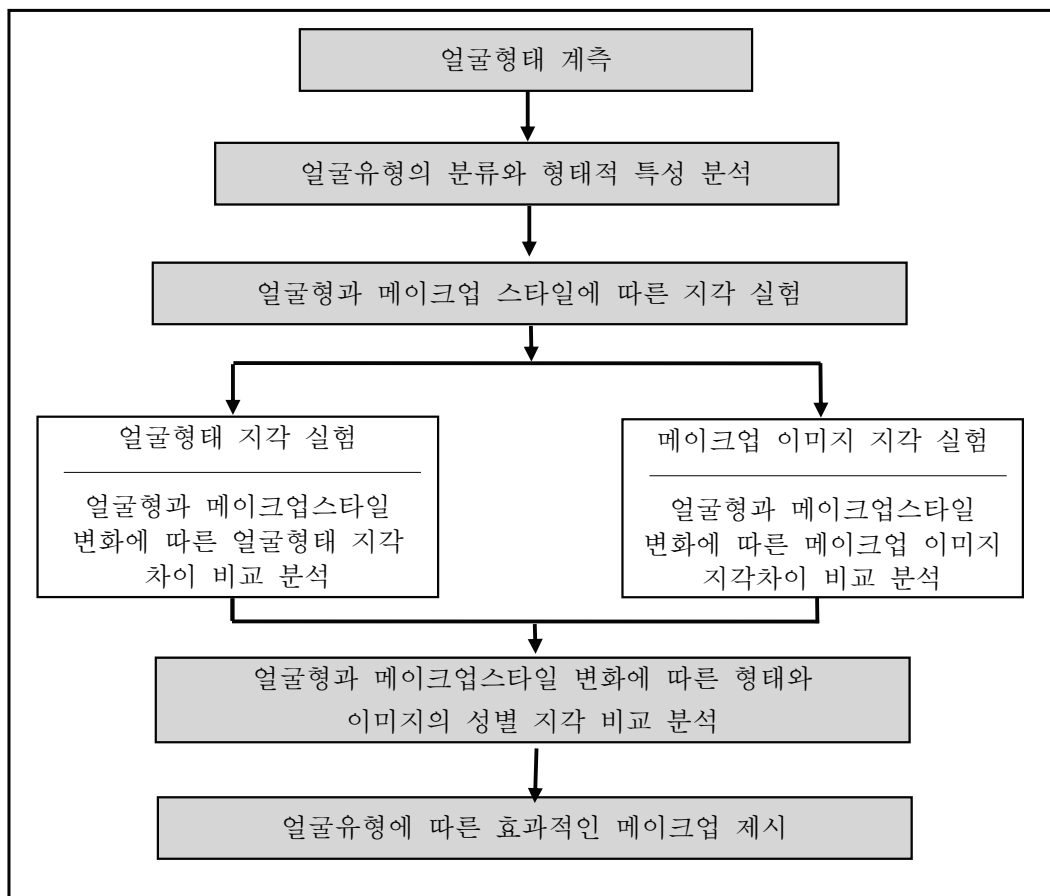
106) Michelle Guthrie et al 3. (2008), The effects of facial image and cosmetic usage on perceptions of brand personality,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12, No. 2, pp. 164-181.

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므로 화장품 사용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외모에서 얼굴에 적용하는 메이크업은 이미지 지각의 직접적인 단서가 되므로 메이크업과 이미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각자의 성별과 연령은 메이크업에 있어서 이미지 지각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얼굴형태를 계측한 후 얼굴유형을 분류하고, 얼굴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스타일의 형태 변화 및 이미지 변화 지각을 파악하여 성별 지각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모형도는<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 조사대상

얼굴형태 계측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6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20대 여성을 선정한 이유는 연령에 따라 노화와 외부의 여러 요인에 의해 얼굴형태가 변화되기 전이며, 성인으로 얼굴형태 형성이 완성되는 연령이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얼굴의 형태를 유지하며, 아직 이미지 연출에 미숙한 청소년기를 지나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시기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얼굴형태와 이미지 지각평가의 조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며, 총 601명으로 남자가 299명(49.75%), 여자가 302명(50.25%)이었다. 연령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9세에서 29세 사이로 구성되어있으며, 18~20세가 38%, 21~22세가 30.6%, 23~24세가 19.7%, 25~29세가 11.5%의 분포로 나타났다. 19세~29세의 남·녀 대학생은 성인이 되어 이성을 경험하는 시기로 상대방에 대한 매력 관심도가 높은 연령대이다. 따라서 이들 성별의 지각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여성의 외모 연출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남녀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월평균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8.21%로 가장 적었고, 20~30만원 미만이 27.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항목	세부항목	N	%
성별	남자	299	49.75
	여자	302	50.25
	합계	601	100.00
나이	20세이하	229	38.2
	21~22세	183	30.6
	23~24세	118	19.7
	25세이상	69	11.5
	합계	601	100.00
월평균용돈	10만원미만	49	8.21
	10~20만원미만	97	16.25
	20~30만원미만	164	27.47
	30~40만원미만	151	25.29
	50만원이상	136	22.78
	합계	601	100.00

2) 자료수집

얼굴형태 계측과 사진촬영 기간은 2008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에 실시되었으며,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200명(97.08%)의 사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얼굴형태와 이미지 지각평가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다.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에게 총 630부(남학생 315부, 여학생 315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으며, 618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남학생 299부, 여학생 302부의 총 601부(95.39%)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조사원은 조사 방법과 자료 수집에 대하여 충분한 인지를 받은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2명과 학부생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극물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시간은 각 1인이 30초에서 1분을 소요하게 하였다.

2. 조사 방법

1) 얼굴형태 계측

(1) 계측도구와 방법

본 연구의 계측방법은 직접계측과 간접계측을 병행하여 안면부위 24항목의 계측치를 산출하여 연구하였으며, 계측항목은 실제 계측대상자를 계측하는 직접계측 항목과 사진촬영을 통해 계측할 수 있는 사진계측 항목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직접계측은 Martin의 인체계측기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직접계측하였다. 간접계측에는 0.05mm까지의 정밀도를 가진 자와 0.1°까지의 정밀도를 가진 360° 각도기를 사용하였으며, 사진계측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눈금이 표시된 용지를 같이 촬영하고 계측 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계측하고 분석하였다.

(2) 계측환경 설정

본 연구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계측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촬영 기자재 : 디지털 카메라 (Sony DSC-F717), 삼각대, 눈금용지
- ② 보조 용구 : 의자, 헤어밴드, 기록용 펜, 기록용 카드, 표시용 스티커
- ③ 촬영 방법 : 촬영은 대상자에게 머리띠를 착용시키고 이마선 및 얼굴윤곽선이 잘 보이도록 한 후 의자에 앉힌 다음 촬영하였다. 피사체에서 카메라까지의 거리는 촬영 시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일치하고 피사체가

가장 정밀하게 포착되는 2000mm로 고정하였다. 카메라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0mm(20대 여성의 평균 앉은키의 눈높이 + 의자높이)로 하고 피사체의 앉은키의 눈높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였다.

(3) 계측항목

계측항목 및 기준점은 문남원¹⁰⁷⁾, 송미영¹⁰⁸⁾, 김진숙, 이경화¹⁰⁹⁾, 손희정 외 4인¹¹⁰⁾, 김정희¹¹¹⁾ 등 문헌의 계측항목을 참고하여 얼굴형태 특징의 구분에 필요한 너비 측정항목 11항, 높이 측정항목 9항, 경사 측정항목 3항으로 총 24항목을 선정하였다.

계측의 기준점인 계측점은 <표 10>, <그림 2>이며, 계측항목은 <표 11>, <그림 3>에 제시하였다.

107) 문남원, op. cit., pp. 133-144.

108) 송미영, op. cit., pp. 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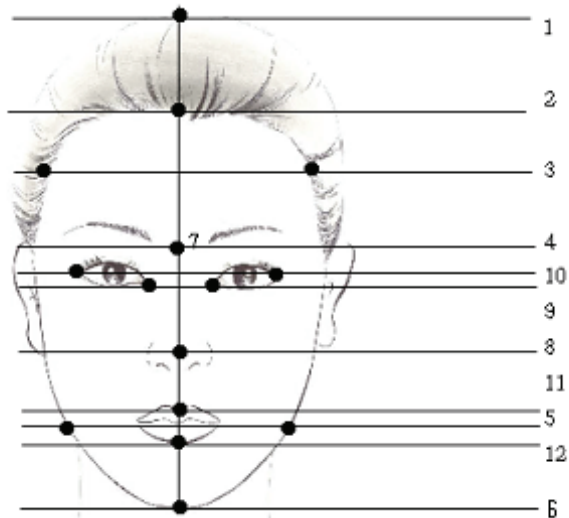
109) 김진숙, 이경화, op. cit., pp. 1470-1481.

110) 손희정 외 4인, op. cit., pp. 11-19.

111) 김정희, op. cit., pp. 151-165.

<표 10> 계측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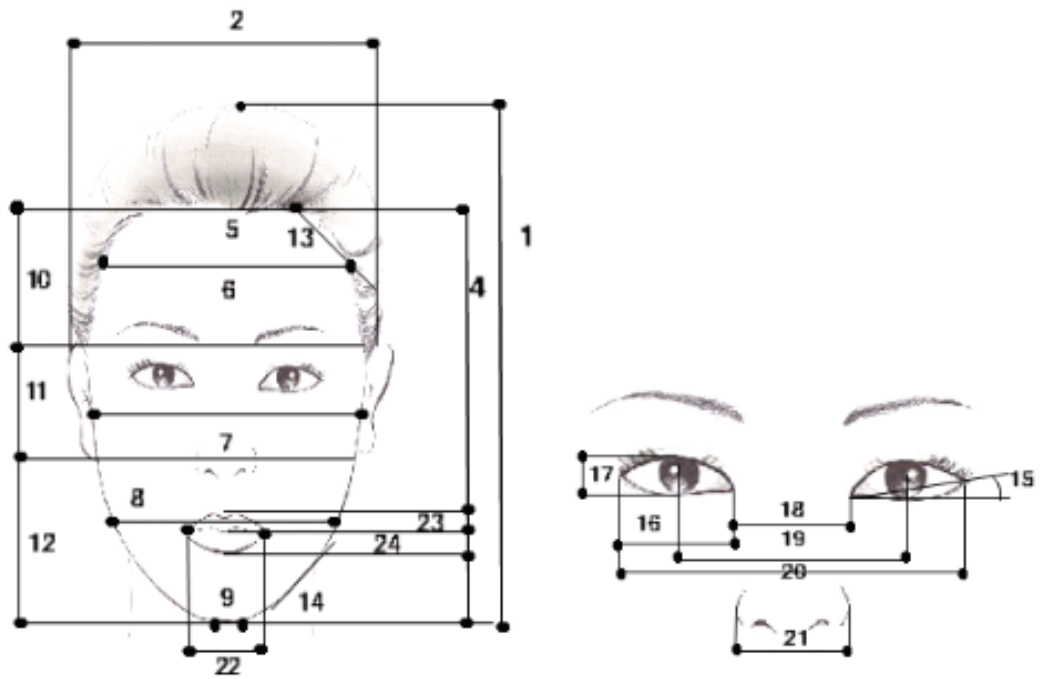
순서	계측점	비고
1	머리마루점(vertex)	머리수평면을 유지할 때 머리부위 정중선상에서 가장 위쪽
2	이마시작점(trichion)	이마와 머리카락이 만나는 선에서 이마 위쪽 중앙점
3	옆이마점(frontotemporale)	옆 이마에서 머리가 나기 시작한 점
4	관골궁점(bizygion)	얼굴폭이 최대가 되는 지점
5	하악각점(gonion)	아래턱 뼈 양쪽의 맨 바깥 끝점
6	턱끝점(menton)	아래턱 뼈 부위 정중선상에서 가장 아래쪽 지점
7	미간점(glabella)	정중선과 양미간선이 교차되는 점
8	코끝점(subnasale)	코에서 앞쪽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
9	내안각점(endocanthion)	안검열의 내측 교련점
10	외안각점(exocanthion)	안검열의 외측 교련점
11	상순점(labiale superius)	상홍순선의 정중점
12	하순점(labiale inferius)	하홍순선의 정중점



<그림 2> 계측점

<표 11> 계측항목

구분	순서	계측항목	비고
직접 계측 항목	1	머리길이(head length)	턱과 머리마루점을 잇는 수직길이
	2	머리너비(head breadth)	머리 둘레선의 좌우 직선거리
	3	키(height)	바닥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길이
간접 계측 항목	4	얼굴길이 (physiognomic face height)	턱과 이마 시작점을 잇는 수직길이
	5	이마시작폭(trichion breadth)	이마가 시작되는 부위의 수평거리
	6	이마너비(forehead breadth)	이마 좌우 발제선간의 직선거리
	7	얼굴폭(bizygion breadth)	좌우 관골동 최외측점까지의 수평거리
	8	하악각간폭 (mandibular breadth)	좌우의 아래턱각점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거리
	9	턱결절간직선거리 (mental tubercles breadth)	아래턱 결절 사이를 잇는 수평거리
	10	상안부 길이(upper face)	이마시작점에서 미간점까지의 수직거리
	11	중안부 길이(middle face)	미간점에서 코끝점까지의 수직거리
	12	하안부 길이(lower face)	코끝점에서 턱끝점까지의 수직거리
	13	이마각(forehead angle)	이마시작점 끝선에서 얼굴 외곽선 사이 각도
	14	아래턱 끝각 (lower chin end angle)	턱결절간 직선거리의 끝점에서 얼굴외곽선과의 사이 각도
	15	눈경사도(inclination of palpebral fissure)	수평면에 대한 눈꼬리의 각도
	16	눈 너비 (width of palpebral fissure)	눈꺼풀 틈새의 수평거리
	17	눈 높이 (height of palpebral fissure)	눈너비에 수직인 눈꺼풀 틈새의 가장 긴 수직길이
	18	내안각폭(intercanthal distance)	양쪽 내안각점사이의 수평거리
	19	동공 사이 거리 (interpupillary distance)	양쪽 동공사이의 수평거리
	20	외안각폭(biectocanthal distance)	양쪽 외안각점 사이의 직선거리
	21	코너비(width of nose)	양쪽 비익점 사이의 수평거리
	22	입너비(mouth width)	구순교련점 사이의 수평거리
	23	윗입술 폭 (upper vermilion height)	상홍순의 수직거리
	24	아래 입술 폭 (lower vermilion height)	하홍순의 수직거리



<그림 3> 계측항목

2) 얼굴형태와 이미지 지각평가

(1) 측정도구

얼굴형태와 이미지 지각실험은 설문지에 의한 실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설계는 6×5×2(얼굴형×메이크업 스타일×성별)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모델을 메이크업으로 변화시킨 얼굴사진의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로 이루어졌다.

① 실험 얼굴형 선정

얼굴유형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한 평가단(성형외과 의사 1명, 의류학 박사과정 3명, 미술 전공자 3명, 메이크업전공자 15명, 헤어 전공자 3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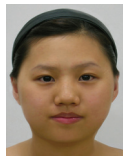




평가실험절차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조사대상자의 얼굴사진을 한 장씩 평가단에게 보여주고 평가하게 하였다. 얼굴계측 실험에서 계측된 평균 얼굴길이와 평균 얼굴폭의 평균 계측치를 기준으로 타원형의 얼굴형을 작성한 후 작성된 타원형을 기준으로 얼굴형을 시각적 판단에 따라 1차 분류 하였다. 두 번째 시행한 2차 분류의 시각적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얼굴유형은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역삼각형, 장방형, 마름모형의 6가지 얼굴형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얼굴유형의 명칭이 긴형과 장방형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계측분류된 긴형과 장방형의 얼굴형 평균 계측치를 살펴 본 결과 얼굴폭은 가장 좁으나 하악간폭과 턱결절간직선거리인 턱 부위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좁지 않으므로 평가단과 협의하여 장방형으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실험 얼굴형별 모델 선정은 평가단의 시각적 판단에 의해 분류된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역삼각형, 장방형, 마름모형의 6가지 얼굴유형의 항목별 평균 얼굴 계측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각 얼굴유형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항

목별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총 6명의 얼굴을 선정하였다.

실험 얼굴형의 모델과 계측치는 <표 12>와 같다.

<표 12> 실험 얼굴형의 모델과 계측치

실험얼굴형 분류	계측치(cm)					
	얼굴형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
계측부위						
머리길이	22.1	22.4	22.3	22	22.8	22
머리너비	14.6	15	15.3	14.5	14.6	14.8
얼굴길이	18.51	18.6	18.8	18.1	19.7	18.3
이마시작폭	6.6	6.2	7	5.5	6.6	7.5
이마너비	12	12.2	12.4	11.6	12	12.4
얼굴폭	13.2	13.8	13.8	13.2	13.15	13.3
하악각간폭	11.6	12.3	12.5	11.4	11.5	11.3
턱결절간직선거리	2.7	3.1	3.1	2.4	2.75	2.3
상안부길이	6	6	6.05	5.8	6.4	6.2
중안부길이	6.11	6.1	6.2	6	6.6	6.1
하안부길이	6.4	6.5	6.55	6.3	6.7	6
이마각	45	40.2	48	45	49	48
아래턱끝각	41	36	34	42	45	47
눈경사도	9.2	7.8	8.5	9.4	9.9	9
눈너비	2.7	2.6	2.6	2.6	2.65	2.6
눈높이	0.95	0.9	0.9	0.92	0.9	0.9
내안각폭	3.6	3.65	3.6	3.52	3.5	3.5
동공사이거리	6.3	6.51	6.5	6.2	6.3	6.2
외안각폭	8.9	9.2	9	8.8	8.9	8.7
코너비	3.7	3.8	3.6	3.7	3.3	3.5
입술길이	4.5	4.6	4.4	4.3	4.4	4.2
윗입술폭	0.8	0.7	0.7	0.7	0.65	0.65
아래입술폭	1.1	1	0.9	1.0	1	0.9

② 메이크업 스타일 선정

본 연구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 까지 2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 여대생들이 메이크업 시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조사와 서울 지역의 화장품 소매상 10곳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여대생의 메이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종류의 화장품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메이크업 스타일 선정은 이연희¹¹²⁾, 김효숙과 강인애¹¹³⁾, 송미영¹¹⁴⁾, 이성옥과 신지현¹¹⁵⁾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차 조사에서 선정된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2005 S/S~2008 S/S 4년 동안 시즌마다 제안한 메이크업 트렌드 패턴 중에서 피부, 볼, 입, 눈 메이크업이 표현된 32유형을 수집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메이크업 패턴 중에서 여대생이 피부, 눈, 입, 볼 포인트 메이크업 시 선호하는 메이크업 패턴에 대한 조사와 메이크업 전문가 20명이 20대 여성의 메이크업 시술 시 선호하는 피부, 눈, 볼, 입의 메이크업 패턴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부, 눈, 볼, 입의 메이크업 스타일 4가지를 선정하였다.

③ 메이크업 색채선정

자극물의 메이크업 색채는 얼굴유형이 다른 모델 6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얼굴유형 모델에게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피부, 눈, 입, 볼 포인트 메이크업 시 가장 선호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에 사용된 브랜드의 색채를 사용하였다.

4가지 메이크업 스타일의 피부색은 보통 피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운

112) 이연희, *op. cit.*, pp. 42-44.

113) 김효숙, 강인애, *op. cit.*, pp. 72-83.

114) 송미영, *op. cit.*, pp. 50-54.

115) 이성옥, 신지현 (2000),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유행트렌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6(1), pp. 113-147.

데이션색으로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 동일한 피부 톤으로 하였으며, 강조하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자연스러운 색으로 윤곽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메이크업 스타일 색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 메이크업 스타일은 중간톤의 내츨 베이지색 화운데이션에 밝은 베이지색의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였다. 아이 브로우는 어두운 갈색, 아이 쉼도우는 연한 베이지와 연한 주황색, 아이라인은 검은 회색 펜슬로, 입은 투명한 피치색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윤곽처리 하였다.

둘째, 눈 메이크업 스타일은 피부와 입을 피부 메이크업과 동일하게 하였다. 아이 브로우는 어두운 갈색, 아이 쉼도우는 누드베이지, 펄 회색,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하고, 검은색 아이라인과 검은색 마스크라로 마무리하였다.

셋째, 입 메이크업 스타일은 피부와 눈을 피부 메이크업과 동일하게 하고, 입술에 연지색을 바르고 진한 핑크색 립글로스로 마무리하였다.

넷째, 볼 메이크업 스타일은 피부, 눈, 입을 피부 메이크업과 동일하게 하고, 볼에 핑크색으로 광대뼈를 감싸듯이 발라 혈색을 주었다.

④ 자극물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부위별 포인트 메이크업과 노 메이크업을 한 여성의 얼굴사진으로서 6가지 유형의 얼굴에 각각 피부, 눈, 입, 볼을 강조한 4가지 메이크업 스타일과 노 메이크업을 적용시킨 5가지 스타일의 사진 총 30장을 자극물로 제작하였다.

자극물은 모델의 머리, 의복 등 메이크업의 형태와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을 통제시키고 각 얼굴유형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메이크업하였다. 메이크업이 완성되면 디지털카메라(기종: SONY, DSC-F717)로 촬영을 하여 현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6명의 모델에게 피부, 입, 볼, 눈 메이크업

스타일이 다른 각각 4종류의 사진과 얼굴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1종류의 사진을 더한 총 30종류로서 자극물 번호 1~30번으로 하였다. 계란형의 메이크업 스타일 변화는 1~5번 자극물에서 볼 수 있으며, 둥근형은 6~10번, 사각형은 11~15번, 마름모형은 16~20번, 장방형은 21~25번, 역삼각형은 26~30번으로 정하였다. 자극물의 크기는 9.5(가로)× 12.5(세로)cm로 정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의 사진은 <그림 4>와 같다.

메이크업 스타일	자극물의 메이크업 스타일 색채	입술형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
노 메이크업	세안 후 기초 메이크업인 스킨과 로션을 바른 상태						
피부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베이스(L브렌드아이트피치20호), 파운데이션(L브렌드내츄럴베이지21호) 파우더(L브렌드투명베이지 1호) 눈 : 눈썹(L브렌드리얼브라운1호), 아이섀도우(L브렌드SYR31누드베이지, YR321누드오렌지), 아이라이너(L브렌드검은화색 펜슬라이너) 입 : 입술(E브렌드 디어달링클로스16호 슈가괴피)						
입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베이스(L브렌드아이트피치20호), 파운데이션(L브렌드내츄럴베이지21호) 파우더(L브렌드투명베이지 1호) 눈 : 눈썹(L브렌드리얼브라운1호), 아이섀도우(L브렌드SYR31누드베이지, YR321누드오렌지), 아이라이너(L브렌드검은화색 펜슬라이너) 입 : 입술(E브렌드 디어달링클로스PK002펜시핑크, 디어달링클로스13호핑크핑크)						
볼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베이스(L브렌드아이트피치20호), 파운데이션(L브렌드내츄럴베이지21호) 파우더(L브렌드투명베이지 1호) 눈 : 눈썹(L브렌드리얼브라운1호), 아이섀도우(L브렌드SYR31누드베이지, YR321누드오렌지), 아이라이너(L브렌드검은화색 펜슬) 입 : 입술(E브렌드 디어달링클로스PK002펜시핑크, 디어달링클로스13호핑크핑크) 볼 : 볼터치(E브렌드 리블리쿠기블러셔1호 핑크쿠키)						
눈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베이스(L브렌드아이트피치20호), 파운데이션(L브렌드내츄럴베이지21호) 파우더(L브렌드투명베이지 1호) 눈 : 눈썹(L브렌드리얼브라운1호), 아이섀도우(L브렌드SYR31누드베이지, N877실버그 레이,N879블랙프리즘), 아이라이너(L브렌드블랙 아이라이너 펜슬)로 마스크라(리얼블랙마스카라) 입 : 입술(E브렌드 디어달링클로스PK002펜시핑크, 디어달링클로스13호핑크핑크)						

<그림 4> 완성된 자극물의 사진

(2) 설문지 문항

얼굴형태 변화와 이미지 지각에 대한 설문지 문항은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① 이미지 지각

이미지 지각에서의 의미미분척도에 사용된 형용사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제작된 자극물을 20대 남녀 각각 24명씩 48명에게 제시하여 사전조사를 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연상되는 이미지를 형용사로 표현하게 하는 자유기술 방식에 의하며 형용사 어휘를 수집하였다. 1개의 자극물에 4명이 반응하였으며, 1명의 피험자가 5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에게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관련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여 58개의 형용사를 선택하였다. 이 중에서 메이크업의 이미지 표현에 부적절한 형용사를 제외하고 30개의 형용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의미미분척도는 7점 척도의 형용사로 구성되었다.

② 얼굴형태 변화 지각

얼굴형태 변화 지각에서 사용된 문항은 메이크업 전문가 20명에게 제작된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조사하였다. 자극물을 보고 얼굴 윤곽과 눈, 코, 입, 볼에 메이크업으로 인한 얼굴형태 변화로 인식되는 용어를 자유기술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관련된 용어를 수집하여 42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 중에서 메이크업으로 인한 얼굴형태 변화 표현에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30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얼굴형태 변화 문항 척도는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외에 메이크업 선호도에 관한 질문 9문항,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3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이미지 평가문항의 분류를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이 적절하게 묶였는지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얼굴형에 따른 얼굴형태 측정치의 비교를 위해 일원 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으로는 Duncan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얼굴측측 항목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얼굴형에 따른 눈경사도의 차이는 χ^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 이미지 평가문항 및 얼굴형태 지각에 대한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위해 삼원 변량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효과에서 유의한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얼굴형태 계측치 분석

1) 얼굴부위와 유형별 계측치

20대 여성의 얼굴부위를 24항목에서 계측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얼굴 길이는 18.69cm, 얼굴폭은 13.36cm로 2005년 송미영¹¹⁶⁾의 연구결과인 얼굴길이 18.3cm, 얼굴폭 13.5cm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88년 김철주 등¹¹⁷⁾의 연구결과인 얼굴길이 18.7cm, 얼굴폭 14.5cm와 1989년 박종섭 등¹¹⁸⁾의 연구결과인 얼굴폭 14.5cm와 비교하면 점점 얼굴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에서 세로의 3등분 길이는 상안부의 길이가 6.08cm이고, 중안부의 길이는 6.19cm이고, 하안부의 길이는 6.44cm로 계측되었다. 이는 송미영¹¹⁹⁾의 연구에서 상안이 5.9cm, 중안이 6.1cm 하안이 6.2cm로 계측치와 큰 차이가 없으며, 한국인의 정면상 얼굴의 세로비가 상안, 중안, 하안의 순서로 크다고 한 조용진¹²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너비는 2.63cm, 눈높이는 0.91cm, 코너비는 3.74cm, 입술길이는 4.51cm의 평균 계측치를 보였다. 이는, 1989년 이동진 외 4인의 연구에서 눈너비가 2.41cm, 코너비는 3.61cm, 입술길이는 4.39cm 보다 크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얼굴 폭이

116) 송미영, op. cit., pp. 58-60.

117) 김철주 외 3인 (1988), "청년기 한국인 안면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5(2), p. 427.

118) 박종섭 외 2인, op. cit., pp. 923-925.

119) 송미영, op. cit., p. 59.

120) 조용진, op. cit., pp. 52-55.

좁고 가름한 얼굴형에 눈, 코, 입이 커진 얼굴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얼굴형태에 맞추어 아름다운 얼굴로 연출할 수 있도록 윤곽수정 및 부위별 메이크업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20대 여성의 얼굴부위 계측치

(단위 : cm)

계측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머리길이	22.30	.91	19.00	25.00
머리너비	14.76	.74	12.70	16.50
키	163.10	4.94	150.00	182.00
얼굴길이	18.69	.90	13.00	20.60
이마시작폭	6.49	.70	4.80	9.50
이마너비	12.07	.58	10.80	14.50
얼굴폭	13.36	.60	11.80	15.00
하악각간폭	11.71	.60	10.50	13.50
턱결절간직선거리	2.74	.34	1.50	3.60
상안부길이	6.08	.41	5.00	7.60
중안부길이	6.19	.35	5.10	7.20
하안부길이	6.44	.42	5.30	7.50
이마각	45.63	4.14	34.00	54.00
아래턱끝각	41.58	4.78	30.00	51.00
눈경사도	8.81	2.41	.72	16.00
눈너비	2.63	.16	2.30	3.20
눈높이	.91	.12	.50	1.20
내안각폭	3.62	.32	2.80	5.30
동공사이거리	6.33	.34	5.20	7.30
외안각폭	8.97	.49	6.40	10.70
코너비	3.74	.26	3.10	4.50
입술길이	4.51	.29	3.60	5.20
윗입술폭	.68	.16	.30	1.10
아래입술폭	.97	.20	.40	1.80

얼굴형에 따른 계측치의 차이분석을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을 분류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얼굴 유형별 계측치 비교

(단위: cm)

계측항목	얼굴형						F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머리길이	22.22 ^b	22.44 ^{ab}	22.20 ^b	22.07 ^b	22.73 ^a	21.98 ^b	3.119 ^{**}
머리너비	14.53 ^{bc}	15.06 ^a	15.13 ^a	14.27 ^c	14.74 ^{ab}	14.89 ^{ab}	5.670 ^{**}
키	161.58 ^b	163.06 ^{ab}	163.47 ^{ab}	163.78 ^{ab}	164.94 ^a	163.21 ^{ab}	2.165
얼굴길이	18.50 ^{bc}	18.58 ^{bc}	18.87 ^b	18.07 ^d	19.71 ^a	18.32 ^{cd}	17.808 ^{**}
이마시작폭	6.32 ^d	6.11 ^d	6.97 ^b	5.58 ^e	6.63 ^c	7.42 ^a	52.300 ^{**}
이마너비	11.90 ^{cd}	12.18 ^{abc}	12.33 ^{ab}	11.62 ^d	12.03 ^{bc}	12.41 ^a	7.136 ^{**}
얼굴폭	13.16 ^b	13.79 ^a	13.88 ^a	13.15 ^b	13.10 ^b	13.24 ^b	13.116 ^{**}
하악각간폭	11.51 ^b	12.27 ^a	12.48 ^a	11.33 ^b	11.56 ^b	11.33 ^b	32.149 ^{**}
턱결절간직선거리	2.75 ^b	3.04 ^a	3.09 ^a	2.38 ^c	2.78 ^b	2.32 ^c	55.888 ^{**}
상안부길이	5.96 ^{cd}	6.00 ^{cd}	6.13 ^{bc}	5.81 ^d	6.38 ^a	6.22 ^{ab}	8.795 ^{**}
중안부길이	6.10 ^{bc}	6.10 ^{bc}	6.18 ^b	5.98 ^c	6.61 ^a	6.09 ^{bc}	18.955 ^{**}
하안부길이	6.44 ^{bc}	6.59 ^{ab}	6.53 ^{ab}	6.29 ^c	6.72 ^a	5.98 ^d	18.605 ^{**}
이마각	44.66 ^b	40.68 ^c	48.43 ^a	45.31 ^b	49.39 ^a	48.73 ^a	58.965 ^{**}
아래턱끝각	41.50 ^c	36.88 ^d	34.13 ^e	42.19 ^c	45.33 ^b	47.06 ^a	102.022 ^{**}
눈경사도	9.00 ^{ab}	7.53 ^c	8.33 ^{bc}	9.42 ^{ab}	9.98 ^a	8.82 ^{abc}	5.028 ^{**}
눈너비	2.67 ^a	2.66 ^{ab}	2.55 ^c	2.57 ^{bc}	2.61 ^{abc}	2.64 ^{ab}	2.574 [*]
눈높이	.93	.90	.86	.91	.92	.92	.867
내안각폭	3.60 ^{ab}	3.74 ^a	3.75 ^a	3.57 ^{ab}	3.54 ^b	3.52 ^b	2.996 [*]
동공사이거리	6.32 ^{abc}	6.46 ^a	6.41 ^{ab}	6.27 ^{bc}	6.27 ^{bc}	6.21 ^c	2.858 [*]
외안각폭	9.06 ^{ab}	9.15 ^a	8.95 ^{ab}	8.81 ^b	8.79 ^b	8.85 ^b	3.430 ^{**}
코너비	3.71 ^{bc}	3.81 ^b	3.96 ^a	3.75 ^{bc}	3.64 ^c	3.69 ^{bc}	4.797 ^{**}
입술길이	4.47	4.60	4.55	4.44	4.53	4.45	1.744
윗입술폭	.72	.69	.71	.64	.67	.64	1.489
아래입술폭	1.00	.98	.93	1.00	.91	.97	1.257

* p < .05, ** p < .01

a>b>c>d : Duncan test

얼굴유형별 계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키, 눈높이, 입술길이, 윗입술폭, 아랫입술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얼굴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공사이거리, 내안각폭, 눈너비는 $p < .05$ 수준에서, 머리길이, 머리너비, 얼굴길이, 이마시작폭, 이마너비, 얼굴폭, 하악간간폭, 턱결절간직선거리,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이마각, 아래턱끝각, 눈경사도, 외안각폭, 코너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얼굴길이는 장방형이 19.71cm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사각형이 18.87cm, 마름모형이 18.07cm의 순으로 나타났다. 얼굴폭은 사각형이 13.83cm로 가장 넓게 나타났고, 동근형과 역삼각형 얼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방형이 13.01cm로 가장 얼굴폭이 좁게 나타났다. 턱결절간직선거리는 사각형이 3.09cm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역삼각형이 2.32cm로 가장 좁게 나타났다.

상안과 중안의 길이는 장방형이 각각 6.38cm, 6.61cm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마름모형이 5.81cm, 5.98cm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하안부의 길이도 6.72cm로 장방형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가장 짧게 나타난 형은 5.98cm로 역삼각형이었다. 눈경사도는 장방형과 마름모형이 9.98°, 9.42°로 높게 나타났고, 동근형이 7.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코너비는 사각형과 동근형이 3.96cm, 3.81cm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장방형이 3.64cm로 가장 좁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얼굴유형에 따라 얼굴부위 계측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계측치로 얼굴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계란형은 얼굴길이, 얼굴폭 등의 치수가 대체로 평균 계측치에 가까운 타원형에 가까운 얼굴형으로 눈이 약간 올라간 가름한 얼굴형이다. 동근형은 얼굴폭이 넓고,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이 낮은 동근 얼굴에 이마너비와 코너비는 크고, 눈경사도가 낮아서 부드럽고 동그란 얼굴형이다. 사각형은 얼굴길이와 폭이 넓고 길어서 얼굴이 크며, 코너비도 커서 코폭도 넓고, 턱결절길이와 하안이 길어서 아래턱이

발달한 각진 얼굴이다. 마름모형은 얼굴폭에 비해 이마길리와 턱결절길이가 짧으며, 눈경사도는 높아서 얼굴 위 아래가 뾰족하여 날카롭게 보이는 얼굴형이다. 장방형은 얼굴길이가 길고, 특히 중안과 하안이 길며, 얼굴폭과 코너비는 좁아서 코와 턱이 길어 보이며 눈경사도가 가장 높아 날카로운 눈에 긴 얼굴형이다. 역삼각형은 하안이 짧고 상안은 길며, 이마너비가 넓어서 이마는 발달하고 턱이 뾰족한 얼굴로 눈경사도가 높아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얼굴형이다. 얼굴유형별 특징을 <표 15>에 정리하였다.

이는 분류기준을 타원형으로 본 한명숙¹²¹⁾, 강경화¹²²⁾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얼굴윤곽은 얼굴형에 의해 각기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얼굴형 특징을 파악한다면 보기 좋은 형태는 강조하고 결점을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어서 개인의 개성이 돋보이는 메이크업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얼굴형의 특징

얼굴형	특징
계란형	얼굴길이, 얼굴폭 등의 치수가 대체로 평균 계측치에 가까운 타원형에 가까운 얼굴형으로 눈이 약간 올라간 가름한 얼굴형
등근형	얼굴폭이 넓고, 이마각과 아래턱 끝각이 낮은 등근 얼굴에 이마너비와 코너비는 크고, 눈경사도가 낮아서 부드럽고 동그란 얼굴형
사각형	얼굴 길이와 폭이 넓고 길어서 얼굴이 크며, 코폭도 넓고, 턱결절길리와 하안이 길어서 아래턱이 발달한 각진 얼굴형
마름모형	얼굴폭에 비해 이마길리와 턱결절길이가 짧으며, 눈경사도는 높아서 얼굴 위 아래가 뾰족하여 날카롭게 보이는 얼굴형
장방형	얼굴길이가 길고, 특히 중안과 하안이 길며, 얼굴폭과 코너비는 좁아서 코와 턱이 길어 보이며 눈경사도가 가장 높아 날카로운 눈에 긴 얼굴형
역삼각형	하안이 짧고 상안은 길며, 이마너비가 넓어서 이마는 발달하고 턱이 뾰족한 얼굴로 눈경사도가 높아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얼굴형

121) 한명숙, op. cit., pp. 45-50.

122) 강경화, op. cit., pp. 31-32.

2) 얼굴계측 항목간의 형태적 특성 비교

얼굴계측 항목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얼굴계측 항목간의 상관관계

얼굴계측 항목 \ 얼굴계측 항목	얼굴 길이	이마 시작폭	이마 너비	얼굴폭	하악각 간폭	턱결절 간직선 거리	상안부 길이	중안부 길이	하안부 길이	이마각	아래턱 끝각
얼굴길이	1										
이마시작폭	.130	1									
이마너비	.335**	.397**	1								
얼굴폭	.242**	.118	.694**	1							
하악각간폭	.266**	-.036	.468**	.723**	1						
턱결절간직선거리	.213**	-.154*	.128	.376**	.563**	1					
상안부길이	.581**	.312**	.352**	.133	.044	.065	1				
중안부길이	.679**	.078	.192**	.136	.147*	.104	.250**	1			
하안부길이	.563**	-.166*	.135	.277**	.352**	.419**	.072	.301**	1		
이마각	.209**	.510**	.104	-.227**	-.300**	-.317**	.298**	.246**	-.125	1	
아래턱끝각	.142*	.346**	.020	-.344**	-.514**	-.504**	.247**	.178*	-.215**	.520**	1

* p < .05 ** p < .01

얼굴길이는 이마너비, 얼굴폭, 하악각간폭, 턱결절간직선거리,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 하안부길이, 이마각은 $p < .01$ 수준에서, 아래턱끝각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하악각간폭은 턱결절간직선거리와 하안부길이와는 $p < .01$ 수준의, 중안부길이와는 $p < .05$ 수준의 정적(正的)상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마각과 아래턱끝각과는 $p < .01$ 수준의 부적(否的)상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마시작폭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얼굴길이가 길어지면 이마너비, 얼굴폭, 턱결절간직선거리, 상안, 중안, 하안의 길이가 길어지며,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의 각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마너비는 $p < .01$ 수준에서 얼굴폭, 하악각간폭, 상안부길이, 중안부길이와 정적상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마너비가 넓어지면 얼굴폭, 하악각간폭, 상안부, 중안부의 길이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폭은 $p < .01$ 수준에서 하악각간폭, 턱결절간직선거리, 하안부길이와 정적상관의 유의한 차이가 이마각, 아래턱끝각과는 부적상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굴폭이 넓어지면 하악각간폭, 턱결절간직선거리, 하안부길이가 커지고,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은 작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악각간폭이 넓어지면 턱결절간직선거리, 중안과 하안의 길이는 커지고,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얼굴길이가 길어지면 이마너비, 얼굴폭, 턱결절간직선거리, 상안, 중안, 하안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의 각도가 커져서 얼굴이 길어진다. 얼굴폭이 넓어지면 하악각간폭, 턱결절간직선거리, 하안부길이가 커지고,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은 작아져서 얼굴이 넓어진다. 이마너비가 넓어지면 얼굴폭, 하악각간폭, 상안부, 중안부의 길이가 커져서 상안, 중안부가 발달하여 커지며, 하악각간폭이 넓어지면 턱결절간직선거리, 중안과 하안의 길이는 커지

고, 이마각과 아래턱끝각은 작아져서 턱이 발달하여 커지는 얼굴형태의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다.

얼굴계측 항목과 눈, 코, 입 계측항목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

<표 17> 얼굴계측 항목과 눈, 코, 입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

얼굴계측 항목 눈,코,입 계측항목	얼굴 길이	이마 시작폭	이마 너비	얼굴폭	하악각 간폭	턱결절 간직선 거리	상안부 길이	중안부 길이	하안부 길이	이마각	아래턱 끝각
눈경사도	.030	.056	-.003	-.090	-.217**	-.216**	.059	.008	-.001	.269***	.230**
눈너비	.169*	.057	.306***	.282***	.180*	.114	.272***	.027	.142*	-.089	-.031
눈높이	.101	.024	.138	.041	-.019	-.023	.162*	.065	.020	.116	.039
내안각폭	.162*	.028	.326***	.447***	.339***	.232**	.094	.096	.196**	-.176*	-.238**
동공사이거리	.271***	.054	.427***	.562***	.430***	.298***	.169*	.203**	.287***	-.168*	-.167*
외안각폭	.197**	-.016	.433***	.482***	.354***	.232**	.227**	.095	.205**	-.135	-.206**
코너비	.043	.023	.238**	.361***	.280***	.170*	.094	-.122	.078	-.138	-.264***
입술길이	.205**	.067	.206**	.273***	.229**	.321***	.172*	.076	.184**	-.111	-.065
윗입술폭	.164*	-.062	.133	.117	.160*	.184**	.122	-.015	.150*	-.032	-.047
아래입술폭	.041	-.015	.199**	.214**	.081	.051	.076	-.049	.072	-.018	-.014

* p < .05 ** p < .01 *** p < .001

얼굴길이는 눈너비, 내안각폭, 윗입술폭과는 $p < .05$ 수준에서,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 입술길이와는 $p < .01$ 수준에서 정적관계의 유의차이가 있었다. 이는 얼굴길이가 길어지면 눈너비,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 입술길이, 윗입술길이도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마너비는 눈너비,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과 $p < .001$ 수준에서, 코너비, 입술길이, 아랫입술폭과는 $p < .01$ 수준에서 정적관계의 유의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너비가 넓어지면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난 눈너비,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이 같이 커지며 코너비, 입술길이, 아랫입술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폭은 눈너비,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 코너비, 입술길이와는 $p < .001$ 수준에서 아랫입술폭과는 $p < .01$ 정적관계의 유의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얼굴폭이 넓어지면 눈너비,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 코너비, 입술길이, 아랫입술폭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악각간폭은 눈경사도와 $p < .01$ 수준에서 부적관계의 유의차이가 있었다. 눈너비와 윗입술폭과는 $p < .05$ 수준에서, 입술길이와는 $p < .01$ 수준에서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 코너비와는 $p < .001$ 수준에서 정적관계의 유의차이가 있었다. 이로서 하악각간폭이 커지면 눈경사도는 낮아지고, 눈너비,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 코너비, 입술길이, 윗입술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턱결절간직선거리는 코너비와는 $p < .05$ 수준에서, 내안각폭, 외안각폭, 윗입술폭과는 $p < .01$ 수준에서, 동공사이거리와 입술길이와는 $p < .001$ 수준에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의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눈경사도와는 $p < .01$ 수준에서 부적관계의 유의차이가 나타나, 이는 턱결절간직선거리가 커지면 눈경사도는 낮아지고,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 외안각폭, 코너비, 입술길이, 윗입술폭은 커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마각은 눈경사도와 $p < .001$ 수준에서 정적관계의 유의차이가 있었으며, 내안각폭, 동공사이거리와는 $p < .05$ 수준의 유의차이로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마각이 커지면 눈경사는 커지고, 내안각폭과 동공사이거리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턱끝각은 눈경사도와 $p < .01$ 수준의 유의차이로 정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동공사이거리는 $p < .05$ 수준에서 내안각폭과 외안각폭과는 $p < .01$ 수준에서 코너비와는 $p < .001$ 수준의 유의차이로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턱끝각이 커지면 눈경사도는 커지고, 동공사이거리, 내안각폭, 외안각폭, 코너비는 작아진다. 위의 결과 이마의 시작폭 넓이를 제외한 모든 얼굴 계측항목과 눈, 코, 입 계측항목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눈, 코, 입 등의 계측항목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송미영¹²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얼굴유형별 형태차이는 부위별 폭과 길이가 서로 연관이 있으며 특정부위가 큰 경우 다른 부위가 크거나 또는 작은 상호관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 시 모든 얼굴형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조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메이크업을 통해 입과 눈을 커보이게, 볼은 작아 보이게 하면 얼굴형이 변화되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얼굴폭, 얼굴길이, 하안각간폭, 턱결절간직선거리, 이마각, 턱끝각 등의 얼굴항목은 눈너비, 눈경사도, 입술길이, 내안각폭 등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눈, 입, 볼 메이크업에 의해 얼굴길이, 폭, 턱의 각 등의 형태가 변화되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3) 송미영, op. cit., pp. 63-67.

2. 메이크업 이미지 지각 분석

1) 메이크업 이미지의 요인분석

메이크업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의미미분 척도 30문항에 대해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는 고유치가 1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적합한 요인수는 4개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 및 요인의 설명력은 <표 18>과 같다.

요인 1은 ‘현대적인-고전적인’, ‘도시적인-전원적인’, ‘능력있는-무능력한’,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세련된-촌스러운’, ‘시원한-답답한’, ‘화사한-칙칙한’, ‘개성있는-개성없는’ 등의 이미지형용사로 구성되었고, 요인 1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력은 전체 설명력의 25.134%로 나타났다. 신뢰도 α 값은 .881 이었다. 형용사 중 ‘현대적인-고전적인’, ‘세련된-촌스러운’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805, .704로 높게 나타났고, ‘개성있는-개성없는’이 .5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1을 ‘세련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 ‘여성적인-남성적인’ 등의 이미지 형용사로 구성되었고 설명력은 13.322%로 나타났다. 신뢰도 α 값은 .835이었다. 형용사 중 ‘따뜻한-차가운’의 요인부하량이 .849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적인-남성적인’의 요인부하량이 .750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2를 ‘온유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암전한-암전하지 않은’, ‘고상한-천박한’, ‘자연스러운-인위적인’, ‘편안한-불편한’ 등의 이미지 형용사로 구성되었고, 설명력은 12.328%로 나타났다. 신뢰도 α 값은 .709였다. 형용사 중 ‘암전한-암전하지 않은’, ‘고상한-천박한’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734, .716으로 높게 나타났고, ‘편안한-불편한’이 .554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3을 ‘품위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귀여운-성숙한’, ‘발랄한-점잖은’,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밝은-어두운’등의 이미지 형용사로 구성되었고, 설명력은 12.159%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α 값은 .742였다. 형용사중 ‘귀여운-성숙한’, ‘발랄한-점잖은’의 요인부하량이 .755, .647로 높게 나타났고 ‘밝고-어두운’의 요인부하량은 .5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4를 ‘성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18>의 요인구조 성격을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구성평가 용어와 비교하여 보면, ‘세련성’ 요인은 이연희¹²⁴⁾의 ‘매력성’ 요인과 하경연¹²⁵⁾의 ‘세련성’ 요인과 한명숙과 선정희¹²⁶⁾의 ‘현대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온유성’ 요인은 송미영¹²⁷⁾의 ‘온유성’ 요인과 유사하며, 김한경¹²⁸⁾의 ‘소프트’ 요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품위성’ 요인은 이진숙 외 5인¹²⁹⁾의 품위 있는, 귀족적인 요인과 송미영¹³⁰⁾의 품위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성숙성’ 요인은 이연희¹³¹⁾의 ‘성숙성’ 요인과 유사하며, 이주현¹³²⁾의 품위요인과 일부 일치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4개의 요인은 요인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얼굴 이미지 요인 중 ‘세련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온

124) 이연희, op. cit., pp. 86-89.

125) 하경연 (2006),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p. 47.

126) 한명숙, 선정희, op. cit., pp. 73-85.

127) 송미영, op. cit., pp. 101-102.

128) 김한경, op. cit., p. 21.

129) 이진숙 외 5인 (1999), "색채감성 분석기법에 의한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별 예측모델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지, 2(2), pp. 62-74.

130) 송미영, op. cit., pp. 101-102.

131) 이연희, op. cit., pp. 86-88.

132)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pp. 76-77.

유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해석된다. '품위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양전하고 고상한 것으로 '성숙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하고 점잖은 이미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18> 메이크업 이미지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세련성)	요인 2 (운유성)	요인 3 (품위성)	요인 4 (성숙성)	공통성	Cronbach' α
16.현대적인-고전적인	.805	.058	.034	.064	.656	.881
19.도시적인-전원적인	.803	.010	.008	.053	.648	
15.능력있는-무능력한	.751	.011	.216	-.050	.614	
26.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723	.039	-.001	.153	.548	
5.세련된-촌스러운	.704	.283	.048	.046	.580	
18.시원한-답답한	.702	.030	.192	.269	.602	
17.화사한-칙칙한	.649	.205	.071	.389	.620	
23.개성있는-개성없는	.590	.064	-.146	.279	.451	
3.따뜻한-차가운	-.016	.849	.225	.160	.797	.835
2.부드러운-딱딱한	.034	.825	.252	.178	.777	
4.여성적인-남성적인	.334	.750	.117	.173	.717	
29.암전한-암전하지않은	-.096	.181	.743	-.030	.594	
20.고상한-천박한	.268	.167	.716	.047	.614	.709
12.자연스러운-인위적인	-.036	.097	.698	.237	.554	
25.편안한-불편한	.249	.357	.554	.322	.600	
13.귀여운-성숙한	-.036	.265	.213	.755	.688	.742
10.발랄한-점잖은	.421	-.041	-.161	.647	.624	
8.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184	.311	.300	.621	.606	
21.밝은-어두운	.413	.262	.287	.590	.669	
공통성	4.775	2.531	2.342	2.310	12.808	
전체 변동의 %	25.134	13.322	12.328	12.159	62.943	

2) 메이크업 이미지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요인의 지각차이와 주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세련성과 온유성의 변인은 얼굴형과 메이크업이며, 품위성과 성숙성은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이 모두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련성, 온유성, 품위성, 성숙성 모두 얼굴형과 메이크업간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지 평가에 얼굴형과 메이크업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에서 주효과 검증의 결과, 세련성에서는 계란형과 역삼각형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 세련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눈 메이크업 시 가장 세련되게 평가하며, 노 메이크업 시 세련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이 안하는 여성보다 세련되게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유성에서는 계란형과 둥근형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볼 메이크업 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온유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품위성에서는 계란형과 마름모형이 다른 형보다 점수가 높아 품위 있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노 메이크업과 피부메이크업, 볼 메이크업을 하였을 때 품위 있는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로 품위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성숙성에서는 계란형의 얼굴이 성숙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볼 메이크업 시 성숙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로 지각하여 성숙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계란형의 얼굴은 세련되고, 온유하고, 품위있고, 성숙한 등의 모든 이미지가 표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안이 가름한 마름모형은 세련된 이미지로 둥근형의 얼굴은 온유한 이미지로 평가되어, 이주희¹³³⁾와 송 133) 이주희, op. cit., pp. 15-20.

미영¹³⁴⁾의 연구에서 제시한 얼굴 유형별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볼 메이크업 시 온유하고, 품위 있고,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때 혈색 있는 색조로 부드럽게 광대뼈를 감싸주는 볼 메이크업이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눈을 강조하는 눈 메이크업 시에는 세련된 이미지로 평가하여 눈 메이크업 시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보인다고 한 한명숙, 선정희¹³⁵⁾의 연구결과와 부분 메이크업 중에서는 눈 메이크업이 매력적인 이미지로 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 Mulhern, R과 Fieldman, G¹³⁶⁾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세련성과 온유성의 이미지 평가는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품위성과 성숙성의 이미지 평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평가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남녀의 메이크업 이미지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이강미, 김주섭¹³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란형은 세련된, 온유한, 품위성, 성숙성 등의 모든 이미지를 타인에게 줄 수 있는 형이므로 눈 메이크업으로 세련되게, 볼 메이크업으로 온유하게, 피부, 볼 메이크업으로 품위있게 표현하여 상황에 따라 본인이 치중하고 싶은 이미지에 맞도록 메이크업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둥근형은 온유한 이미지의 장점을 살려 볼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거나, 또렷하고 날렵한 선과형을 이용한 눈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강조하여 둥근형을 완화시킨 세련된 이미지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사각형은 넓고 각진 얼굴이 주는 강인한 이미지를 피부 메이크업으로 차분하게 만들고 아이 섀도우의 그라데이션으로 깊이 있는 눈매로 표현하고, 볼 메이크업을 하여 품위있는 이미지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134) 송미영, *op. cit.*, pp. 5-47.

135) 한명숙, 선정희, *op. cit.*, pp. 80-82.

136) Raymond Mulhern, et. al 4., *op. cit.*, pp. 199-205.

137) 이강미, 김주섭, *op. cit.*, pp. 19-27.

적용할 수 있다. 마름모형은 품위있고 성숙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므로 볼 메이크업과 눈 메이크업으로 품위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또는 가름한 하안과 약간 올라간 눈꼬리의 장점을 살려 입 메이크업으로 볼륨감 있는 입을 표현하고 눈매를 온화하게 살려서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장방형은 좁고 긴 얼굴형의 보완을 위해 눈 메이크업 시 긴 듯한 선(線)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눈매를 길게 표현하고 볼 메이크업도 가로방향으로 주어 좁은 얼굴을 완화 시키고, 눈에 포인트를 주어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유도하도록 한다. 역삼각형은 세련된 이미지를 주므로 눈 메이크업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며, 볼 메이크업으로 광대뼈를 감싸주어 가름한 이미지를 더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로 메이크업 스타일을 적용하여 매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미지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효과가 있는 하위항목은 세련성과 성숙성으로 나타났다.

세련성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5>에서 보면, 세련성의 평가에서 여성은 눈 메이크업을 했을 때 세련되게 지각하는 데 비해 남성들은 계란형과 사각형에선 볼 메이크업을, 둥근형에선 피부 메이크업을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에선 눈 메이크업을 세련되게 평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에서 눈 메이크업을 세련되지 않다고 평가 하는데 비해 남성은 계란형은 눈 메이크업을, 둥근형은 입 메이크업을 세련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고 개성적인 메이크업을 세련되게 평가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부드럽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세련되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을 직접 하며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과 강한 메이크업을 자주 접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6>의 성숙성의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남성은 계란형에서만 볼 메이크업이 성숙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여성은 계란형, 사각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에서 볼 메이크업 시 성숙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얼굴형을 부드럽게 해주는 볼 메이크업을 성숙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일 때 더욱 편안하고 성숙하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 지각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련성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직접 시술하여 메이크업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행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는 눈 메이크업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지각차이는 성별차이가 있다고 한 이연희¹³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남성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위해서는 은은하고 산뜻한 볼 메이크업과 피부메이크업 위주로, 여성에게는 감각적인 눈 메이크업 위주로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38) 이연희, *op. cit.*, pp. 86-88.

<표 19>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이미지 요인 차이

종속변수	효과	변량원	SS	df	MS	F	R ²
세련성	주효과	성별(A)	1.016	1	1.016	1.049	.261
		얼굴형(B)	45.139	5	9.028	9.316**	
		메이크업(C)	41.422	4	10.355	10.686**	
	상호 작용 효과	A×B	9.382	5	1.876	1.936	
		A×C	12.007	4	3.002	3.098*	
		B×C	34.294	20	1.715	1.769*	
		A×B×C	38.661	20	1.933	1.995**	
온유성	주효과	성별(A)	1.516	1	1.516	1.024	.305
		얼굴형(B)	158.461	5	31.692	21.408**	
		메이크업(C)	39.145	4	9.786	6.610**	
	상호 작용 효과	A×B	7.481	5	1.496	1.011	
		A×C	13.944	4	3.486	2.355	
		B×C	81.888	20	4.094	2.766**	
		A×B×C	43.479	20	2.174	1.468	
품위성	주효과	성별(A)	4.515	1	4.515	4.149*	.231
		얼굴형(B)	36.810	5	7.362	6.765**	
		메이크업(C)	63.713	4	15.928	14.637**	
	상호 작용 효과	A×B	8.931	5	1.786	1.641	
		A×C	2.096	4	.524	.482	
		B×C	47.367	20	2.368	2.176**	
		A×B×C	12.750	20	.638	.586	
성숙성	주효과	성별(A)	36.655	1	36.655	41.378**	.368
		얼굴형(B)	106.805	5	21.361	24.113**	
		메이크업(C)	37.036	4	9.259	10.452**	
	상호 작용 효과	A×B	3.328	5	.666	.751	
		A×C	10.014	4	2.503	2.826*	
		B×C	39.995	20	2.000	2.257**	
		A×B×C	40.998	20	2.050	2.314**	

* p < .05 ** p < .01

<표 20> 이미지의 주효과 검증

구 분	이미지	세련성		온유성		품위성		성숙성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3.52	1.17	4.16	1.42	3.97	1.19	3.50	1.15
	여자	3.60	.99	4.26	1.35	4.14	1.06	4.00	1.05
	F	1.049		1.024		4.149*		41.378**	
얼굴형	계란형	3.92 ^a	1.06	4.80 ^a	1.22	4.35 ^a	1.14	4.35 ^a	1.05
	등근형	3.33 ^{cd}	.99	4.81 ^a	1.24	4.19 ^{ab}	1.12	3.93 ^b	1.14
	사각형	3.12 ^d	1.06	3.53 ^c	1.42	3.72 ^c	1.03	3.13 ^c	.87
	마름모형	3.68 ^{ab}	1.08	4.40 ^b	1.33	4.35 ^a	1.08	3.95 ^b	1.14
	장방형	3.50 ^{bc}	1.09	3.56 ^c	1.32	3.78 ^c	1.06	3.24 ^c	.98
	역삼각형	3.84 ^a	1.04	4.19 ^b	1.18	3.99 ^{bc}	1.20	3.93 ^b	1.05
	F	9.316**		21.408**		6.765**		24.113**	
메이크업	노메이크업	3.20 ^c	1.05	4.11 ^{bc}	1.52	4.33 ^a	1.10	3.67 ^{bc}	1.05
	피부메이크업	3.48 ^b	.99	4.31 ^b	1.44	4.40 ^a	1.05	3.75 ^b	1.08
	입술메이크업	3.46 ^b	1.07	3.97 ^c	1.30	3.60 ^b	1.15	3.46 ^c	1.03
	볼메이크업	3.69 ^b	1.18	4.66 ^a	1.40	4.23 ^a	1.16	4.22 ^a	1.35
	눈메이크업	4.00 ^a	.98	4.01 ^{bc}	1.12	3.74 ^b	.94	3.67 ^{bc}	.93
	F	10.686**		6.610**		14.637**		10.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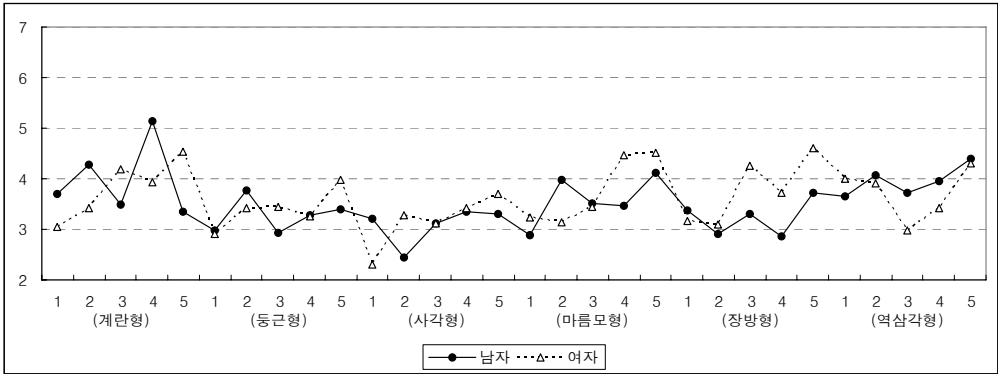
* p < .05 ** p < .01

a>b>c>d : Duncan test

<표 21> 메이크업 이미지에 대한 3원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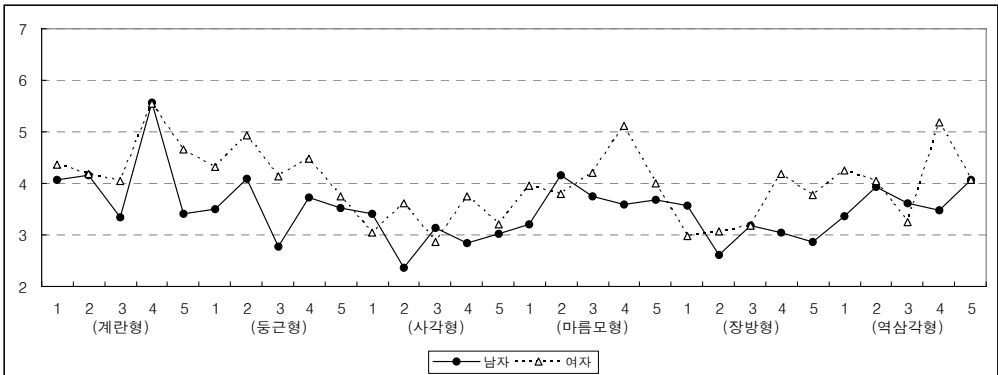
얼굴형	메이크업	세련성		온유성		품위성		성숙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란형	노메이크업	3.69	3.04	4.67	5.17	4.60	4.93	4.08	4.36
	피부메이크업	4.28	3.41	4.70	5.07	4.35	4.92	4.15	4.18
	입술메이크업	3.49	4.19	3.87	4.67	3.35	3.98	3.33	4.05
	볼메이크업	5.14	3.94	6.17	5.90	5.10	5.05	5.58	5.55
	눈메이크업	3.36	4.54	3.46	4.07	3.28	3.70	3.41	4.65
둥근형	노메이크업	2.98	2.90	5.30	4.70	4.14	4.43	3.50	4.33
	피부메이크업	3.78	3.43	4.83	5.43	4.85	5.03	4.10	4.93
	입술메이크업	2.93	3.45	4.20	4.50	3.83	3.68	2.78	4.13
	볼메이크업	3.28	3.25	4.96	5.06	4.25	4.27	3.72	4.48
	눈메이크업	3.40	3.98	4.60	4.40	3.80	3.65	3.53	3.75
사각형	노메이크업	3.21	2.31	2.83	2.48	3.88	4.03	3.40	3.05
	피부메이크업	2.44	3.29	3.83	4.03	3.70	4.38	2.38	3.63
	입술메이크업	3.11	3.12	3.44	3.38	3.50	3.00	3.14	2.88
	볼메이크업	3.35	3.42	3.47	4.90	3.95	4.20	2.85	3.75
	눈메이크업	3.29	3.69	3.20	3.67	3.00	3.55	3.03	3.20
마름모형	노메이크업	2.89	3.23	3.50	4.40	4.38	4.65	3.21	3.95
	피부메이크업	3.98	3.14	5.17	3.70	4.50	4.35	4.15	3.80
	입술메이크업	3.51	3.45	4.70	4.07	3.95	4.13	3.75	4.20
	볼메이크업	3.48	4.47	4.30	4.60	4.78	4.45	3.60	5.13
	눈메이크업	4.11	4.51	4.73	4.87	4.03	4.25	3.68	4.00
장방형	노메이크업	3.38	3.16	4.33	3.63	3.90	4.63	3.57	2.98
	피부메이크업	2.91	3.09	3.27	2.77	3.63	3.80	2.61	3.08
	입술메이크업	3.30	4.25	3.77	3.60	3.75	3.75	3.18	3.18
	볼메이크업	2.86	3.73	2.93	4.60	3.03	4.35	3.05	4.18
	눈메이크업	3.73	4.60	3.07	3.60	3.20	3.75	2.87	3.78
역삼각형	노메이크업	3.66	3.99	4.33	3.87	4.35	4.05	3.38	4.25
	피부메이크업	4.08	3.91	4.90	4.03	4.55	4.73	3.93	4.05
	입술메이크업	3.71	2.98	3.60	3.80	3.40	2.90	3.63	3.25
	볼메이크업	3.96	3.41	4.30	4.73	3.63	3.70	3.48	5.18
	눈메이크업	4.40	4.30	4.27	4.03	4.48	4.08	4.08	4.08
F		1.995**		1.468		.586		2.314**	

* p < .05 ** p < .01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5> 세련성의 3원 상호작용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6> 성숙성의 3원 상호작용

3. 얼굴형태 지각 분석

1) 얼굴형태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의 차이와 주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를 보면 얼굴의 길이, 각진 정도, 윤곽의 지각차이에 관여하는 변인은 얼굴형이고 얼굴의 폭과 크기의 차이에는 얼굴형과 성별이 변인으로 작용한다. 얼굴의 입체적인 정도 차이의 변인은 얼굴형과 메이크업이며, 얼굴의 조화로운 정도차이에 관여하는 변인은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메이크업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얼굴로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여성과 남성이 얼굴의 폭과 크기, 조화로운 지각하는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에서 주효과 검증으로 지각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얼굴 폭을 넓게, 얼굴의 크기를 크게, 조화롭지 않게 지각하는 성별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얼굴의 길이와 각진 정도, 윤곽, 입체적인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얼굴형은 계란형이 작고 입체감 있고 조화로운 얼굴로 지각되며 둥근형은 짧고 각이 완만한 얼굴로 지각되었다. 또한 사각형은 얼굴폭이 넓고 각지게, 역삼각형은 각지고 가름하게 마름모형은 각지면서 윤곽이 또렷하게, 장방형은 좁고, 길게 평가되었다. 불과 눈 메이크업을 할 때는 모든 얼굴형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조화롭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사각형은 얼굴이 넓고 각지게, 둥근형은 얼굴이 넓고, 짧고, 완만하게, 장방형은 얼굴이 좁고 길게, 마름모형은 얼굴이 각지고 윤곽이 또렷하게, 역삼각형은 가름하고 각지게, 계란형은 얼굴이 가름하고 윤곽

이 또렷하고 입체적이고 조화롭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 메이크업을 할 때 보다 볼과 눈 메이크업 시 얼굴을 조화롭고 입체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눈과 볼 메이크업을 얼굴형에 맞게 적용하면 입체감 있고 조화로운 얼굴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적 미인형에 기준이 되는 조화롭고 입체감 있는 얼굴표현을 위해 얼굴형에 따라 다양한 수정 메이크업을 제시한 김경순¹³⁹⁾의 연구와 일치하며, 얼굴유형의 개성을 살려 외적 형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정 메이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경화, 김정희¹⁴⁰⁾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넓고 각지게 지각되는 사각형의 경우, 볼 메이크업을 양옆 볼에 둥근 느낌으로 적용하고, 양쪽 각진 턱뼈 부분에 약간 어두운 톤의 피부 메이크업을 하여 얼굴폭은 좁게 보이도록 하고, 각진 턱은 부드럽게 보이도록 변화를 준다.

둥근형은 넓고, 짧고, 아래 턱각이 완만하므로 사선방향으로 볼 메이크업을 하여 얼굴의 폭과 길이에 수정효과를 준다.

마름모형은 각지고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므로 이마와 턱 끝에 밝은 톤의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광대뼈 부위를 감싸듯이 볼 메이크업을 하여 각진 얼굴을 부드럽게 한다.

좁고 긴 장방형은 눈 메이크업을 길고 뚜렷하게 하고, 볼 메이크업은 가로방향으로 하여 얼굴폭은 넓게, 길이는 짧아 보이도록 유도한다.

역삼각형은 각지고 가름하게 보이므로 턱 부위에 밝은 톤의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볼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하여 각진 얼굴을 완화시키며 얼굴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수정하여 줄 수 있다.

얼굴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24>에 제시되어

139) 김경순, op. cit., pp. 81-89.

140) 이경화, 김정희, op. cit., pp. 1487-1499.

있으며, 분석 결과 효과가 있는 하위항목은 얼굴의 길이, 크기, 입체감, 조화로우므로 나타났다.

<그림 7>의 얼굴길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등근형은 피부 메이크업이나 노 메이크업 시 얼굴이 짧아 보인다고 지각하며, 부분메이크업을 하였을 때 노 메이크업 보다 얼굴을 길게 지각하여 덜 동그랗게 지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굴형이 긴 장방형도 입과 볼 메이크업 시 얼굴이 짧게 지각되므로 볼과 입의 가로방향의 메이크업이 얼굴을 짧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나타난 얼굴크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역삼각형은 남성, 여성 모두 메이크업 시 얼굴이 작게 지각되어 이마가 넓어서 상안이 커 보이는 역삼각형의 얼굴형을 메이크업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림 9>의 얼굴 입체감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남성이 마름모형과 역삼각형에서, 여성이 장방형과 계란형에서 피부 메이크업 시 평면적으로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체감 있는 얼굴은 돌출부위인 눈, 코, 입의 뚜렷한 인상에서 비롯되며, 얼굴 부위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얼굴의 조화로우에 따른 3원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 위해 <그림 10>을 보면, 여성은 계란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에서, 남성은 계란형에서 볼 메이크업 시 조화롭게 보인다고 평가였다. 그러므로 얼굴폭이 넓거나 좁은 얼굴형에서도 볼 메이크업이 조화롭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등근형, 사각형에서 남성이 역삼각형에서 눈 메이크업이 조화롭게 보인다고 평가하여 얼굴폭이 넓은 얼굴형은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조화롭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등근형과 장방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은 피부 메이크업이나 입 메이크업이 조화롭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부분 포인트가 없는

피부 메이크업이나 입술만 강조한 메이크업은 조화롭지 못하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얼굴이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서는 피부 메이크업만 하는 것 보다 포인
트 메이크업을 같이 적용하여 얼굴에 입체감을 더해야 할 것이다

<표 22>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 차이

종속변수	효과	변량원	SS	df	MS	F	R ²
1.얼굴의 폭	주효과	성별(A)	33.398	1	33.398	17.300**	.501
		얼굴형(B)	779.352	5	155.870	80.740**	
		메이크업(C)	12.235	4	3.059	1.584	
	상호 작용 효과	A×B	51.132	5	10.226	5.297**	
		A×C	3.000	4	.750	.388	
		B×C	56.515	20	2.826	1.464	
		A×B×C	36.934	20	1.847	.957	
2.얼굴의 길이	주효과	성별(A)	3.951	1	3.951	2.069	.276
		얼굴형(B)	152.363	5	30.473	15.953**	
		메이크업(C)	4.986	4	1.247	.653	
	상호 작용 효과	A×B	43.141	5	8.628	4.517**	
		A×C	17.408	4	4.352	2.278	
		B×C	64.473	20	3.224	1.688*	
		A×B×C	80.660	20	4.033	2.111**	
3.얼굴의 각	주효과	성별(A)	.610	1	.610	.245	.233
		얼굴형(B)	192.765	5	38.553	15.470**	
		메이크업(C)	11.431	4	2.858	1.147	
	상호 작용 효과	A×B	23.994	5	4.799	1.926	
		A×C	8.333	4	2.083	.836	
		B×C	69.472	20	3.474	1.394	
		A×B×C	76.155	20	3.808	1.528	
4.얼굴의 크기	주효과	성별(A)	30.595	1	30.595	16.141**	.362
		얼굴형(B)	361.946	5	72.389	38.190**	
		메이크업(C)	15.305	4	3.826	2.019	
	상호 작용 효과	A×B	9.204	5	1.841	.971	
		A×C	12.326	4	3.082	1.626	
		B×C	48.624	20	2.431	1.283	
		A×B×C	67.444	20	3.372	1.779*	
5.얼굴의 윤곽	주효과	성별(A)	2.468	1	2.468	1.170	.162
		얼굴형(B)	42.799	5	8.560	4.060**	
		메이크업(C)	8.223	4	2.056	.975	
	상호 작용 효과	A×B	10.818	5	2.164	1.026	
		A×C	13.610	4	3.403	1.614	
		B×C	83.155	20	4.158	1.972**	
		A×B×C	46.890	20	2.344	1.112	
6.얼굴의 입체감	주효과	성별(A)	.002	1	.002	.001	.216
		얼굴형(B)	91.477	5	18.295	9.393**	
		메이크업(C)	48.628	4	12.157	6.241**	
	상호 작용	A×B	4.572	5	.914	.469	
		A×C	10.227	4	2.557	1.313	

	효과	B×C	39.590	20	1.979	1.016	
		A×B×C	71.722	20	3.586	1.841*	
7.얼굴의 조화로우음	주효과	성별(A)	9.933	1	9.933	5.805*	
		얼굴형(B)	59.275	5	11.855	6.929**	
		메이크업(C)	25.299	4	6.325	3.697**	
	상호 작용 효과	A×B	7.515	5	1.503	.878	.232
		A×C	16.361	4	4.090	2.391*	
		B×C	76.647	20	3.832	2.240**	
		A×B×C	66.709	20	3.335	1.950**	
8.얼굴의 광대	주효과	성별(A)	.073	1	.073	.027	
		얼굴형(B)	25.874	5	5.175	1.939	
		메이크업(C)	9.621	4	2.405	.901	
	상호 작용 효과	A×B	42.553	5	8.511	3.189**	.150
		A×C	54.711	4	13.678	5.125**	
		B×C	57.150	20	2.857	1.071	
		A×B×C	44.318	20	2.216	.830	

* p < .05 ** p < .01

<표 23>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형태 지각 주효과 검증

구 분	얼굴형태	1.얼굴의 폭	2.얼굴의 길이	3.얼굴의 각	4.얼굴의 크기	5.얼굴의 윤곽	6.얼굴의 입체감	7.얼굴의 조화로움	8.얼굴의 광대
성별	남	4.74	3.92	4.63	4.62	4.12	4.44	4.32	4.62
	여	4.23	3.71	4.62	4.19	3.97	4.41	4.07	4.62
	F	17.300*	2.069	.245	16.141**	1.170	.001	5.805*	.027
얼굴형	계란형	3.82 ^c	3.58 ^{bc}	4.76 ^{bc}	3.71 ^{de}	3.81 ^b	3.79 ^c	3.71 ^c	4.37
	둥근형	5.79 ^a	3.32 ^c	5.48 ^a	5.06 ^b	4.45 ^a	4.74 ^a	4.34 ^b	4.94
	사각형	6.14 ^a	3.91 ^b	3.84 ^e	5.68 ^a	4.31 ^a	5.05 ^a	4.78 ^a	4.36
	마름모형	4.62 ^b	3.46 ^{bc}	5.07 ^b	4.08 ^d	3.77 ^b	4.06 ^{bc}	3.85 ^c	4.50
	장방형	3.50 ^c	4.93 ^a	4.38 ^{cd}	4.51 ^c	4.14 ^{ff}	4.71 ^a	4.42 ^{ab}	4.84
	역삼각형	3.00 ^d	3.67 ^{bc}	4.22 ^d	3.34 ^e	3.76 ^b	4.18 ^b	4.06 ^{bc}	4.70
	F	80.740**	15.953**	15.470**	38.190**	4.060**	9.393**	6.929**	1.939
메이크업	노메이크업	4.68	3.75	4.45	4.40	4.15	4.62 ^a	4.22 ^{ab}	4.83
	피부메이크업	4.52	3.92	4.68	4.66	4.23	4.80 ^a	4.40 ^{ab}	4.63
	입술메이크업	4.59	3.87	4.52	4.43	3.98	4.59 ^a	4.43 ^a	4.56
	볼메이크업	4.30	3.74	4.83	4.21	3.98	4.03 ^b	3.89 ^c	4.45
	눈메이크업	4.34	3.79	4.66	4.31	3.88	4.11 ^b	4.05 ^{bc}	4.63
	F	1.584	.653	1.147	2.019	.975	6.241**	3.697**	.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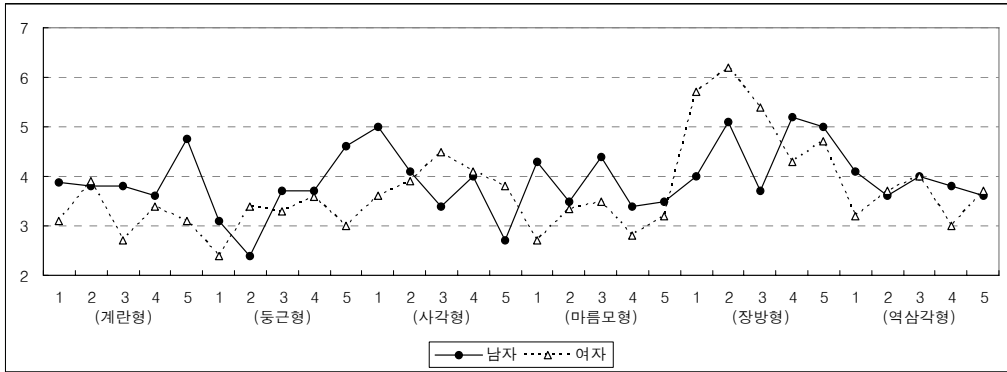
* p < .05 ** p < .01

a>b>c>d : Duncan test

<표 24> 얼굴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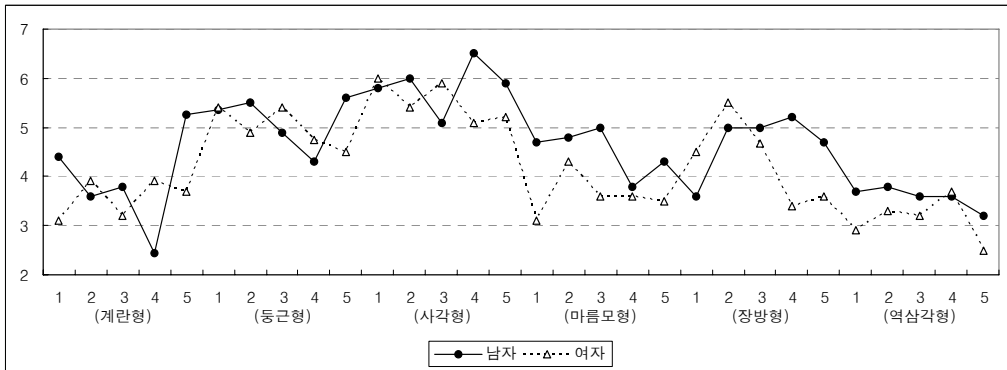
얼굴형	얼굴형태 구분 메이크업	1.얼굴의 폭		2.얼굴의 길이		3.얼굴의 각		4.얼굴의 크기		5.얼굴의 윤곽		6.얼굴의 입체감		7.얼굴의 조화로우음		8.얼굴의 광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란형	노메이크업	4.50	3.10	3.89	3.10	4.40	4.60	4.40	3.10	4.00	3.50	3.89	4.00	3.80	3.40
	피부메이크업	4.50	4.00	3.80	3.90	5.00	5.30	3.60	3.90	4.00	4.20	3.80	4.30	4.00	3.80	4.40	4.90
	입술메이크업	4.10	3.90	3.80	2.70	4.50	5.50	3.80	3.20	3.60	3.56	3.44	4.10	3.67	3.90	4.00	4.90
	볼메이크업	2.90	3.00	3.60	3.40	3.90	5.40	2.44	3.90	3.22	3.90	3.10	3.10	2.40	3.30	4.80	3.50
	눈메이크업	4.50	3.80	4.75	3.10	4.88	4.10	5.25	3.70	4.50	3.70	5.00	3.40	5.50	3.70	4.50	4.00
등근형	노메이크업	6.36	6.50	3.09	2.40	5.45	5.80	5.36	5.40	4.91	4.60	5.64	5.10	4.55	4.40	5.09	6.30
	피부메이크업	5.70	6.00	2.40	3.40	6.00	5.40	5.50	4.90	4.90	3.90	5.50	4.80	4.90	3.90	4.00	6.10
	입술메이크업	5.70	5.80	3.70	3.30	4.90	6.30	4.90	5.40	4.40	4.70	3.70	5.20	4.33	4.70	4.10	5.60
	볼메이크업	5.60	5.08	3.70	3.58	5.30	4.42	4.30	4.75	4.20	4.00	4.89	3.75	4.60	3.75	5.20	3.33
	눈메이크업	5.70	5.50	4.60	3.00	5.70	5.70	5.60	4.50	4.70	4.20	4.50	4.40	4.70	3.70	5.10	4.90
사각형	노메이크업	5.60	7.00	5.00	3.60	4.50	1.80	5.80	6.00	5.00	4.90	5.20	5.90	5.10	5.50	5.20	4.80
	피부메이크업	6.60	6.00	4.10	3.90	4.60	3.90	6.00	5.40	3.60	4.10	5.30	5.00	4.00	4.50	3.60	3.60
	입술메이크업	5.70	6.00	3.40	4.50	3.89	2.90	5.10	5.89	4.67	3.00	4.90	4.80	5.00	4.10	4.50	4.50
	볼메이크업	6.80	6.00	4.00	4.10	4.50	5.00	6.50	5.10	4.50	3.78	5.33	4.60	4.90	5.10	4.90	4.00
	눈메이크업	5.90	5.80	2.70	3.80	3.80	3.50	5.90	5.20	5.22	4.40	5.10	4.40	5.50	4.10	4.20	4.30
마름모형	노메이크업	5.10	4.50	4.30	2.70	4.40	5.50	4.70	3.11	3.70	3.30	4.22	3.89	3.50	3.20	4.20	4.40
	피부메이크업	4.90	5.00	3.50	3.33	4.80	5.00	4.80	4.30	4.10	4.30	5.20	4.00	5.10	4.00	4.80	4.30
	입술메이크업	5.40	4.30	4.40	3.50	5.30	5.00	5.00	3.60	3.90	4.67	4.00	4.90	4.10	4.78	4.90	4.20
	볼메이크업	3.60	4.80	3.40	2.80	4.60	5.30	3.80	3.60	3.90	3.10	3.80	3.60	4.00	3.00	5.10	4.20
	눈메이크업	4.40	4.20	3.50	3.20	5.00	5.80	4.30	3.50	3.60	3.20	3.30	3.67	3.80	3.10	4.50	4.40
장방형	노메이크업	4.00	2.40	4.00	5.70	4.60	4.50	3.60	4.50	4.00	4.70	4.40	5.10	3.89	4.80	5.10	5.20
	피부메이크업	3.70	2.30	5.10	6.20	4.10	3.90	5.00	5.50	5.00	4.50	4.80	5.70	4.44	5.60	4.40	5.70
	입술메이크업	4.80	3.20	3.70	5.40	3.50	4.60	5.00	4.67	2.90	4.50	6.00	4.40	5.10	4.40	3.60	5.50
	볼메이크업	4.50	2.90	5.20	4.30	4.50	4.80	5.20	3.40	4.70	4.60	4.10	4.30	4.60	3.60	4.70	4.50
	눈메이크업	4.60	2.60	5.00	4.70	4.70	4.60	4.70	3.60	3.20	3.30	4.20	4.10	4.00	3.70	4.20	5.50
역삼각형	노메이크업	4.00	2.90	4.10	3.20	4.00	3.70	3.70	2.90	3.50	3.40	3.90	3.90	4.00	4.40	4.80	4.20
	피부메이크업	3.10	2.40	3.60	3.70	4.00	4.20	3.78	3.30	3.90	4.20	4.20	5.00	4.80	3.80	4.80	5.00
	입술메이크업	3.60	2.60	4.00	4.00	4.10	3.70	3.60	3.20	3.80	4.20	4.40	5.10	4.00	5.10	4.70	4.20
	볼메이크업	3.30	3.00	3.80	3.00	5.30	5.00	3.60	3.70	4.00	3.70	4.00	4.00	4.20	3.20	5.20	4.20
	눈메이크업	2.90	2.20	3.60	3.70	4.60	3.60	3.20	2.50	3.80	3.00	3.40	4.00	3.40	3.70	4.80	5.10
F		.957		2.111**		1.528		1.779*		1.112		1.841*		1.950**		.83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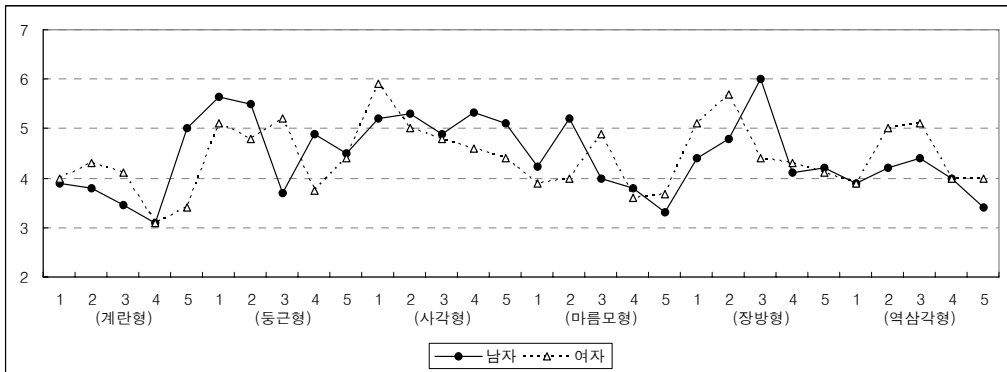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7> 얼굴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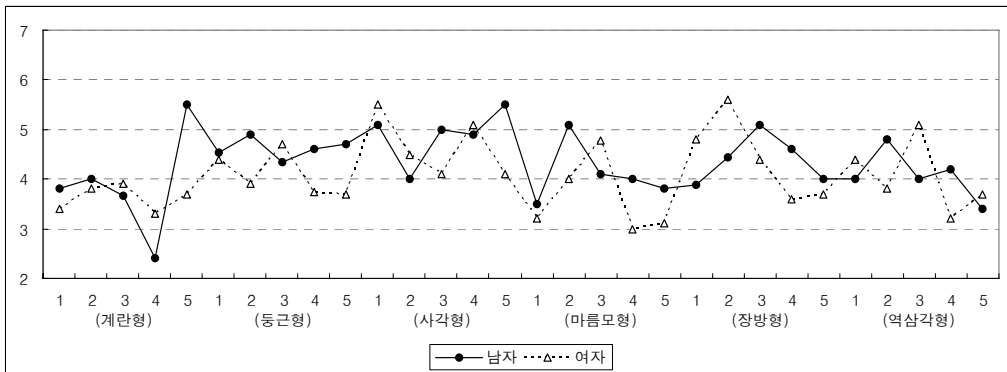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8> 얼굴의 크기에 따른 3원 상호작용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9> 얼굴의 입체감에 따른 3원 상호작용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0> 얼굴의 조화로우에 따른 3원 상호작용

2) 눈형태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눈형태 지각의 차이와 주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를 보면 눈의 크기, 눈썹의 선명함, 눈의 길이 차이의 변인은 얼굴형과 메이크업이며, 눈의 또렷함의 차이에 작용하는 변인은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눈의 크기와 길이, 또렷함과 선명함은 얼굴형과 메이크업에 따라 지각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의 날카로움, 높이, 눈꼬리 경사도는 얼굴형이 변인으로 얼굴형에 따라 지각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의 크기, 또렷함, 날카로움, 길이, 높이 등은 모두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간의 3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의 형태지각에 있어서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의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6>의 눈형태 지각차이의 주효과에서 보면, 눈의 크기는 사각형의 얼굴이 가장 작게 지각되며, 눈 메이크업을 할 때 눈이 가장 크게 지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눈썹의 선명도에서는 마름모형의 얼굴이, 노 메이크업 시 선명하게 지각하였다. 이는 눈 메이크업을 진하게 할 때는 상대적으로 눈썹이 흐리게 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눈경사도가 높은 장방형의 얼굴에서 눈 메이크업을 할 때 날카롭게 지각되어, 날카로운 이미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눈 메이크업 시 언더 웨도우에 부드럽게 포인트를 주어 날카로움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눈의 높이는 얼굴폭이 넓은 등근형이 가장 짧고 낮게, 얼굴 폭이 좁고 긴 장방형이 길고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선명함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눈을 또렷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눈의 크기는 얼굴크기가 큰 사각형에서 가장 작게 지각되며, 얼

굴폭이 넓은 둥근형의 얼굴은 눈의 길이를 가장 짧게 지각하였다. 또한 좁고 긴 장방형에서 가장 길게 지각하여 얼굴이 크면 눈이 상대적으로 작게 지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얼굴폭이 넓을수록 눈 메이크업을 할 때 눈폭이 높고, 길이는 길게 보일 수 있도록 눈꼬리와 눈 중앙부위에 포인트를 주어 눈이 커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썹의 선명도는 노 메이크업 시 선명하게 지각하며, 눈 메이크업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눈썹이 덜 선명하게 지각하며, 눈 메이크업을 할 때 눈이 크고, 뚜렷하고, 날카롭게 지각되므로 눈 메이크업으로 눈의 크기와 얼굴형을 수정 보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눈 메이크업의 적용을 연구한 이정은¹⁴¹⁾의 연구 결과와 눈 메이크업이 얼굴이미지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 김정희¹⁴²⁾, 이상은·신지현¹⁴³⁾, 강은주¹⁴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눈썹의 선명도가 눈 메이크업 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아이 라인과 아이 쉐도우의 색상이 눈썹보다 명도가 낮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명도가 약간 더 높은 눈썹이 선명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둥근형과 같이 온화한 이미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지 않을 때는 눈 메이크업 시 눈썹과 아이 쉐도우의 색이 어울리도록 하여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 지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눈을 뚜렷하게 지각하였으므로, 선명하고 아름다운 눈 메이크업이 남성에게 매력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1) 이정은, *op. cit.*, pp. 23-32.

142) 김정희 (2008), “아이 메이크업 적용을 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 눈썹과 눈의 형태 분석”, *한국미용학회지*, 14(1), pp. 210-224.

143) 이상은, 신지현 (2005), “서구 여성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눈썹형태의 특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1), pp. 77-84,

144) 강은주, *op. cit.*, pp. 31-38.

또한 미인의 눈크기와 평균여성의 눈크기 차이가 2mm 정도 된다¹⁴⁵⁾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눈의 크기가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눈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눈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7>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효과가 있는 하위항목은 눈의 크기, 선명함, 날카로움, 길이 및 높이로 나타났다.

<그림 11>에서 나타난 눈의 크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장방형, 역삼각형에서 눈 메이크업 시 눈이 커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볼 메이크업 시에도 눈이 커 보인다고 하여, 눈과 볼 메이크업 시 눈이 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에서 나타난 눈의 선명함에 대한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둥근형, 사각형, 장방형, 역삼각형에서 눈 메이크업 시 눈이 또렷해 보인다고 평가하였고, 입 메이크업과 피부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시 눈이 희미해 보인다고 평가하여, 입술이 진한 경우, 메이크업을 하지 않거나 피부만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눈의 윤곽이 희미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에서 나타난 눈의 날카로움에 대한 평가에서, 둥근형에서 남녀 모두 눈 메이크업 시 눈이 날카롭게 보인다고 평가하여, 눈 메이크업이 둥그란 얼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의 눈의 길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역삼각형과 둥근 얼굴형에서 남녀 모두 눈 메이크업 시 눈이 길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입 메이크업 시에도 눈이 길어 보인다고 하여, 가로 선을 강조하는 입과 눈 메이크업이 눈 길이를 길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눈의 높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그림 15>에서 보면, 둥근형, 마름모형, 역삼

145) 박종섭 외 3인 (1990), "한국인의 안선호 경향에 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pp. 196-200.

각형, 장방형, 계란형 얼굴에서 남녀 모두 눈 메이크업 시 눈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여, 눈 메이크업이 눈의 높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눈의 형태지각에 부위별 메이크업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볼 메이크업 시 상대적으로 얼굴폭이 좁아 보여서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눈의 크기와 선명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눈 메이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매력적인 눈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5>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눈형태 지각 차이

종속변수	효과	변량원	SS	df	MS	F	R ²
1.눈의 크기	주효과	성별(A)	5.505	1	5.505	3.131	.223
		얼굴형(B)	37.712	5	7.542	4.289**	
		메이크업(C)	66.987	4	16.747	9.524**	
	상호	A×B	2.689	5	.538	.306	
	작용	A×C	15.259	4	3.815	2.169	
	효과	B×C	62.290	20	3.115	1.771*	
		A×B×C	73.614	20	3.681	2.093**	
2.눈의 또렷함	주효과	성별(A)	14.067	1	14.067	8.036**	.303
		얼굴형(B)	44.409	5	8.882	5.074**	
		메이크업(C)	131.217	4	32.804	18.739**	
	상호	A×B	21.707	5	4.341	2.480*	
	작용	A×C	23.676	4	5.919	3.381**	
	효과	B×C	76.553	20	3.828	2.187**	
		A×B×C	76.405	20	3.820	2.182**	
3.눈썹의 선명함	주효과	성별(A)	2.165	1	2.165	1.256	.402
		얼굴형(B)	171.446	5	34.289	19.892**	
		메이크업(C)	202.303	4	50.576	29.340**	
	상호	A×B	33.509	5	6.702	3.888*	
	작용	A×C	14.654	4	3.663	2.125	
	효과	B×C	119.431	20	5.972	3.464**	
		A×B×C	51.310	20	2.565	1.488	
4.눈의 날카로움	주효과	성별(A)	.830	1	.830	.398	.266
		얼굴형(B)	180.447	5	36.089	17.328**	
		메이크업(C)	38.883	4	9.721	4.667**	
	상호	A×B	13.807	5	2.761	1.326	
	작용	A×C	5.904	4	1.476	.709	
	효과	B×C	64.859	20	3.243	1.557	
		A×B×C	79.810	20	3.991	1.916**	
5.눈의 길이	주효과	성별(A)	.862	1	.862	.534	.312
		얼굴형(B)	206.781	5	41.356	25.599**	
		메이크업(C)	20.422	4	5.105	3.160*	
	상호	A×B	39.032	5	7.806	4.832**	
	작용	A×C	10.755	4	2.689	1.664	
	효과	B×C	41.524	20	2.076	1.285	
		A×B×C	58.220	20	2.911	1.802*	
6.눈의 높이	주효과	성별(A)	3.932	1	3.932	2.629	.166
		얼굴형(B)	17.265	5	3.453	2.308*	
		메이크업(C)	12.085	4	3.021	2.020	
	상호	A×B	13.170	5	2.634	1.761	
	작용	A×C	8.988	4	2.247	1.502	
	효과	B×C	34.250	20	1.712	1.145	

		A×B×C	67.421	20	3.371	2.254**	
		성별(A)	5.938	1	5.938	2.989	
	주효과	얼굴형(B)	75.753	5	15.151	7.628**	
		메이크업(C)	9.712	4	2.428	1.222	
7.눈꼬리의 위치	상호 작용 효과	A×B	18.048	5	3.610	1.817	.186
		A×C	11.157	4	2.789	1.404	
		B×C	61.405	20	3.070	1.546	
		A×B×C	51.708	20	2.585	1.302	

* p < .05 ** p < .01

<표 26>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눈형태 지각 주효과 검증

구 분	눈형태	1.눈의 크기	2.눈의 또렷함	3.눈썹의 선명함	4.눈의 날카로움	5.눈의 길이	6.눈의 높이	7.눈꼬리의 위치
	성별	남	3.90	3.65	3.66	4.13	4.05	4.08
여		4.04	3.91	3.54	4.20	4.11	3.93	4.03
F		3.131	8.036**	1.256	.398	.534	2.629	2.989
얼굴형	계란형	4.00 ^{ab}	3.94 ^b	3.55 ^c	4.78 ^a	4.35 ^b	4.16 ^a	4.67 ^a
	등근형	3.68 ^b	3.49 ^b	4.22 ^a	4.70 ^{ab}	4.86 ^a	4.23 ^a	4.43 ^{ab}
	사각형	4.19 ^a	3.94 ^b	4.06 ^{ab}	3.95 ^c	3.79 ^c	3.99 ^{ab}	4.16 ^{bc}
	마름모형	3.60 ^b	3.31 ^b	2.48 ^d	4.35 ^{bc}	4.36 ^b	3.98 ^{ab}	4.19 ^{bc}
	장방형	4.21 ^a	4.05 ^a	3.70 ^{bc}	3.12 ^d	2.95 ^d	3.70 ^b	3.82 ^{cd}
	역삼각형	4.17 ^a	3.95 ^a	3.59 ^c	4.11 ^c	4.14 ^b	3.97 ^{ab}	3.60 ^d
	F	4.289**	5.074**	19.892**	17.328**	25.599**	2.308*	7.628**
메이크업	노메이크업	4.07 ^a	3.89 ^a	4.73 ^a	4.30 ^a	4.22 ^a	4.18	4.23
	피부메이크업	4.10 ^a	4.00 ^a	3.45 ^b	4.28 ^a	4.16 ^a	4.05	4.15
	입술메이크업	4.33 ^a	4.17 ^a	3.44 ^b	4.27 ^a	4.06 ^a	4.08	4.31
	볼메이크업	4.01 ^a	3.95 ^a	3.36 ^{bc}	4.33 ^a	4.28 ^a	3.98	4.09
	눈메이크업	3.34 ^b	2.86 ^b	3.02 ^c	3.63 ^b	3.67 ^b	3.74	3.94
	F	9.524**	18.739**	29.340**	4.667**	3.160*	2.020	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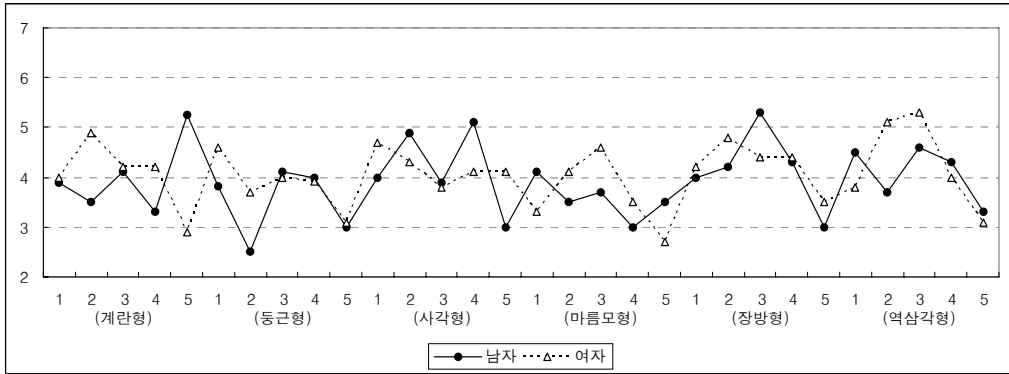
* p < .05 ** p < .01

a>b>c>d : Duncan test

<표 27> 눈형태 시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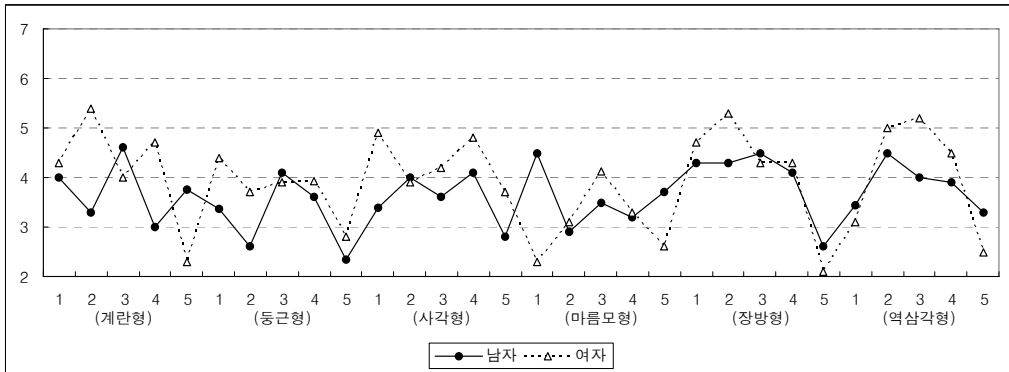
얼굴형	눈형태 구분 메이크업	1.눈의 크기		2.눈의 또렷함		3.눈썹의 선명함		4.눈의 날카로움		5.눈의 길이		6.눈의 높이		7.눈꼬리의 위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란형	노메이크업	3.90	4.00	4.00	4.30	4.50	4.50	4.40	4.80	4.00	4.60	4.00	4.40
	피부메이크업	3.50	4.90	3.30	5.40	3.60	3.90	4.60	5.10	4.30	4.70	4.40	4.40	4.60	4.70
	입술메이크업	4.10	4.20	4.60	4.00	3.60	3.40	4.20	5.80	4.30	4.70	3.90	4.40	4.30	5.50
	볼메이크업	3.30	4.20	3.00	4.70	2.20	3.20	5.00	5.70	3.89	4.80	3.30	4.50	4.20	5.00
	눈메이크업	5.25	2.90	3.75	2.30	3.88	2.80	4.71	3.50	4.13	4.00	4.75	3.70	5.25	4.20
등근형	노메이크업	3.82	4.60	3.36	4.40	5.45	5.80	5.27	5.50	4.64	6.00	4.45	5.30	5.09	5.20
	피부메이크업	2.50	3.70	2.60	3.70	3.00	4.10	4.70	5.50	4.60	5.30	4.10	4.10	4.20	4.70
	입술메이크업	4.10	4.00	4.10	3.90	4.70	4.50	4.56	4.80	4.90	5.40	4.78	4.30	5.40	4.10
	볼메이크업	4.00	3.92	3.60	3.92	4.50	4.33	5.20	4.75	5.00	4.75	4.60	4.00	4.70	3.83
	눈메이크업	3.00	3.10	2.33	2.80	2.60	2.89	3.10	3.50	3.70	4.40	3.20	3.50	3.60	3.50
사각형	노메이크업	4.00	4.70	3.40	4.90	5.60	6.10	3.40	4.00	4.00	3.70	4.44	3.80	4.20	3.30
	피부메이크업	4.90	4.30	4.00	3.90	3.90	3.10	4.10	4.00	4.50	3.50	4.10	3.30	4.20	3.20
	입술메이크업	3.90	3.80	3.60	4.20	4.40	2.60	4.40	4.10	3.10	3.40	4.10	3.80	4.40	4.00
	볼메이크업	5.10	4.10	4.10	4.80	4.20	4.00	4.50	3.70	5.10	3.20	4.67	3.60	4.90	4.20
	눈메이크업	3.00	4.10	2.80	3.70	3.30	3.40	3.50	3.80	3.70	3.70	4.30	3.90	5.20	4.00
마름모형	노메이크업	4.10	3.30	4.50	2.30	3.80	1.50	3.80	5.10	3.80	4.70	4.50	4.10	4.70	4.20
	피부메이크업	3.50	4.10	2.90	3.10	2.30	2.60	4.40	4.40	4.20	4.60	3.56	4.90	4.10	4.70
	입술메이크업	3.70	4.60	3.50	4.11	2.60	2.50	3.90	5.10	4.00	5.44	4.10	3.89	3.80	4.67
	볼메이크업	3.00	3.50	3.20	3.30	2.60	1.70	4.40	4.30	4.50	4.60	3.90	4.00	4.10	4.00
	눈메이크업	3.50	2.70	3.70	2.60	3.56	1.80	4.22	3.90	4.30	3.44	3.40	3.40	4.10	3.60
장방형	노메이크업	4.00	4.20	4.30	4.70	5.00	5.20	4.30	3.00	4.60	2.44	3.70	3.10	3.70	4.22
	피부메이크업	4.20	4.80	4.30	5.30	3.30	4.20	3.10	2.70	3.60	2.20	3.40	4.20	4.00	4.60
	입술메이크업	5.30	4.40	4.50	4.30	2.40	3.20	3.70	2.10	2.50	2.50	5.10	2.70	4.70	2.80
	볼메이크업	4.30	4.40	4.10	4.30	3.80	3.90	2.90	3.80	3.00	3.30	3.20	4.40	3.50	4.20
	눈메이크업	3.00	3.50	2.60	2.10	3.10	2.90	2.70	2.90	2.90	2.40	3.80	3.40	3.60	2.90
역삼각형	노메이크업	4.50	3.80	3.44	3.10	4.40	4.80	4.78	3.20	4.00	3.90	4.60	3.70	4.10	2.90
	피부메이크업	3.70	5.10	4.50	5.00	3.60	3.80	4.20	4.60	4.40	4.00	4.30	3.80	3.40	3.40
	입술메이크업	4.60	5.30	4.00	5.20	3.67	3.70	4.30	4.33	4.10	4.50	3.89	4.00	4.30	3.80
	볼메이크업	4.30	4.00	3.90	4.50	2.70	3.00	3.40	4.20	4.00	5.10	4.00	3.70	3.10	3.40
	눈메이크업	3.30	3.10	3.30	2.50	3.50	2.70	4.44	3.78	3.70	3.70	4.00	3.70	4.10	3.50
F		2.093**		2.182**		1.488		1.916**		1.802*		2.254**		1.30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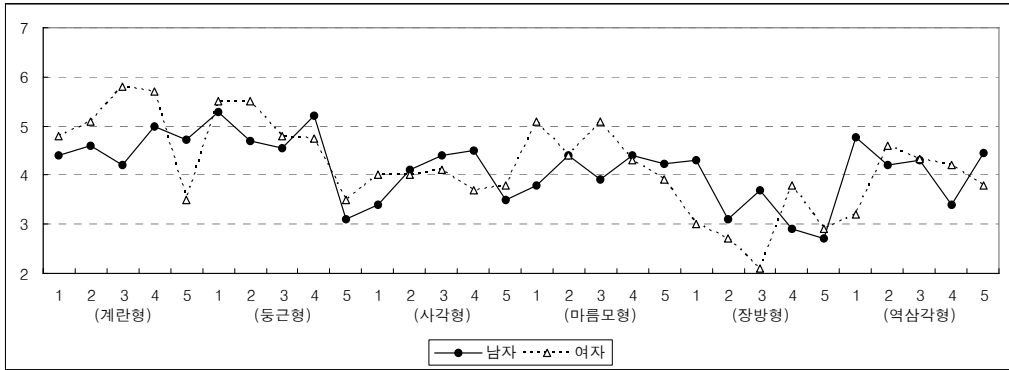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1> 눈의 크기에 따른 3원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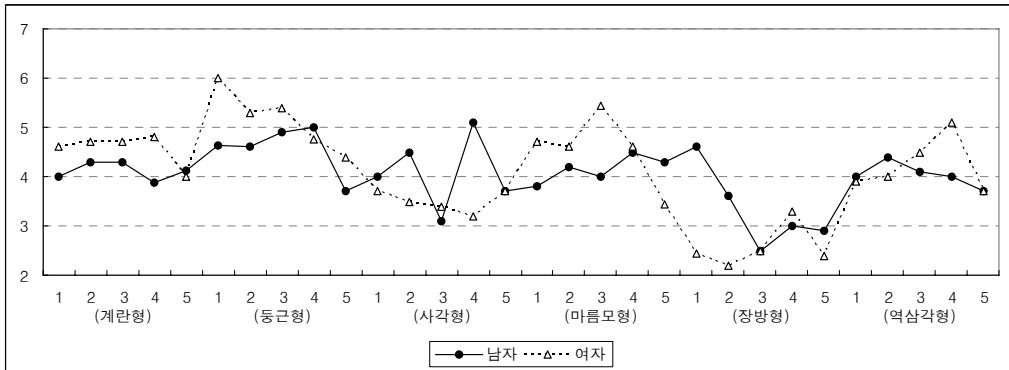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2> 눈의 선명함에 따른 3원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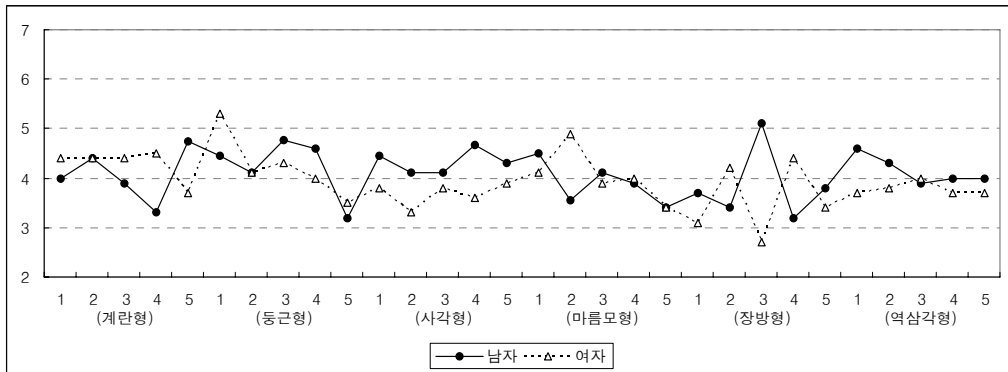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3> 눈의 날카로움에 따른 3원 상호작용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4> 눈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5> 눈의 높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3) 입형태 지각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입형태 지각의 차이와 주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을 보면 입의 선명함, 크기, 길이, 입술 두께의 지각차이에 변인은 얼굴형과 메이크업으로 나타나, 입의 형태지각에 얼굴형과 메이크업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의 길이 지각에는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 간의 3원 상호작용효과가 작용하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입의 길이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형태 지각의 주효과를 <표 29>에서 살펴보면, 입의 선명함과 크기, 길이는 입 메이크업 시 선명하고, 크고, 길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의 크기와 길이는 얼굴이 넓은 사각형의 얼굴에서 입이 작고 짧게 지각되었으며, 피부 메이크업 시 입술은 얇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형과 마름모형 얼굴형태의 입술은 조화롭게 지각되었고 사각형의 얼굴은 입술이 다른 형보다

조화롭지 못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입술을 선명하게 하는 입 메이크업 시 입이 길고,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안이 가름하여 하안폭이 좁은 계란형과 마름모형의 입술이 조화롭게 보이며, 하안이 각지고 넓은 사각형의 얼굴에서는 상대적으로 입이 작고, 짧고, 조화롭지 않게 지각되어진다. 피부 메이크업 시 입술이 얇게 지각되는 것은 입술의 윤곽 구분이 선명하지 않아 입술이 얇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의 형태를 지각하는 데에는 성별의 지각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각으로 입의 형태를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 메이크업은 입을 크게, 길게,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수정효과가 있으나, 하안이 넓은 얼굴형에 적용할 때는 오히려 넓은 하안을 강조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입 메이크업은 하안이 가름한 계란형과 마름모형에 적합하며, 사각형이나 둥근형의 얼굴에는 선명한 색보다는 연한 색을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연한 입술색이 얼굴을 넓게 보이게 하므로 진한 입술색으로 수정효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한 송미영¹⁴⁶⁾의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 실제 얼굴에 직접 적용했을 때와 컴퓨터를 이용한 얼굴 변화의 지각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입형태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0>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결과 효과가 있는 하위항목은 입의 길이로 나타났다.

입의 길이에 대해 나타난 결과를 <그림 16>에서 보면, 입 메이크업 시 입이 길어 보이는 얼굴형은 장방형, 사각형, 계란형, 역삼각형이었으며, 볼 메이크업 시 입이 길어 보이는 얼굴형은 둥근형과 계란형이었다. 또한 피부와 노 메이크업 시 입이 짧아 보이는 얼굴형은 계란형, 둥근형, 마름모형, 장방형으

146) 송미영, op. cit., pp. 109-111.

로 입이나 볼에 부분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였을 때 입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볼 메이크업 시 얼굴이 좁아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이 길게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8>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입형태 지각 차이

종속변수	효과	변량원	SS	df	MS	F	R ²
1. 입의 선명함	주효과	성별(A)	.832	1	.832	.429	.242
		얼굴형(B)	32.819	5	6.564	3.382**	
		메이크업(C)	151.766	4	37.941	19.550**	
	상호 작용 효과	A×B	4.313	5	.863	.444	
		A×C	38.322	4	9.580	4.936**	
		B×C	62.071	20	3.104	1.599*	
		A×B×C	37.071	20	1.854	.955	
2. 입의 크기	주효과	성별(A)	2.728	1	2.728	1.510	.253
		얼굴형(B)	112.246	5	22.449	12.425**	
		메이크업(C)	92.822	4	23.205	12.843**	
	상호 작용 효과	A×B	17.450	5	3.490	1.932	
		A×C	17.837	4	4.459	2.468*	
		B×C	59.253	20	2.963	1.640*	
		A×B×C	17.063	20	.853	.472	
3. 입의 길이	주효과	성별(A)	2.115	1	2.115	1.411	.220
		얼굴형(B)	78.078	5	15.616	10.417**	
		메이크업(C)	21.588	4	5.397	3.600**	
	상호 작용 효과	A×B	2.662	5	.532	.355	
		A×C	10.464	4	2.616	1.745	
		B×C	50.272	20	2.514	1.677*	
		A×B×C	57.859	20	2.893	1.930**	
4. 입 끝의 각도	주효과	성별(A)	1.958	1	1.958	1.142	.149
		얼굴형(B)	54.759	5	10.952	6.386**	
		메이크업(C)	2.613	4	.653	.381	
	상호 작용 효과	A×B	14.804	5	2.961	1.726	
		A×C	17.758	4	4.440	2.589*	
		B×C	32.732	20	1.637	.954	
		A×B×C	33.051	20	1.653	.964	
5. 입술의 두께	주효과	성별(A)	4.612	1	4.612	2.579	.205
		얼굴형(B)	99.876	5	19.975	11.172**	
		메이크업(C)	33.768	4	8.442	4.721**	
	상호 작용 효과	A×B	30.371	5	6.074	3.397**	
		A×C	2.740	4	.685	.383	
		B×C	35.762	20	1.788	1.000	
		A×B×C	35.127	20	1.756	.982	
6. 위아래 입술의 조화로움	주효과	성별(A)	2.233	1	2.233	1.140	.140
		얼굴형(B)	52.653	5	10.531	5.377**	
		메이크업(C)	13.946	4	3.487	1.780	
	상호 작용 효과	A×B	18.535	5	3.707	1.893	
		A×C	8.693	4	2.173	1.110	
		B×C	33.007	20	1.650	.843	
		A×B×C	37.736	20	1.887	.963	

* p < .05 ** p < .01

<표 29>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입형태 지각 주효과 검증

구 분	입형태	1. 입의 선명함	2. 입의 크기	3. 입의 길이	4. 입 끝의 각도	5. 입술의 두께	6. 위아래 입술의 조화로우름
성별	남	3.39	4.24	4.50	4.42	3.91	3.85
	여	3.31	4.37	4.63	4.31	4.10	3.73
	F	.429	1.510	1.411	1.142	2.579	1.140
얼굴형	계란형	3.28 ^{ab}	3.59 ^c	4.09 ^d	4.22 ^b	4.43 ^a	3.37 ^c
	둥근형	2.94 ^b	3.90 ^{bc}	4.28 ^{cd}	3.96 ^b	4.51 ^a	3.63 ^{bc}
	사각형	3.51 ^a	4.79 ^a	5.18 ^a	4.64 ^a	3.86 ^{bc}	4.20 ^a
	마름모형	3.70 ^a	4.71 ^a	4.66 ^d	4.01 ^b	3.41 ^d	3.55 ^c
	장방형	3.32 ^a	4.23 ^b	4.37 ^{bc}	4.64 ^a	4.20 ^{ab}	3.96 ^{ab}
	역삼각형	3.35 ^a	4.60 ^a	4.80 ^b	4.72 ^a	3.61 ^{cd}	4.01 ^{ab}
	F	3.382 ^{**}	12.425 ^{**}	10.417 ^{**}	6.386 ^{**}	11.172 ^{**}	5.377 ^{**}
메이크업	노메이크업	3.64 ^a	4.59 ^a	4.67 ^a	4.31	4.21 ^a	3.69
	피부메이크업	3.78 ^a	4.65 ^a	4.78 ^a	4.43	3.57 ^b	3.98
	입술메이크업	2.37 ^b	3.54 ^b	4.21 ^b	4.42	4.19 ^a	3.93
	볼메이크업	3.48 ^a	4.45 ^a	4.61 ^a	4.25	4.11 ^a	3.54
	눈메이크업	3.47 ^a	4.29 ^a	4.55 ^a	4.41	3.94 ^a	3.80
	F	19.550 ^{**}	12.843 ^{**}	3.600 ^{**}	.381	4.721 ^{**}	1.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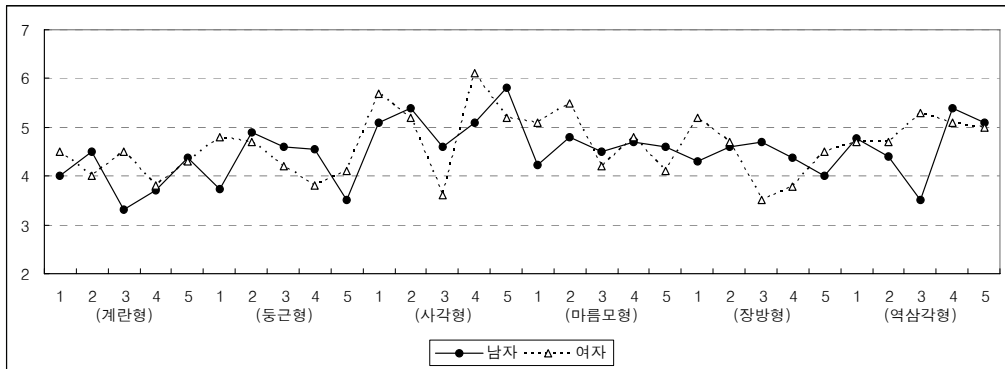
* p < .05 ** p < .01

a>b>c>d : Duncan test

<표 30> 입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얼굴형	입형태 구분 메이크업	1. 입의 뚜렷함		2. 입의 크기		3. 입의 길이		4. 입 끝의 각도		5. 입술의 두께		6. 위아래 입술의 조화로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란형	노메이크업	3.50	4.10	4.00	4.20	4.00	4.50	3.70	4.10	4.20	4.90
	피부메이크업	3.60	3.70	4.00	3.80	4.50	4.00	4.30	4.60	3.50	4.60	3.60	3.90
	입술메이크업	2.60	1.50	3.00	2.40	3.30	4.50	3.70	4.00	4.30	5.60	3.90	2.60
	볼메이크업	3.00	2.80	3.40	3.50	3.70	3.80	4.33	3.89	3.70	5.10	2.80	3.00
	눈메이크업	4.50	3.70	4.50	3.30	4.38	4.30	5.50	4.30	4.00	4.30	4.25	2.90
등근형	노메이크업	3.09	3.10	3.64	5.00	3.73	4.80	4.27	3.50	4.73	4.60	3.64	2.80
	피부메이크업	3.00	3.20	3.90	4.70	4.90	4.70	3.70	4.10	4.30	3.90	4.30	3.20
	입술메이크업	3.30	1.80	3.50	3.60	4.60	4.20	4.30	4.00	5.30	4.40	4.30	3.40
	볼메이크업	2.80	2.83	3.80	3.83	4.56	3.80	4.78	3.42	5.11	4.25	3.33	3.83
	눈메이크업	2.90	3.40	3.11	3.90	3.50	4.10	3.60	4.10	4.40	4.20	4.00	3.50
사각형	노메이크업	3.90	3.50	4.90	5.60	5.10	5.70	4.60	4.30	4.70	3.70	4.20	4.40
	피부메이크업	3.80	4.20	5.00	5.20	5.40	5.20	4.80	4.60	2.80	2.80	4.00	4.80
	입술메이크업	2.30	2.00	3.40	3.00	4.60	3.60	4.40	5.20	3.80	4.80	4.80	4.40
	볼메이크업	4.00	3.90	5.40	5.50	5.10	6.10	4.70	4.30	3.40	4.50	3.60	4.10
	눈메이크업	3.20	4.30	4.80	5.10	5.80	5.20	4.60	4.90	3.90	4.20	3.40	4.30
마름모형	노메이크업	4.10	3.00	4.50	5.20	4.22	5.10	4.50	4.00	3.60	3.60	4.10	3.10
	피부메이크업	3.80	5.00	5.30	5.80	4.80	5.50	4.50	4.30	2.20	3.30	3.40	3.50
	입술메이크업	2.70	2.70	4.00	3.70	4.50	4.20	4.40	3.70	3.90	3.33	3.60	4.30
	볼메이크업	4.20	4.20	4.80	5.00	4.70	4.80	4.50	3.10	3.78	3.50	3.40	3.10
	눈메이크업	3.60	3.70	4.10	4.70	4.60	4.10	3.90	3.20	3.80	3.10	4.00	3.00
장방형	노메이크업	3.80	4.00	4.10	5.10	4.30	5.20	4.50	5.00	4.70	4.50	3.70	3.60
	피부메이크업	4.20	4.10	4.50	4.60	4.60	4.70	4.50	4.80	3.80	4.10	3.90	5.20
	입술메이크업	2.90	1.40	4.50	3.00	4.70	3.50	5.10	4.50	3.30	4.20	3.70	3.30
	볼메이크업	3.80	3.20	4.30	3.90	4.38	3.78	4.30	4.00	4.20	4.50	3.60	4.20
	눈메이크업	2.70	3.10	4.20	4.10	4.00	4.50	4.40	5.20	3.80	4.90	4.10	4.30
역삼각형	노메이크업	4.30	3.40	4.50	4.40	4.78	4.70	4.80	4.40	3.60	3.70	3.80	4.10
	피부메이크업	3.20	3.60	4.30	4.70	4.40	4.70	4.10	4.90	3.80	3.70	4.00	3.90
	입술메이크업	3.00	2.20	4.00	4.40	3.50	5.30	4.10	5.60	3.80	3.50	4.30	4.60
	볼메이크업	3.60	3.50	4.90	5.20	5.40	5.10	5.20	4.70	3.70	3.60	4.10	3.30
	눈메이크업	2.50	4.20	4.80	4.80	5.10	5.00	4.70	4.70	3.20	3.50	4.10	3.90
F		.955		.472		1.930**		.964		.982		.963	

** p < .01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6> 입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4) 볼형태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볼형태 지각의 차이와 주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을 보면, 볼의 처짐과 볼의 길이에 얼굴형과 메이크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볼의 길이에는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이 세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볼의 길이가 지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의 볼형태 지각의 주효과에서 볼의 폭은 장방형에서 가장 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형과 역삼각형 얼굴은 볼이 올라가 보이게 지각되며 볼의 길이는 계란형이 가장 짧아 보이게 지각되어, 아이 섀도우와 아이 라인으로 눈길이가 길어지는 눈 메이크업 시에도 볼이 짧게 지각되었다.

사각형의 얼굴은 볼이 가장 크고 넓게 지각되며, 계란형, 역삼각형 얼굴은 볼을 작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얼굴폭이 좁은 장방형에서 볼이 가장 좁게, 얼굴폭이 넓은 사각형과 둥근형, 광대뼈가 발달한 마름모형에서 볼을 넓고, 크게 지각되며, 얼굴형이 조화로운 계란형의 얼굴이 볼이 작고, 짧고, 올라가 보이게 지각되었다. 볼의 윤곽을 잡아주는 볼 메이크업과 아이 웨도우와 아이 라인으로 눈길이가 길어지는 눈 메이크업 시 상대적으로 볼이 작고, 짧고, 올라가 보여서 탄력있고 보기 좋은 얼굴을 표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볼 메이크업이 여성스러움과 건강미를 표현해주며 얼굴형의 수정 및 개성표현을 위한 것이라고 한 강경화¹⁴⁷⁾와 Mason .L¹⁴⁸⁾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볼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3>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결과 효과가 있는 하위항목은 볼의 길이로 나타났다.

볼의 길이에 대해 나타난 결과를 <그림 17>에서 보면, 역삼각형에서 남녀 모두 눈 메이크업 시 볼이 짧아 보인다고 하였으며, 마름모형에서도 볼이 짧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입과 볼 메이크업은 볼이 길어 보인다고 평가하여 얼굴폭이 넓은 얼굴형일 때 눈 메이크업으로 눈의 높이와 길이를 크게 하여 볼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볼 메이크업과 입 메이크업으로 볼길이를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볼 메이크업 시 볼이 짧아 보이는 얼굴형은 사각형과 마름모형으로 나타나, 볼에 색채를 부여하여 윤곽을 주는 볼 메이크업이 볼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 메이크업 시 둥근형은 볼이 짧아 보인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둥근 얼굴을 가름하게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147) 강경화, op. cit., pp. 60-62.

148) Linda Mason, op. cit., pp. 57-61.

<표 31>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볼형태 지각 차이

종속변수	효과	변량원	SS	df	MS	F	R ²
1. 볼의 넓이	주효과	성별(A)	.948	1	.948	.442	.232
		얼굴형(B)	221.939	5	44.388	20.689**	
		메이크업(C)	15.600	4	3.900	1.818	
	상호 작용 효과	A×B	9.680	5	1.936	.902	
		A×C	6.690	4	1.672	.780	
		B×C	41.349	20	2.067	.964	
		A×B×C	50.206	20	2.510	1.170	
2. 볼의 처짐	주효과	성별(A)	.229	1	.229	.118	.165
		얼굴형(B)	57.743	5	11.549	5.963**	
		메이크업(C)	21.347	4	5.337	2.755*	
	상호 작용 효과	A×B	16.188	5	3.238	1.672	
		A×C	6.544	4	1.636	.845	
		B×C	61.902	20	3.095	1.598*	
		A×B×C	43.856	20	2.193	1.132	
3. 볼의 길이	주효과	성별(A)	2.722	1	2.722	1.516	.198
		얼굴형(B)	45.664	5	9.133	5.087**	
		메이크업(C)	25.120	4	6.280	3.498**	
	상호 작용 효과	A×B	28.281	5	5.656	3.150**	
		A×C	4.562	4	1.140	.635	
		B×C	64.856	20	3.243	1.806*	
		A×B×C	66.073	20	3.304	1.840*	
4. 볼의 크기	주효과	성별(A)	3.436	1	3.436	1.821	.250
		얼굴형(B)	204.650	5	40.930	21.686**	
		메이크업(C)	15.779	4	3.945	2.090	
	상호 작용 효과	A×B	3.771	5	.754	.400	
		A×C	.487	4	.122	.064	
		B×C	62.289	20	3.114	1.650*	
		A×B×C	51.445	20	2.572	1.363	

* p < .05 ** p < .01

<표 32>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볼형태 지각 주효과 검증

구분	볼형태	1. 볼의 넓이	2. 볼의 처짐	3. 볼의 길이	4. 볼의 크기	
성별	남	3.06	3.88	3.66	3.32	
	여	3.14	3.84	3.80	3.18	
		F	.442	.118	1.516	1.821
얼굴형	계란형	3.62 ^{ab}	4.21 ^a	4.05 ^a	3.96 ^a	
	등근형	2.63 ^c	3.62 ^{bc}	3.87 ^{ab}	2.71 ^{bc}	
	사각형	2.19 ^d	3.48 ^c	3.58 ^b	2.37 ^c	
	마름모형	2.84 ^c	3.93 ^{ab}	3.83 ^{ab}	3.06 ^b	
	장방형	3.98 ^a	3.63 ^{bc}	3.19 ^c	3.75 ^a	
	역삼각형	3.35 ^b	4.29 ^a	3.86 ^{ab}	3.66 ^a	
			F	20.689 ^{**}	5.963 ^{**}	5.087 ^{**}
메이크업	노메이크업	2.94	3.64 ^b	3.62 ^b	3.11	
	피부메이크업	3.08	3.77 ^b	3.68 ^b	3.28	
	입술메이크업	3.03	3.73 ^b	3.48 ^b	3.18	
	볼메이크업	3.02	4.17 ^a	3.78 ^{ab}	3.14	
	눈메이크업	3.44	4.01 ^{ab}	4.10 ^a	3.55	
			F	1.818	2.755 [*]	3.4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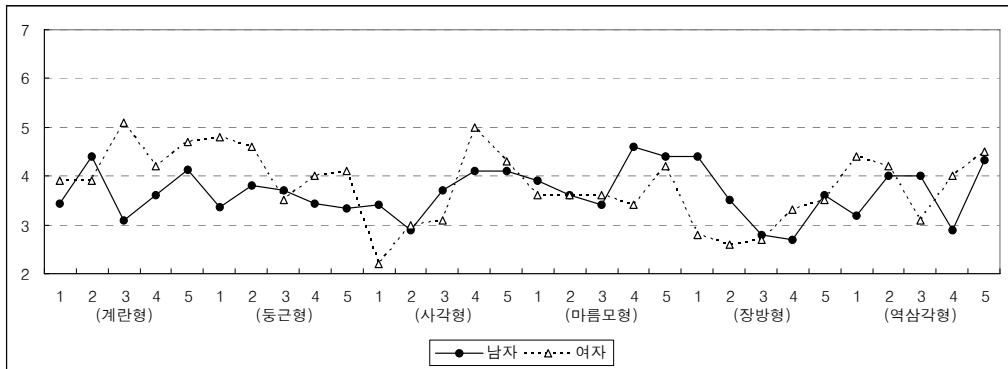
* p < .05 ** p < .01

a>b>c>d : Duncan test

<표 33> 볼형태 지각의 3원 상호작용 효과

얼굴형	볼형태 구분 메이크업	1.볼폭		2.볼의 처짐		3.볼의 길이		4.볼의 크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란형	노메이크업	3.00	3.70	4.10	4.20	3.44	3.90	3.60	4.20
	피부메이크업	4.10	3.80	4.50	3.50	4.40	3.90	5.00	3.50
	입술메이크업	3.10	3.90	3.40	4.40	3.10	5.10	3.90	3.90
	볼메이크업	4.20	3.40	4.40	4.80	3.60	4.20	3.40	3.70
	눈메이크업	4.00	3.10	5.25	3.80	4.13	4.70	4.75	3.80
등근형	노메이크업	2.55	2.00	3.18	3.50	3.36	4.80	2.82	1.80
	피부메이크업	2.20	2.10	3.10	4.10	3.80	4.60	2.10	2.50
	입술메이크업	2.50	3.10	3.60	4.20	3.70	3.50	3.30	3.00
	볼메이크업	2.78	2.75	3.44	4.00	3.44	4.00	2.78	3.00
	눈메이크업	2.78	3.60	3.22	3.80	3.33	4.10	2.67	3.10
사각형	노메이크업	2.30	1.30	2.80	2.00	3.40	2.20	2.40	1.60
	피부메이크업	2.50	2.20	3.40	3.40	2.90	3.00	2.30	2.50
	입술메이크업	2.60	2.20	3.90	3.00	3.70	3.10	2.70	1.90
	볼메이크업	1.90	2.00	4.60	4.20	4.10	5.00	3.40	2.20
	눈메이크업	2.20	2.70	3.80	3.70	4.10	4.30	2.10	2.60
마름모형	노메이크업	2.40	2.70	4.10	3.80	3.90	3.60	2.70	2.50
	피부메이크업	2.50	3.30	3.60	4.30	3.60	3.60	3.00	3.40
	입술메이크업	2.70	2.70	4.30	3.20	3.40	3.60	2.60	3.40
	볼메이크업	3.50	2.20	3.60	4.40	4.60	3.40	3.40	2.70
	눈메이크업	3.40	3.00	4.30	3.70	4.40	4.20	3.60	3.30
장방형	노메이크업	4.50	4.30	4.40	4.10	4.40	2.80	4.40	4.30
	피부메이크업	3.20	4.00	3.50	2.70	3.50	2.60	3.60	3.50
	입술메이크업	3.70	4.20	3.30	3.80	2.80	2.70	3.40	3.70
	볼메이크업	3.80	4.00	3.40	3.90	2.70	3.30	3.70	3.40
	눈메이크업	3.50	4.60	3.90	3.30	3.60	3.50	3.80	3.70
역삼각형	노메이크업	3.50	3.10	3.40	4.10	3.20	4.40	3.10	3.90
	피부메이크업	3.70	3.40	4.70	4.40	4.00	4.20	4.40	3.50
	입술메이크업	3.00	2.70	4.10	3.50	4.00	3.10	3.50	2.90
	볼메이크업	2.20	3.50	4.50	4.70	2.90	4.00	2.70	3.30
	눈메이크업	3.70	4.70	4.70	4.80	4.33	4.50	4.70	4.60
F		1.170		1.132		1.840*		1.363	

* p < .05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7> 볼의 길이에 따른 3원 상호작용

4. 메이크업 선호도 분석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에 따른 메이크업 선호도의 차이와 주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를 보면, 얼굴의 호감형, 동료로서 호감형, 친구로서 호감형, 건강함, 어려워보는 정도, 조화로움에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이 변인으로 나타났다. 얼굴 호감형의 선호도 평가에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감형에는 세 가지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감에는 얼굴형과 메이크업이 변인으로 나타나 메이크업으로 타인의 신뢰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굴의 예쁜 정도에는 얼굴형과 메이크업간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얼굴형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적용하면 더욱 예쁘게 지각하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5>에서, 계란형과 둥근형은 친구로서 동료로서 호감형으로 어려워 보이게 평가하였다. 입 메이크업 시에는 호감도와 얼굴의 조화로움이 낮게 지각되었다. 신뢰감을 주는 얼굴형은 마름모형, 계란형, 둥근형이었고, 피부, 볼, 노 메이크업 시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란형을 가장 예쁘게 지각하였으며, 마름모형, 역삼각형, 둥근형, 장방형, 사각형의 순으로 예쁘게 지각하였다. 노 메이크업 시에는 건강함에 낮은 평가를 하여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건강해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란형의 얼굴이 가장 조화롭게 지각되었고 사각형과 장방형의 얼굴이 다른 얼굴형보다 조화롭지 못하게 지각되었다.

성별 지각차이는 신뢰감 평가를 제외한 모든 선호도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얼굴의 호감형, 조화로움, 어려워보는 정도에서 모두 낮은 평

가를 하여 남성과 여성의 지각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호감형의 얼굴은 계란형과 부드럽게 친근감이 가는 둥근형이며, 사각형과 장방형의 얼굴이 다른 얼굴형에 비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나 얼굴이 계란형과 차이가 클 경우 조화롭지 않게 느껴져서 호감이 덜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 메이크업이 피부, 볼, 눈, 노 메이크업 보다 호감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입 메이크업이 얼굴의 매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Mulhern, R.과 Fieldman, G.¹⁴⁹⁾의 연구와 일치하며, 입 메이크업 시 호감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붉은색 입술을 20대에서 선호하지 않으며, 나이든 여성의 얼굴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입 메이크업이기 때문이라고 한 이연희¹⁵⁰⁾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계란형을 가장 예쁘게 지각하며, 마름모형, 역삼각형 얼굴을 둥근형, 장방형, 사각형보다 예쁘게 평가하여, 하안이 가름한 얼굴을 예쁜 얼굴로 선호하였다. 이것은 이상적인 미인형이 가름하고 하안이 짧은형이라고 한 조용진¹⁵¹⁾과 위성신¹⁵²⁾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최근 미인형의 기준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통통하게 보이는 둥근형이 건강하게 평가되었고, 노 메이크업 시 건강해 보이지 않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화장을 안했을 때는 혈색이 없어보이므로 건강해보이지 않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과 피부메이크업은 피부와 볼에 혈색을 좋게 함으로서 생기있고 활력있는 효과를 주어 어려보이게 지각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타원형의 가름한 표준형인 계란형의 얼굴은 가장 조화롭게 평가되었으며, 메이크업 스타일에서는 피부, 볼, 눈 메이크업이 조화로운 얼굴로 평가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149) Raymond Mulhern et al 4., op. cit., pp. 199-205.

150) 이연희, op. cit., p. 95.

151) 조용진, op. cit., pp. 121-127.

152) 위성신 외 2인, op. cit., p. 283.

이러한 결과는 강경화¹⁵³⁾, 송미영¹⁵⁴⁾, Watson. R¹⁵⁵⁾, Kasumi¹⁵⁶⁾ 등의 많은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메이크업 시, 계란형의 얼굴을 기준으로 하는 피부, 눈, 볼, 입의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얼굴에서 조화로운 미적 판단의 기준이 일반적인 보편성을 갖는다¹⁵⁷⁾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호감도와 얼굴의 조화로우, 어려보이는 정도에서 지각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점수를 주어 여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선호도의 평가 기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대의 젊은 남성이므로 이성에 대한 아름다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기준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메이크업 선호도의 성별, 얼굴형, 메이크업 3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6>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효과가 있는 하위항목은 호감형, 동료로서 호감형, 친구로서 호감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18>에서 나타난 호감형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계란형과 사각형에서는 볼 메이크업 시 호감도가 높았다. 역삼각형에서는 눈 메이크업 시 호감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둥근형은 노 메이크업 시 호감도를 높게 평가했고, 입 메이크업 시 호감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대체로 눈과 볼 메이크업 시 호감도를 높게 입 메이크업 시 호감도를 낮게 평가해 입 메이크업을 했을 때 다른 메이크업에 비해 호감이 덜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의 동료로서의 호감형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계란형은 남녀 모두

153) 강경화, op. cit., pp. 31-32.

154) 송미영, op. cit., pp. 5-47.

155) Rosie Watson, op. cit., pp. 76-77.

156) Kasumi, op. cit., pp. 8-28.

157) 울프 렌츠, 박승재 역, op. cit., pp. 48-59.

혈색있는 볼 메이크업에서 동료로서 호감도가 높았고, 강해보이는 눈 메이크업 시 동료로서 호감도가 낮았다. 둥근형도 피부 메이크업에서 동료로서 호감도가 높았고, 역삼각형은 눈 메이크업 시 호감도를 높게 평가하여 입 메이크업을 제외한 눈과 피부, 볼 메이크업 시 호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로서 호감형에 대한 결과를 <그림 20>에서 보면, 계란형은 남녀 모두 혈색있고 부드러워 보이는 볼 메이크업 시 마름모형은 눈과 볼 메이크업 시, 장방형은 볼 메이크업 시 친구로서 호감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입 메이크업은 역삼각형, 장방형, 마름모형, 둥근형, 계란형 낮은 호감도로 평가하여 입 메이크업이 친구로서 호감도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계란형에서는 볼 메이크업으로 혈색을 부여 하여 온화한 느낌이, 역삼각형에서는 선명한 눈매를 강조한 세련된 느낌의 눈 메이크업이, 둥근형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피부 메이크업이 호감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각형은 부드러운 느낌의 볼 메이크업이, 마름모형은 세련되고 온화한 느낌의 눈 메이크업과 볼 메이크업이, 장방형은 부드러운 느낌의 볼 메이크업 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위별 메이크업으로 편안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줄 때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얼굴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메이크업을 활용해야 한다.

<표 34> 메이크업 선호도 차이

종속변수	효과	변량원	SS	df	MS	F	R ²
1.얼굴의 호감형	주효과	성별(A)	44.416	1	44.416	62.295**	.321
		얼굴형(B)	62.042	5	12.408	17.403**	
		메이크업(C)	10.725	4	2.681	3.760*	
	상호 작용 효과	A×B	2.560	5	.512	.718	
		A×C	2.533	4	.633	.888	
		B×C	28.846	20	1.442	2.023**	
		A×B×C	25.315	20	1.266	1.775*	
2.동료로서 호감형	주효과	성별(A)	29.743	1	29.743	43.800**	.317
		얼굴형(B)	61.058	5	12.212	17.983**	
		메이크업(C)	9.882	4	2.471	3.638**	
	상호 작용 효과	A×B	7.890	5	1.578	2.324*	
		A×C	2.706	4	.677	.996	
		B×C	26.879	20	1.344	1.979**	
		A×B×C	26.718	20	1.336	1.967**	
3.친구로서 호감형	주효과	성별(A)	13.838	1	13.838	19.395**	.250
		얼굴형(B)	35.063	5	7.013	9.829**	
		메이크업(C)	9.648	4	2.412	3.381**	
	상호 작용 효과	A×B	5.596	5	1.119	1.569	
		A×C	5.503	4	1.376	1.928	
		B×C	31.013	20	1.551	2.173**	
		A×B×C	24.441	20	1.222	1.713*	
4.얼굴의 신뢰감	주효과	성별(A)	.006	1	.006	.009	.152
		얼굴형(B)	13.715	5	2.743	4.055**	
		메이크업(C)	6.633	4	1.658	2.452*	
	상호 작용 효과	A×B	4.827	5	.965	1.427	
		A×C	6.365	4	1.591	2.352	
		B×C	15.478	20	.774	1.144	
		A×B×C	16.819	20	.841	1.243	
5.얼굴의 예쁜 정도	주효과	성별(A)	38.829	1	38.829	52.696**	.304
		얼굴형(B)	76.943	5	15.389	20.884**	
		메이크업(C)	6.135	4	1.534	2.081	
	상호 작용 효과	A×B	2.739	5	.548	.743	
		A×C	2.380	4	.595	.807	
		B×C	23.837	20	1.192	1.617*	
		A×B×C	18.197	20	.910	1.235	
6.얼굴의 건강함	주효과	성별(A)	4.271	1	4.271	5.458*	.182
		얼굴형(B)	32.001	5	6.400	8.178**	
		메이크업(C)	7.863	4	1.966	2.512*	
	상호 작용 효과	A×B	1.081	5	.216	.276	
		A×C	6.568	4	1.642	2.098	
		B×C	21.537	20	1.077	1.376	
		A×B×C	20.506	20	1.025	1.310	
7.얼굴의 성숙함	주효과	성별(A)	12.769	1	12.769	16.359**	.228
		얼굴형(B)	44.716	5	8.943	11.458**	
		메이크업(C)	18.999	4	4.750	6.085**	

	상호 작용 효과	A×B	6.457	5	1.291	1.654	
		A×C	2.962	4	.740	.949	
		B×C	18.814	20	.941	1.205	
		A×B×C	16.065	20	.803	1.029	
8.얼굴의 어려보임	주효과	성별(A)	15.699	1	15.699	20.619**	
		얼굴형(B)	57.347	5	11.469	15.064**	
		메이크업(C)	23.872	4	5.968	7.838**	
	상호 작용 효과	A×B	10.470	5	2.094	2.750*	.282
		A×C	5.890	4	1.473	1.934	
		B×C	21.828	20	1.091	1.433	
		A×B×C	22.143	20	1.107	1.454	
9.얼굴의 조화로움	주효과	성별(A)	25.029	1	25.029	36.600**	
		얼굴형(B)	29.328	5	5.866	8.577**	
		메이크업(C)	10.594	4	2.648	3.873**	
	상호 작용 효과	A×B	6.222	5	1.244	1.820	.244
		A×C	5.294	4	1.324	1.935	
		B×C	23.834	20	1.192	1.743*	
		A×B×C	15.093	20	.755	1.104	

* p < .05 ** p < .01

<표 35> 메이크업 선호도의 주효과 검증

구 분	메이크업 선호	1.얼굴의 호감형	2.동료 로서 호감형	3.친구 로서 호감형	4.얼굴의 신뢰감	5.얼굴의 예쁜 정도	6.얼굴의 건강함	7.얼굴의 성숙함	8.얼굴의 어려보임	9.얼굴의 조화로움
성별	남	2.52	2.70	2.89	3.13	2.28	3.67	3.39	2.50	2.79
	여	3.06	3.15	3.19	3.12	2.78	3.50	3.09	2.82	3.19
	F	62.295**	43.800**	19.395**	.009	52.696**	5.458*	16.359**	20.619**	36.600**
얼굴형	계란형	3.35 ^a	3.39 ^a	3.35 ^a	3.27 ^a	3.18 ^a	3.61 ^b	2.92 ^b	3.05 ^a	3.32 ^a
	둥근형	2.93 ^b	3.14 ^a	3.23 ^a	3.23 ^a	2.41 ^c	3.97 ^a	3.07 ^b	2.79 ^b	3.03 ^b
	사각형	2.32 ^c	2.45 ^c	2.63 ^b	2.98 ^b	2.01 ^d	3.66 ^b	3.61 ^a	2.16 ^c	2.67 ^c
	마름모형	2.90 ^b	3.04 ^b	3.15 ^a	3.31 ^a	2.74 ^b	3.68 ^b	3.13 ^b	2.83 ^{ab}	3.07 ^b
	장방형	2.45 ^c	2.54 ^c	2.78 ^b	2.87 ^b	2.25 ^c	3.29 ^c	3.63 ^a	2.30 ^c	2.72 ^c
	역삼각형	2.83 ^b	3.03 ^b	3.11 ^a	3.08 ^{ab}	2.66 ^b	3.32 ^c	3.06 ^b	2.84 ^{ab}	3.15 ^{ab}
	F	17.403**	17.983**	9.829**	4.055**	20.884**	8.178**	11.458**	15.064**	8.577**
메이크업	노메이크업	2.75 ^a	2.88 ^{ab}	3.08 ^a	3.23 ^a	2.60 ^a	3.38 ^b	3.12 ^c	2.71 ^{ab}	2.95 ^{ab}
	피부메이크업	2.90 ^a	2.97 ^a	3.08 ^a	3.18 ^a	2.55 ^a	3.57 ^{ab}	3.20 ^{bc}	2.82 ^a	3.03 ^a
	입술메이크업	2.55 ^b	2.70 ^b	2.80 ^b	2.92 ^b	2.34 ^b	3.66 ^a	3.47 ^a	2.33 ^c	2.76 ^b
	볼메이크업	2.88 ^a	3.05 ^a	3.14 ^a	3.17 ^a	2.60 ^a	3.62 ^{ab}	2.99 ^c	2.90 ^a	3.13 ^a
	눈메이크업	2.90 ^a	3.03 ^a	3.10 ^a	3.12 ^{ab}	2.60 ^a	3.72 ^a	3.42 ^{ab}	2.54 ^b	3.09 ^a
	F	3.760*	3.638**	3.381**	2.452*	2.081	2.512*	6.085**	7.838**	3.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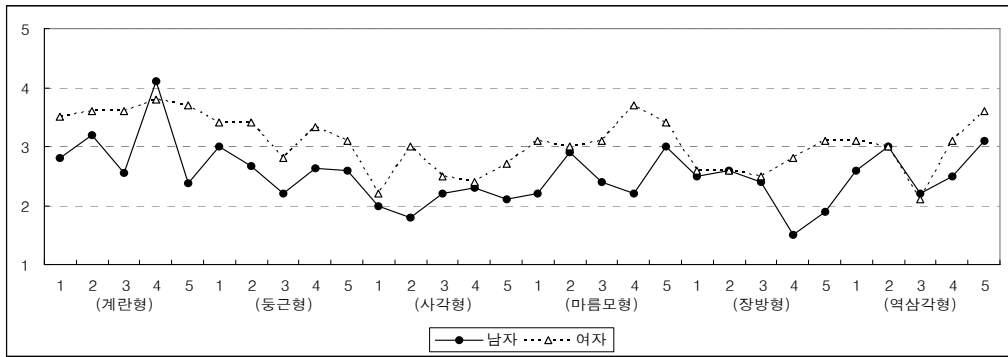
* p < .05 ** p < .01

a>b>c>d : Duncan test

<표 36> 메이크업 선호도의 3원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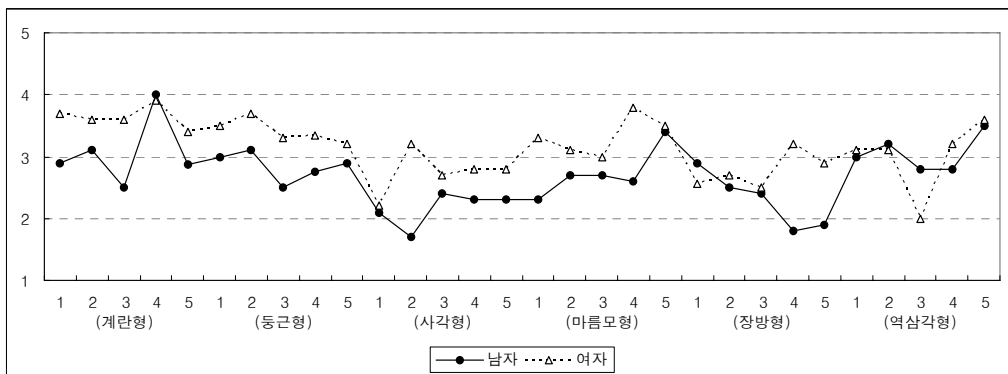
얼굴형	메이크업 선호 메이크업 구분	1		2		3		4		5		6		7		8		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관형	노메이크업	2.80	3.50	2.90	3.70	2.90	3.80	3.40	3.30	2.80	3.50	3.60	3.10	2.30	2.50	2.50	3.80
	피부메이크업	3.20	3.60	3.10	3.60	3.10	3.60	3.20	3.30	3.00	3.20	3.40	3.40	3.20	3.20	3.00	2.90	3.30	3.60
	입술메이크업	2.56	3.60	2.50	3.60	2.67	3.40	2.89	3.10	2.44	3.60	3.44	3.90	3.67	3.11	2.78	2.40	2.78	3.00
	볼메이크업	4.10	3.80	4.00	3.90	3.90	3.90	3.90	3.50	3.80	3.80	4.20	3.70	2.80	2.40	3.70	3.70	3.90	3.80
	눈메이크업	2.38	3.70	2.88	3.40	3.00	3.10	2.75	3.20	2.38	3.00	3.50	3.80	3.38	2.80	2.50	3.10	2.88	3.40
등근형	노메이크업	3.00	3.40	3.00	3.50	3.27	3.50	3.55	3.10	2.55	2.60	3.91	3.70	3.18	3.20	3.09	2.80	3.00	2.90
	피부메이크업	2.67	3.40	3.11	3.70	3.33	3.80	3.33	3.30	2.11	2.80	4.22	4.10	2.78	2.40	3.00	3.70	3.11	3.60
	입술메이크업	2.20	2.80	2.50	3.30	2.60	3.40	2.90	3.00	1.60	2.60	4.00	4.00	3.40	3.10	2.20	2.80	2.40	3.00
	볼메이크업	2.63	3.33	2.75	3.33	2.63	3.50	2.63	3.58	2.00	2.67	4.00	3.67	3.25	2.75	2.13	3.00	2.75	3.17
	눈메이크업	2.60	3.10	2.90	3.20	3.00	3.10	3.50	3.20	2.10	2.90	4.40	3.80	3.60	3.10	2.10	2.90	2.70	3.60
사각형	노메이크업	2.00	2.20	2.10	2.20	2.50	2.30	3.20	2.70	2.20	1.90	4.00	2.90	3.60	3.30	2.10	2.10	2.40	2.50
	피부메이크업	1.80	3.00	1.70	3.20	2.40	3.10	2.80	3.40	1.40	2.70	3.90	3.70	3.80	3.00	1.80	2.80	2.20	3.00
	입술메이크업	2.20	2.50	2.40	2.70	2.80	2.70	2.90	2.90	2.00	2.20	3.20	3.70	3.70	3.90	2.30	1.80	2.70	2.60
	볼메이크업	2.30	2.40	2.30	2.80	2.30	2.70	3.40	2.80	1.70	1.80	3.60	4.00	3.70	3.60	2.40	2.30	3.00	2.80
	눈메이크업	2.10	2.70	2.30	2.80	2.70	2.80	2.80	2.90	1.80	2.40	4.10	3.50	3.80	3.70	1.80	2.20	2.60	2.90
마름모형	노메이크업	2.20	3.10	2.30	3.30	2.50	3.30	3.60	3.10	2.30	3.10	3.30	3.20	3.60	2.40	2.30	3.10	2.40	3.20
	피부메이크업	2.90	3.00	2.70	3.10	3.10	3.10	3.40	3.00	2.40	2.70	4.00	3.20	3.30	2.90	2.50	3.20	2.80	3.20
	입술메이크업	2.40	3.10	2.70	3.00	2.60	3.10	3.20	2.89	2.20	2.60	4.10	3.80	3.20	3.30	2.50	2.60	2.70	3.00
	볼메이크업	2.20	3.70	2.60	3.80	2.90	3.80	3.10	3.70	2.40	3.50	3.40	3.90	3.40	2.40	2.50	3.60	2.50	3.90
	눈메이크업	3.00	3.40	3.40	3.50	3.70	3.40	3.70	3.40	2.80	3.40	4.00	3.90	3.70	3.10	3.00	3.00	3.10	3.90
장방형	노메이크업	2.50	2.60	2.90	2.56	3.20	3.11	3.20	2.90	2.00	2.50	3.10	3.00	3.50	3.40	2.00	2.50	2.70	3.00
	피부메이크업	2.60	2.60	2.50	2.70	2.70	2.60	2.80	2.70	2.30	2.30	3.60	2.60	3.90	3.60	2.40	3.00	2.60	2.50
	입술메이크업	2.40	2.50	2.40	2.50	2.80	2.60	2.50	3.10	1.90	2.50	4.00	3.80	4.10	3.70	1.90	2.00	2.60	3.10
	볼메이크업	1.50	2.80	1.80	3.20	2.00	3.40	2.30	3.10	1.80	2.40	2.80	3.40	3.60	2.90	1.90	2.90	2.20	3.20
	눈메이크업	1.90	3.10	1.90	2.90	2.30	3.10	2.80	3.30	1.90	2.90	3.20	3.40	4.10	3.50	1.90	2.60	2.00	3.30
역삼각형	노메이크업	2.60	3.10	3.00	3.10	3.20	3.30	3.60	3.10	2.70	3.00	3.60	3.10	3.40	3.00	3.10	3.10	3.50	3.40
	피부메이크업	3.00	3.00	3.20	3.10	3.50	2.70	3.70	3.20	2.70	2.90	3.50	3.30	2.90	3.40	3.00	2.60	3.10	3.40
	입술메이크업	2.20	2.10	2.80	2.00	2.70	2.20	3.00	2.60	2.20	2.30	3.30	2.60	3.10	3.40	2.50	2.20	2.80	2.40
	볼메이크업	2.50	3.10	2.80	3.20	3.00	3.50	2.90	2.90	2.50	2.70	3.30	3.50	2.90	2.30	3.10	3.40	2.80	3.40
	눈메이크업	3.10	3.60	3.50	3.60	3.30	3.70	2.70	3.10	2.50	3.10	3.60	3.40	2.80	3.40	2.90	2.50	3.10	3.60
F		1.775*		1.967**		1.713*		1.243		1.235		1.310		1.029		1.454		1.104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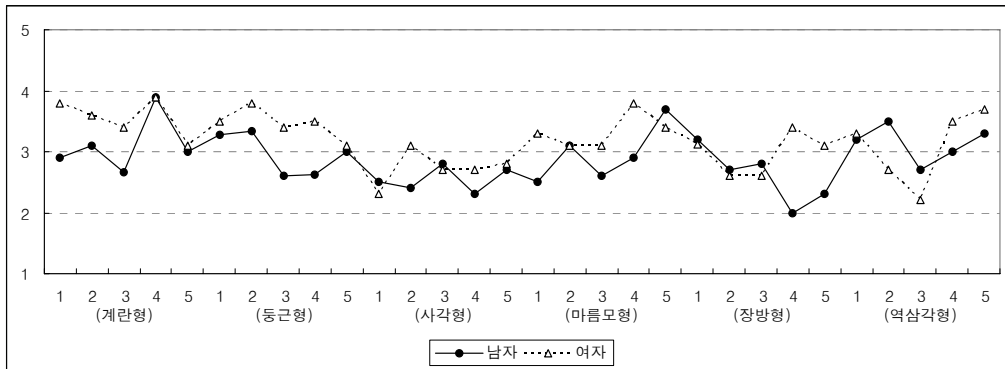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8> 호감형의 3원 상호작용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19> 동료로서 호감형의 3원 상호작용



1=노메이크업, 2=피부메이크업, 3=입술메이크업, 4=볼메이크업, 5=눈메이크업

<그림 20> 친구로서 호감형의 3원 상호작용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부위별 수정 메이크업으로 얼굴형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얼굴유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분 포인트가 없거나, 입술만 강조할 경우 얼굴을 평면적이고 조화롭지 못하게 보이게 하므로 얼굴형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부분 메이크업을 적용해야 효과적인 수정 메이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메이크업은 얼굴형태의 크기와 길이의 비율에 착시현상을 주어 수정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부분 메이크업을 하였을 때 가로와 세로선의 변화에 의해 얼굴의 크기와 길이의 비율이 달라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눈이나 볼 메이크업이 눈과 볼의 수정효과 외에 얼굴 폭과 길이에 영향을 주어 얼굴형의 수정 보완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눈과 볼 메이크업은 전체적인 얼굴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주므로 포인트 메이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입 메이크업은 얼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입 메이크업의 활용을 위해서는 입 메이크업의 아름다운 표현 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의 얼굴에 대해 남성은 여성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볼과 피부 메이크업을, 여성은 감각적인 눈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이 형태지각과 선호도 지각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대해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각으로 얼굴을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의 얼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얼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른 만큼 이미지 연출 상황에 적합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완벽한 얼굴은 없다. 그러나 메이크업의 섬세한 수정을 통해서 각 얼굴유형은 보다 향상된 이미지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상의 형태 본질을 살려서 얼굴에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메이크업은 가장 뛰어난 미의 수단이라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얼굴은 개인의 매력을 외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사람의 외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이미지란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 현대 여성들은 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개성을 살려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

메이크업은 얼굴의 결점을 보완 수정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개성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로, 여성에게 있어 메이크업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부각시킬 뿐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내적, 외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듯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이크업의 표현대상은 얼굴이므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형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얼굴형태는 얼굴형과 눈, 코, 입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형이 지닌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므로 외적인 형태의 수정 메이크업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 적용 시 얼굴의 형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 선과 색 등의 적절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얼굴형태가 완성되어 자신의 외모를 인식하고 가꾸기 시작하는 단계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형태를 측정 후 얼굴유형을 분

류하고, 얼굴형과 부위별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여, 메이크업 시 자신이 원하는 메이크업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체 측정에 근거한 얼굴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얼굴형 분류를 유형화하고 주관적 설명으로 보편화되었던 메이크업의 적용 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립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얼굴유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의 조합에 따른 실험을 통해 얼굴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이미지와 메이크업의 수정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형은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마름모형, 장방형, 역삼각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얼굴유형에 따라 형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얼굴 이미지 지각의 요인분석 결과 세련성, 품위성, 온유성, 성숙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눈 메이크업은 세련된 이미지, 볼 메이크업은 온유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여성은 눈 메이크업을, 남성은 볼과 피부메이크업을 세련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얼굴형태 지각차이는 사각형은 넓고 각지게, 둥근형은 완만하게, 장방형은 좁고 길게, 마름모형은 각지고 뚜렷하게, 계란형은 조화롭게 지각하였다. 볼과 눈 메이크업 시 얼굴을 조화롭고 입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눈형태 지각차이는 사각형은 작게, 둥근형은 짧게, 장방형은 길게 지각하였고, 눈 메이크업 시 눈이 크고, 뚜렷하고, 날카롭게 평가되었다. 입형태 지각차이는 입 메이크업 시 입이 길고, 뚜렷하게 지각했으며, 계란형과 마름모형에서 입 메이크업을 조화롭게 평가하였다. 볼형태 지각차이는 장방형은 좁게, 사각형, 둥근형, 마름

모형은 넓고, 크게 지각하였고, 볼과 눈 메이크업 시 작고, 짧고, 올라가 보이게 평가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얼굴을 더 크게, 넓게, 조화롭지 못하게 평가하고, 눈의 형태는 더 선명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메이크업 선호도 차이는 호감형은 계란형과 둥근형이며, 계란형은 조화롭게, 둥근형은 건강하게 평가하였다. 피부, 볼, 눈 메이크업 시 조화로운 얼굴로 지각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에 있어서 얼굴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요소로 작용함으로 메이크업을 함에 있어서 얼굴형과 부분 메이크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수정효과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볼과 눈 메이크업이 형태지각과 이미지 지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눈과 볼 메이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 메이크업은 얼굴 이미지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입 메이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 지각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상황에 따라 메이크업 스타일에 변화를 줄 때 효과적인 메이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 따른 얼굴유형별 메이크업 스타일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란형은 눈 메이크업으로 세련되게, 볼 메이크업으로 온유하게, 피부, 볼 메이크업으로 품위있게 표현하여 원하는 이미지에 맞도록 연출할 수 있다.

둘째, 둥근형은 볼 메이크업으로 온유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또렷하고 날렵한 눈 메이크업과 사선방향의 볼 메이크업으로, 둥근형태의 얼굴과 폭을 수정하여 세련된 이미지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셋째, 사각형은 약간 어두운 톤의 피부 메이크업으로 넓고 각진 부위에 수

정효과를 주고, 깊이 있는 눈 메이크업과 볼 뼈를 부드럽게 감싸는 은은한 볼 메이크업으로 품위있는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다.

넷째, 마름모형은 피부 메이크업으로 이마와 턱을 밝게 하고, 부드러운 볼과 눈 메이크업으로 품위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입 메이크업으로 볼륨감 있는 입을 표현하고 눈매를 온화하게 살려서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다섯째, 장방형은 볼 메이크업을 가로 방향으로 하여 얼굴 폭이 넓고 짧게 보이도록 한다. 또한 눈 메이크업으로 눈매를 길고 부드럽게 표현하여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역삼각형은 눈에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거나, 턱 부위에는 밝은 톤의 피부 메이크업과 광대뼈를 감싸주는 볼 메이크업으로 좁은 하안을 보완하여 온화한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메이크업의 이미지 수정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대체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메이크업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행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감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통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진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실용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얼굴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이 상호 조화를 통해 얼굴 이미지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메이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체계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녀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형태지각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장품 브랜드와 메이크업 패턴 조사에서 국내 브랜드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내용 분석의 결과를 전체 화장품 브랜드와 메이크업 패턴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색채가 주는 이미지 효과는 제외시켰으므로 색채 메이크업을 적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와 이미지 지각 차이를 비교 할 수 없었다.

넷째, 메이크업 스타일의 적용을 피부, 눈, 입, 볼에서 얼굴유형에 맞춘 한 가지 패턴으로만 한정하였으므로,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과 부위별 형태 차이를 적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지각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다섯째, 사진과 실체는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거주지를 보다 확대 조사하여, 폭넓은 이미지와 형태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다양한 색채와 메이크업 스타일을 적용한 비교 분석으로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더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경화 (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 APC.
- 강명주 (2008), 눈화장에 따른 형태변화와 이미지 연구-20대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 강혜원 (2000), 의상 사회 심리학, 서울: 교문사.
- 강은주 (2005), “눈썹 화장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2), pp. 31-38.
- 김경순 (1995), 메이크업, 서울: 청구문화사.
- 김미정, 이상례 (2004), “남자 대학생의 얼굴 계측에 따른 유형별 헤어컷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6), pp. 740-748.
- 김성현 (1992),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서울: 동학사.
- 김정희 (2007), “메이크업을 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표준 얼굴 형태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 57(5), pp. 151-165.
- 김정희 (2008), “아이 메이크업 적용을 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 눈썹과 눈의 형태 분석”, 한국미용학회지, 14(1), pp. 143-153.
- 김진숙, 이경화 (2004), “영상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대생 얼굴의 유형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 1470-1481.
- 김철주, 함기선, 김윤, 김용진 (1988), “청년기 한국인 안면에 대한 생체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5(2), pp. 427-431.
- 김한경 (2001), 얼굴 미모의 구조적 특징 및 감성적 구성 개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김혜수, 이경화 (2004), “여대생의 얼굴 형태 분석을 위한 계측적 연구”, 대한

- 가정학회지, 42(7), pp. 165-178.
- 김효숙, 강인애 (2003), “테마별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7(1), pp. 72-83.
- 권구정, 김선영, 이경선, 김문주, 김찬수, 이경은 (2006), Makeup icon, 서울: 청구문화사.
- 권경애 (2000),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 나경미 (2004), 인상학적 측면에서 본 얼굴 형태적 특징에 따른 메이크업 기법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 문남원 (2000), “시각적 판단에 의한 얼굴 유형 분류와 계측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8(1), pp. 133-144.
- 박선의 (1994), 디자인 사전, 서울: 미진사.
- 박종섭, 함기선, 조용진 (1989), “안면 인상에 대한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학회지, 16(6), pp. 920-925.
- 박종섭, 함기선, 윤정길, 조용진 (1990), “한국인의 안선호 경향에 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pp. 196-200.
- 신수현 (2002),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 서란숙 (2007), “시대별 한국 여성의 미인상과 현대 미용 성형 외과적 미인형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3), pp. 1404-1412
- 손희정, 김효숙, 최창석, 손희순, 김창우 (2003),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2D 인체계측법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pp. 11-19.
- 송미영 (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대학원.

- 송미영, 박옥련, 이영주 (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 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pp. 143-153.
- 위성신, 함기선, 이재웅, 조용진 (1981), "한국 미인의 생체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5), pp. 283-290.
- 윤정길, 함기선, 조용진 (1990), "한국인의 비선호 경향에 대한 조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7(2), pp. 190-195.
- 이강미 (2003),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 이강미, 김주섭 (2005), "수정 메이크업이 인상학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패션뷰티학회지 4(1), pp. 19-27.
- 이경하 (1998), 눈썹 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게스탈트 (Gestalt)이론을 배경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대학원.
- 이경화, 김정희 (2007), "수정 메이크업을 위한 성인 여성의 얼굴 유형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1(11), pp. 1487-1499.
- 이동진, 김우경, 김수시, 백세민, 정전은 (1989), "한국 성인 여성의 안면부에 대한 사진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3), pp. 423-432.
- 이미애, 김용선 (2005), "인상학에 근거한 성격 분장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2), pp. 1-11.
- 이상은, 신지현 (2005), "서구 여성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눈썹 형태의 특징", 한국의상 디자인 학회지, 7(1), pp. 77-84.
- 이선주 (2000), 메이크업 있어서 색체의 효과와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 이수경 (2005), "이미지 메이킹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1(3), pp. 300-306.

- 이정수, 김흥규, 김양우 (2004), "한국 여성의 미인 얼굴과 평균 얼굴의 생체 계측학적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31(4), pp. 526-531.
- 이정은 (2002), 아이 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이주희 (2008),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메이크업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 이진숙, 신은영, 김창순, 김종일, 송경석 (1999), "색채 감성 분석기법에 의한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별 예측 모델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감성과학회지, 2(2), pp. 62-74.
- 이연희, 이화진 (2003), Make-up design, 서울: 청구문화사.
- 이연희 (2001), 색채 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 장윤진 (2006), "인상 교정을 위한 이미지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pp. 41-44.
- 전인미, 이혜주 (2007), "관상학에 근거한 성격 유형별 무대 분장 디자인 모형 연구 -눈썹과 눈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0(1), pp. 275-284.
- 조대환, 함기선, 조용진 (1989), "한국 청년들의 미추관에 대한 생체 계측학적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6), pp. 926-931.
- 조준현, 한기환, 강진성 (1993), "한국인 두개안면부 계측치: 119개 항목의 성별 및 연령별 정상치 및 표준화 형판",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0(4), pp. 995-1005.
- 조용진 (1989), 우리 몸과 미술문화, 서울: 미술교육사.

-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주)사계절출판사.
- 최민령, 김예성, 엄경숙, 박선희, 김영미 (2004), The Beauty Make-up, 서울: 도서출판예림.
- 하경연 (2006),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 한명숙 (1999), 마귀아쥬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 한명숙, 선정희 (2001),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7(2), pp. 73-85.
- 울프 렌츠, 박승재 역 (2006), 아름다움의 과학, 서울: 프로네시스.
- 테루코 고바야시원저, 최운학 역 (1986), The Best Make-up, 서울: 유신문화사.

국외 문헌

- ジュリエット・コーエソ (2008), メイクアップ百科, 東京: 産調出版.
- 新演劇研究會 (1928), 舞臺化粧の研究, 東京: 原始社.
- 大防郁夫 (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シ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pp. 10-16.
- 尾花けい子 (2008), 尾花けい子の 極上のチュラルメイク, 東京: 株式會社 ワニブックス
- kasumi (2008), 女は 見た 目が 10割!, 東京: 大和書房.
- 尾崎左永子 (2002), 大人の 女の こころ化粧, 東京: 株式會社 リヨン社..
- 青木英夫, 유태순, 조기여, 이화순 역 (2004), 西洋化粧文化史, 東西交流.

- Fink, Bernhard & Neavet, Nick (2005), The biology of facial beau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7, pp. 317-325.
- Haiken, Elizabeth (1997), *Venus Envy a history of cosmetic surgery*,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6-9.
- Knight, Helen & Keith, Olly (2005), Ranking facial attractiveness, *European Journal of Orthodontics*, 27, pp. 340-348.
- Corey, Irene (1990), *The face is a Canvas*, Kentucky: Anchor Press, INC.
- Tung, Jennifer (1994), *Instyle Getting Gorgeous*, Melcher Media.
- Kim, Johnson & Stone, Jeff (1997), *Woman's face: Make-up and Skin Care*, London: Thames & Hudson.
- Jones, Benedict, DeBruine, Lisa, Little, Anthony (2007), The role of symmetry in attraction to average faces, *Perception & Psychophysics*, 69(8), pp. 1273-1277.
- Cohen, Juliet (2001), *Vogue make-up*, Carlton Books, INC.
- Aucoin, Kevyn (1997), *Making faces*, Little, New York: Brown and Company.
- Mason, Linda (2003), *make up*, New York: Watson-Guption Publications.
- Mason, Linda (2007), *eye candy: 55 easy makeup looks for glam lid and luscious lashes*, New York: Watson-Guption Publications.
- Quant, Mary (1996), *Ultimate makeup & beauty*, DK Publishing, INC.
- Guthrie, Michelle, Kim, Hye-shin, Jung, Jae-hee (2008), The effects of facial image and cosmetic usage on perceptions of brand personality,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Vol.

12, No. 2, pp. 164-181.

Mulhern, Raymond, Fieldman, George, Hussey, Trevor, Leveque, Jean-Luc, Pineau, Patricia (2003), Do cosmetics enhance female Caucasian facial attra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5, pp. 199-205.

Nash, Rebecca, Fieldman, George, Hussey, Trevor, Leveque, Jean-Luc, Pineau, Patricia (2006), Cosmetics: They Influence More Than Caucasian Female Facial Attractiven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6, No.2, pp. 493-504.

Cosio, Robyn & Robins, Cynthia (2000), *The eyebrow*,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Watson, Rosie (2007), *Make-up*, London: Pica Digital PTE Ltd.

Fabricant, Stacey & Gould, Stephen (1993), Women's Makeup Careers: An Interpretive Study of Color Cosmetic Use and "Face Value, " *Psychology & Marketing*, Vol. 10, No. 6, p. 531.

Zaidel, Dahlia, Aarde, Shawn, Baig, Kiran (2005), Appearance of symmetry, beauty, and health in human faces, *Brain and Cognition*, 57, pp. 261-263.

ABSTRACT

A Study on Makeup Styles for Enhancing Image - Centering on the Shape of Face -

Han, Bo-Hyu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ization and the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has peopl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ttractive appearance that affects the relationship in social activities. And this phenomenon gets to induce aesthetic area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women's lives. Also, as the interest and desire for beauty art lately increases, people spend their considerable leisure time for beauty art and thus the popularization and universalization of beauty art is being accelerated.

Women's yearning and pursuit for beauty can be the most personal and natural phenomenon. In that sense, make-up which pursues for characteristic beauty and reveals oneself can be the natural means which delivers one's beautiful image to others.

Face is the most important part that decides person's attraction in his or her appearance. Face which is visually recognized for the first time i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affects relational perception and is a part where one can change one's image through make-up whenever one wants.

This change of image is achieved by proper harmony between face form and make-up through the optical illusion of make-up using lines and colors. For this, it is important to apply make-up to forms by detailed part, analyzing the ear, eye, mouth and nose and the forms of face first.

This has the meaning that one can utilize the result of this study more effectively in producing the make-up image which one wants in one's make-up, measuring face forms, classifying face types and analyzing the features of make-up image according to face forms and make-up styles by part for women in twenties recognizing and starting to take care of their appeara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face forms based on the data of measuring face, obtained by measuring human body and to establish objective data about the application principle of make-up of which study was mainly subjective. Also, this study intends to positively and closely examine make-up images according to face types and the correction effect of make-up through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face forms and make-up styles.

The concrete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grasps the features of forms by face type, classifying face forms through measuring face forms.

Second, after this study applies five styles of skin, eye, lip, cheek and none to classified face forms, it inspects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of face form and the perception of image according to changes.

Third, this study clarifies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ception of face forms and the perception of ima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application of five make-up styles by classified face forms.

Fourth, this study inspects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of face forms and the perception of image by the changes of application of five make-up styles by face forms classified according to sex, a variable of perceiver.

Fifth, this study inspects make-up preferences by the changes of application of five make-up styles by classified face forms.

Experiment study method by questionnaire was u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otal 601 persons of 302 female students and 299 male students who are from 19 to 29 years old and live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Stimuli were total 30 types of 5 styles applying skin, eye, lip, cheek and none make-up styles to 6 models having face forms like egg form, circular form, square form, inverted triangle form, rectangular form and diamond form. Questionnaires included meaning differential measure questions which inspect the evaluation contents of make-up image and face forms. For analysis of data, data were commuted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ce forms are classified as 6 types of egg form, circle form,

square form, diamond form, rectangle form and inverted triangle form. It wa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features by forms according to face types.

Second, as a result,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face images were classified as 4 factors of sophistication, dignity, gentleness and maturity. Eye make-up was evaluated as sophisticated image, and cheek make-up was evaluated as gentle image. In perception by sex, women evaluated eye make-up and men evaluated cheek and skin make-up as sophisticated.

Third, for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face forms, egg form was three-dimensionally and harmoniously perceived because it was nicely slender and its contours were distinct, and egg form was evaluated as harmonious and three-dimensional in cheek and eye make-up. For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eye and lip forms, it was demonstrated that eye seemed large, distinct and sharp in eye make-up and lip seemed long and distinct in lip make-up. For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of cheek form, it was demonstrated that cheek and eye seemed small, short and upward in cheek and eye make-up. For the perception by sex, it was demonstrated that men evaluated face as larger, wider, less harmonious than women and men perceive eye form as more distinct than women.

Fourth,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make-up preferences,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most favorite face was egg form and circular form. For preferences by sex, women evaluated more highly good impression than me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make-up styles by face types are as

follows.

First, egg form is produced according to the desired images through skin, eye, cheek make-up.

Second, for circular form, its gentle image is emphasized through cheek make-up, or circular form is changed into sophisticated image through eye and cheek make-up.

Third, square form produces graceful image through skin, eye and cheek make-up.

Fourth, diamond form induces sophisticated image through lip and eye make-up.

Fifth, rectangular form gives mature and sophisticated image through cheek and eye make-up.

Sixth, inverted triangle form gives sophisticated image through eye make-up, or gives gentle image through cheek make-up.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face forms and make-up styles were important elements to change face image through harmony between two in make-up.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o limit the subjects to men and women in twenties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o limit only some domestic brands in the inspection of cosmetics brand and make-up style. Thus, one should be prudent in enlarging and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the image and form perception for whole women. Also, because this study excluded the image effect which colors gave, one could not compare the differenced of image perception and form which could be

shown when applying colored make-up.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of this study, further study will be able to grasp wide image and form features, enlarging and inspecting make-up style and the age, residence and face form of the perception subject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erception of face form and image to which one applies these colors and various make-up styles, further study needs to add actual meaning with more various and systematic construction.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이미지 변화 평가문항 구성과 출처

<부록 3> 얼굴형태 변화 평가문항 구성과 출처

<부록 1> 설문지

얼굴 형태와 메이크업이미지 연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위논문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순수하게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라고 빠질 시에는 통계 처리가 불가하오니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 한 보 현

지도교수 : 김 경 희

일반적 특성 관련문항

1. 귀하의 성별에 V 표를 해주십시오. 남 () 여 ()
2. 귀하의 연령을 적어 주십시오. _____ 세
3. 귀하의 월 평균 용돈은?
① 10만원 미만 ② 10-20만원 ③ 20-30만원 ④ 30-40만원 ⑤ 40만원 이상

메이크업 행동

1. 평소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을 좋아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한다. ② 좋아한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하지 않는다. ⑤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2. 메이크업으로 얼굴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변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피부 ② 눈 ③ 코 ④ 입 ⑤ 볼 ⑥ 얼굴형 ⑦ 기타()
3. 눈화장이 얼굴이미지 변화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매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입술화장이 얼굴이미지 변화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매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피부화장이 얼굴이미지 변화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매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볼화장이 얼굴이미지 변화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을 준다. ② 영향을 준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매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이미지 변화에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8. 메이크업을 한 여성을 보았을 때 가장 신경쓰며 보는 부분은?

① 피부화장 ② 눈화장 ③ 입술화장 ④ 볼화장

9. 여성이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고르시오?

① 아름다워지기 위해 ② 예의상 ③ 피부보호를 위해 ④ 자신감부여 ⑤ 유행에 맞추려고

메이크업 변화에 따른 얼굴의 형태 지각 연구

* 아래의 문항은 얼굴 형태를 평가하기 위해 반대 의미로 이루어진 형용사입니다. 제시하는 사진에 대해 자신이 받은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다음의 예와 같이 ○를 하여 주십시오.

예) ---> 매우 가름해 보인다고 생각될 때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① -- 2 -- 3 -- 4 -- 5 -- 6 -- 7 얼굴이 넓어 보이는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 사진번호 _____

얼굴형태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이 넓어 보이는
얼굴이 짧아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이 길어 보이는
얼굴이 각지게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이 둥글어 보이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이 커 보이는
얼굴 윤곽이 또렷해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 윤곽이 또렷하지 않은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얼굴이 조화롭게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이 조화롭게 보이지 않은
얼굴에서 광대뼈가 나와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광대뼈가 나와 보이지 않은

눈

얼굴에서 눈이 커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눈이 작아 보이는
얼굴에서 눈이 또렷해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눈이 화미해 보이는
얼굴에서 눈썹이 선명해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눈썹이 흐려보이는
얼굴에서 눈이 날카로워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눈이 부드러워 보이는
얼굴에서 눈이 길어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눈이 짧아 보이는
얼굴에서 눈의 높이가 높아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눈의 높이가 낮아 보이는
얼굴에서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얼굴에서 눈꼬리가 내려가 보이는

코

얼굴에서 코가 길어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코가 짧아 보이는
얼굴에서 코 폭이 넓어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코 폭이 좁아 보이는
얼굴에서 콧대가 높아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콧대가 낮아 보이는
얼굴에서 콧망울이 커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콧망울이 작아 보이는
얼굴에서 코가 또렷해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코가 희미해 보이는

입

얼굴에서 입이 또렷해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입이 희미해보이는
얼굴에서 입이 커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입이 작아 보이는
얼굴에서 입이 길어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입이 짧아 보이는
얼굴에서 입끝이 올라가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입끝이 내려가 보이는
얼굴에서 입술이 얇아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입술이 두꺼워 보이는
얼굴에서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조화로워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조화로워 보이지 않는

볼

얼굴에서 볼이 넓어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볼이 좁아 보이는
얼굴에서 볼이 처져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볼이 올라가 보이는
얼굴에서 볼이 길어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볼이 짧아 보이는
얼굴에서 볼이 커 보이는	1—2—3—4—5—6—7	얼굴에서 볼이 작아 보이는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 아래의 문항은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반대의미로 이루어진 형용사입니다. 제시하는 사진에 대해 자신이 받은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다음의 예와 같이 ○를 하여 주십시오.

예) ---> 매우 청순하다고 생각될 때

청순한 ① --- 2 --- 3 --- 4 --- 5 --- 6 --- 7 섹시한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매우그렇다

♣ 사진번호 _____

청순한	1 --- 2 --- 3 --- 4 --- 5 --- 6 --- 7	섹시한
부드러운	1 --- 2 --- 3 --- 4 --- 5 --- 6 --- 7	딱딱한
따뜻한	1 --- 2 --- 3 --- 4 --- 5 --- 6 --- 7	차가운
여성적인	1 --- 2 --- 3 --- 4 --- 5 --- 6 --- 7	남성적인
세련된	1 --- 2 --- 3 --- 4 --- 5 --- 6 --- 7	촌스러운
보기좋은	1 --- 2 --- 3 --- 4 --- 5 --- 6 --- 7	보기싫은
사랑스러운	1 --- 2 --- 3 --- 4 --- 5 --- 6 --- 7	사랑스럽지않은
어려보이는	1 --- 2 --- 3 --- 4 --- 5 --- 6 --- 7	나이들어보이는
날카로운	1 --- 2 --- 3 --- 4 --- 5 --- 6 --- 7	둔한
발랄한	1 --- 2 --- 3 --- 4 --- 5 --- 6 --- 7	집잡은
화려한	1 --- 2 --- 3 --- 4 --- 5 --- 6 --- 7	수수한
자연스러운	1 --- 2 --- 3 --- 4 --- 5 --- 6 --- 7	인위적인
귀여운	1 --- 2 --- 3 --- 4 --- 5 --- 6 --- 7	성숙한
활동적인	1 --- 2 --- 3 --- 4 --- 5 --- 6 --- 7	비활동적인
능력있는	1 --- 2 --- 3 --- 4 --- 5 --- 6 --- 7	무능력한
현대적인	1 --- 2 --- 3 --- 4 --- 5 --- 6 --- 7	고전적인
화사한	1 --- 2 --- 3 --- 4 --- 5 --- 6 --- 7	칙칙한
시원한	1 --- 2 --- 3 --- 4 --- 5 --- 6 --- 7	답답한
도시적인	1 --- 2 --- 3 --- 4 --- 5 --- 6 --- 7	전원적인
고상한	1 --- 2 --- 3 --- 4 --- 5 --- 6 --- 7	천박한
밝은	1 --- 2 --- 3 --- 4 --- 5 --- 6 --- 7	어두운
매력 있는	1 --- 2 --- 3 --- 4 --- 5 --- 6 --- 7	매력 없는
개성 있는	1 --- 2 --- 3 --- 4 --- 5 --- 6 --- 7	개성 없는
강렬한	1 --- 2 --- 3 --- 4 --- 5 --- 6 --- 7	무난한
편안한	1 --- 2 --- 3 --- 4 --- 5 --- 6 --- 7	불편한
자신감 있는	1 --- 2 --- 3 --- 4 --- 5 --- 6 --- 7	자신감 없는
지적인	1 --- 2 --- 3 --- 4 --- 5 --- 6 --- 7	지적이지 않은
우아한	1 --- 2 --- 3 --- 4 --- 5 --- 6 --- 7	우아하지 않은
얌전한	1 --- 2 --- 3 --- 4 --- 5 --- 6 --- 7	얌전하지 않은
산뜻한	1 --- 2 --- 3 --- 4 --- 5 --- 6 --- 7	우중충한

메이크업 선호

* 제시하는 사진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사진번호 _____

1.얼굴이 호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호감형이다. ②호감형이다. ③보통이다. ④호감형이 아니다. ⑤매우 호감형이 아니다.

2.얼굴이 동료로서 호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호감형이다. ②호감형이다. ③보통이다. ④호감형이 아니다. ⑤매우 호감형이 아니다.

3.얼굴이 친구로서 호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호감형이다. ②호감형이다. ③보통이다. ④호감형이 아니다. ⑤매우 호감형이 아니다.

4.얼굴이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신뢰감을 준다. ②신뢰감을 준다. ③보통이다. ④신뢰감을 주지 않는다. ⑤매우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

5.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예쁘다. ②예쁘다. ③보통이다. ④예쁘지 않다. ⑤매우 예쁘지 않다.

6.얼굴이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건강해 보인다. ②건강해 보인다. ③보통이다. ④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⑤매우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7.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나이들어 보인다. ②나이들어 보인다. ③보통이다. ④나이들어 보이지 않는다. ⑤매우 나이들어 보이지 않는다.

8.얼굴이 어려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어려 보인다. ②어려 보인다. ③보통이다. ④어려 보이지 않는다. ⑤매우 어려 보이지 않는다.

9.얼굴이 조화롭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조화롭게 보인다. ②조화롭게 보인다. ③보통이다. ④조화롭게 보이지 않는다. ⑤매우 조화롭게 보이지 않는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얼굴형태 변화 평가문항 구성과 출처

구성 요소	형용사 쌍문항내용	출처							빈도
		자유 기술적언어	송미영 (2005)	전인미,이혜주 (2007)	김정희 (2008)	이상은,신지현 (2005)	이미애, 김용선 (2005)	김정희 (2003)	
얼굴형태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 넓어 보이는	0	0						3
	얼굴이 짧아 보이는 - 길어 보이는	0	0						3
	얼굴이 각지게 보이는 - 둥글어 보이는	0	0						3
	얼굴이 작아 보이는 - 커 보이는	0	0						2
	얼굴이 또렷해 보이는 - 또렷하지 않은	0	0						2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 평면적으로 보이는	0	0						2
	얼굴이 조화롭게 보이는 - 조화롭게 보이지 않은	0	0						1
	얼굴에서 광대뼈가 나와 보이는 - 광대뼈가 나와 보이지 않은	0	0	0			0	0	3
	얼굴에서 눈이 커 보이는 - 작아 보이는	0	0	0					3
	얼굴에서 눈이 또렷해 보이는 - 눈이 희미해 보이는	0	0	0		0			1
눈	눈이 선명해 보이는 - 흐려 보이는	0	0	0					4
	얼굴에서 눈이 넓어 보이는 - 부드러워 보이는	0	0	0					2
	얼굴에서 눈이 길어 보이는 - 짧아 보이는	0	0	0					3
	얼굴에서 눈의 높이가 높아 보이는 - 낮아 보이는	0	0	0					2
	얼굴에서 눈의 높이가 높아 보이는 - 낮아 보이는	0	0	0					4
	얼굴에서 코가 길어 보이는 - 코가 짧아 보이는	0	0	0					2
	얼굴에서 코폭이 넓어 보이는 - 코폭이 좁아 보이는	0	0	0				0	2
	얼굴에서 콧대가 높아 보이는 - 낮아 보이는	0	0	0				0	2
	얼굴에서 콧방울이 커 보이는 - 작아 보이는	0	0	0				0	3
	얼굴에서 코가 또렷해 보이는 - 희미해 보이는	0	0	0					1
입	얼굴에서 입이 또렷해 보이는 - 희미해 보이는	0	0	0					1
	얼굴에서 입이 커 보이는 - 작아 보이는	0	0	0					2
	얼굴에서 입이 길어 보이는 - 입이 짧아 보이는	0	0	0					2
	얼굴에서 입뿔이 길어 보이는 - 입뿔이 내려가 보이는	0	0	0					2
	얼굴에서 입뿔이 올라가 보이는 - 입뿔이 내려가 보이는	0	0	0				0	3
	얼굴에서 입술이 얇아 보이는 - 입술이 두꺼워 보이는	0	0	0				0	3
	얼굴에서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조화로우 보이는 - 조화로우 보이지 않는	0	0	0					1
	얼굴에서 볼이 넓어 보이는 - 볼이 좁아 보이는	0	0	0					1
	얼굴에서 볼이 쳐져 보이는 - 볼이 올라가 보이는	0	0	0					1
	얼굴에서 볼이 길어 보이는 - 볼이 짧아 보이는	0	0	0					1
볼	얼굴에서 볼이 커 보이는 - 볼이 작아 보이는	0	0	0					1